



12

주체 96 (2007)

문학예술출판사



(루계 제 722 호)

1

가보	44
나는 천리마에 꿈을 얻는다	45
혁명의 어머니에 대한 위인의 서정세계를 음미하며	46
조종의 산	48
별	50
병사시절 그때처럼	50
사랑의 향기	51
아, 나의 동해	60
불굴의 인간들	61
밤 2시	61
박아바이의 미소	61
지원물자차 달린다	62
결사대원들	62
백배로 강해졌다	63
건강, 위생	63
고향의 흙	64
경구, 격언	69
《종소리》는 바다넘어 울리어온다	70
나는 총과 이렇게 인연 맺었다	74
젊은 장수의 교훈	74
고구려는 잠들지 않는다	75
장수부채	75
기록문학	76
나라의 존엄을 과시한 시인	76
부사 박종인에게 외 2편	77
왜적을 격파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77
김응하의 사당에 쓴 시	77
올해의 소설들을 돌이켜보며	78
시의 한해를 뒤돌아보며	78
주체적인 선군문학운동에 이바지한 평론	79
시인의 뉘우침	80

12 월 24 일 찬가

최준경

1 년 열두달은 365 일
 많고많은 날과 달들이 이어져있건만
 어이하여 우리 수령님 12 월 24 일
 김정숙어머님 탄생하신 뜻깊은 날에
 백두령장 우리 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셨던가

지금도 올려와라
 걱정이 파도치던 12 월의 대회장
 환호소리 차넘치던 영광의 대회장
 군령도의 총대바통을 굳건히 이어주시며
 수령님 우렁우렁하게 하신 그 말씀 그 음성
 내 조국의 가장 큰 계승의 력사로
 영광의 메아리 걱정의 메아리가 되어
 오늘도 총천 이 가슴을 쿵쿵 울려주거니

생각할수록 감사의 정 뜨거워라
 이 땅에 흐르는 날과 달들이
 어머님 그리움을 간절히 싣고오던 그날에
 못 잊을 오산덕고향집에서
 어머님 탄생하신 설경의 그날에
 최고사령관복을 천만년 함께 누려가라고
 수령님 몸소 달력을 번지고 또 번지시며
 친히 골라주신 행운의 날이여!
 력사에 빛내주신 경사론 명절이여!

오, 가는 해를 승리로 아로새기고
 오는 해를 마중하는 열두달의 령마루
 12 월 24 일
 기쁨은 기쁨을 날고
 행운은 행운을 날아
 백두천지도 격파숫아 그 감격 전했고
 천만병사들 총대숲을 흔들며
 하늘 땅 바다에 만세의 합성을 터칠 때
 온 세상 벗들도 격찬의 환호로
 위도와 경도를 넘어 해쏘는 내 나라로
 축원의 전파를 날려오지 않았던가

언제나 병사들과 함께 계시며
 동서남 전선길을 종횡무진하시며
 백두의 기상과 담력 철의 의지로
 천하를 위락파락하신분
 선군의 총대로 광풍도 쳐갈기시고
 고난의 령을 넘어 강성대국의 활로를 열어
 광휘론 새 세기를 선군의 길로

이끄시는분

이 세상 가장 위대한 백두령장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
 병사들 모두다 그 품에 안겨
 장군님명령을 총대로 받들고
 최고사령관이 펄펄 날리며
 성새 방패 총폭탄결사대로
 무적필승의 백두산강군으로 자라났거니
 그 어떤 강적도 우리와 맞설수 없고
 그 어떤 《초대국》도 우리 힘 당할수 없으리라

력사여 말하라
 백두령장 그이 아닌 그 어느 누가
 제국주의호전대적과 맞서
 붉은기 수호전의 련전련승으로
 세기와 세기를 승리로 이어 올수 있었으랴

승리여 너도 한껏 빛발치라!
 천출명장 그이 아닌 또 누가
 선군시대의 조향륜을 굳건히 잡고
 수세기에도 못 이룰 위업을
 력사의 한순간에 앞당겨
 선군조선의 강대한 존엄과 위력을
 그리도 도도히 만천하에 떨칠수 있었으랴

오, 애국헌신의 천만리
 선군장정의 천만리에 쌓으신
 백두령장의 불멸의 그 업적
 우리 태양 수령님의 축복속에
 우리 해발 어머님의 념원속에 받들리워
 해빛 눈부신 구만리 하늘끝에 닿았거니
 우리 어찌 세월이 흘러간들
 12 월의 그날을 한시도 잊을수 있으랴

영광 넘쳐라
 경축의 꽃보라속에 맞고 보내는
 온 나라의 명절 12 월 24 일이어
 태양민족의 명절 12 월 24 일이어
 너는 4 월과 2 월의 봄명절과 함께
 백두산 3 대장군복이 하나로 합쳐져
 민족의 대행운이 밝게 열린 력사의 날
 너는 무적강군의 건군사에 자랑높이 새겨져
 세기와 세기의 먼먼 앞날까지
 후손만대에 영원불멸하리라

범들도 머리속이다

김우경

혁명시인 조기천은 장편서사시 《백두산》의 머리시에서 일제 백만관동군을 벌벌 떨게 한 백두산시절의 위대한 수령님을 백두산호랑이에 비유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쉬- 위-
바위우에 호랑이 나섰다
백두산호랑이 나섰다
앞발을 거세게 내어뻗치고
남쪽하늘 노려보다가
《따-웅-》 산골을 깨친다
그 무엇 처부시런듯 톱을 들어
《따-웅-》

이 서사시는 해방직후 어버이수령님의 위인상을 높이 칭송한 문학작품이다.

그러나 실은 이보다 앞서 우리 인민들이 창조한 백두산전설에는 수령님을 백두산호랑이로 형상한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았다.

호랑이란 곧 용맹과 무적의 힘의 상징이요, 태여날 때부터 이마에 임금왕자를 이고 태어나는 산중의 왕이기때문이며 그 용맹기결한 모습과 서리차게 뿜어나는 무적의 기상에 저절로 머리를 숙이게 되기때문이었을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런 범을 매우 좋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금수산의사당에 계실 때 가까이에 있는 대성산동물원 맹수사에 나가보시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조선범앞에서 오래동안 머무르곤 하시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럴 때면 누가 와도 누워서 거들떠보지 않거나 아니면 귀찮은 성화에 화를 내곤 하던 범들이 놀랄만큼 활기를 띠고 오가며 꼬리를 휘휘 젓곤 하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손을 드시고 오라고 하면 오고 물어보라고 하면 《따-웅》하고 기운차게 물어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처음 맹수사에 오시였을 때 안내해드리던 관리원들과 일꾼들은 너무도 신기한 일이여서 이만저만 놀라와하지 않았다.

아직 동물원에 익숙되지 않아 제 마음대로 날치던 범들이 위대한 수령님 앞에서는 고분고분해지니 길들인 범인들 저렇게 공손해질수 있을가.

산중의 왕으로 불리우는 범들이 마치 어버이수령님앞에서는 어린 강아지로 변한듯싶었다.

이 기이한 현상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여야 할것인가?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으면 도저히 믿을수 없으리만큼 전설에서나 있음직한 일이었다.

동물원일꾼들도 그 일은 누구도 믿기가 어려우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한 항일혁명투사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을뿐아니라 도리어 웅당한 일로 여기며

《옛날에는 천하에 제일가는 장사를 두고는 <범을 누르고 룡을 휘여잡을만 한>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우리 수령님은 말그대로 범을 누르고 룡을 휘여잡는분이시오. 우리가 산에서 싸울 때 백두밀림과 만주광야에는 범들이 적지 않았고 맞다들리는 때도 한두번이 아니였소. 조선범은 말할것도 없지만 동북범도 그에 못지 않게 크고 사나운데 그 어느 범이건 우리 수령님께서 나타나시면 조용해지며 물러가곤 하였소.》

하고 그는 그 시절에 있던 하나의 일화를 이야기하였다.

주체 25(1936)년 정초, 남호두회의가 있기 얼마 전이었다고 한다.

전령병이 급히 달려와 사령관동지께 망원초근처에 큰범이 나타나 립초성원들을 위협하는데 총소리를 내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거기에 범이 있다는것을 이미 알고계시였다.

망원초의 아래에 동굴이 있고 거기서 어미범이 새끼 두마리를 거느리고 살고있었다.

립초성원들이 망원초의 위치를 옮기려고 하여도 적당한 장소가 없었다.

그런데 그 범이 어제부터 퇴성벽력같은 고향을 지르고 높은 벼랑바위중턱까지 길길이 뛰여오르며 야단을 친다는것이였다.

무서운것은 둘째로 치고 은밀성을 보장해야 할 망원초가 적들에게 발견될 우려가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숨가쁘게 달려온 전령병을 안심시키며 그 범의 굴로 향하시였다.

정말 굉장히 큰 갈범이 굴앞에 도사리고있아 《따웅, 따웅》하고 고향을 지르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범의 굴앞에 이르시자 뒤집을 지고 서시여 한동안 범을 지켜보시였다.

립초성원들은 그들이 갑자기 수령님께 범접할가보아 총을 겨냥한채 숨까지 죽이고있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1분, 또 1분이 지나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살기를 띠고 날치던 범이 위대한 수령님의 눈길과 마주치자 굳어진듯 한동안 쳐다보더니 순간에 조용해지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더 날치지 않고 앞발로 땅을 허비며 끄르르거리다가 굴로 들어가 두마리의 새끼까지 끌고 나와 수령님 쪽을 유심히 쳐다보며 쭈그리고 앉는 것이었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대원들에게 《걱정할 것 없소. 인제는 공손해질 거요.》라고 하시고는 자리를 뜨시었다.

그때부터 유격대원들은 사나운 호랑이도 머리를 수그리게 하는 **김일성** 장군님이시야말로 정말 하늘이 낸 분이라고 말하곤 하였다고 한다.

항일혁명투사의 이야기를 동물원 일꾼들은 깊은 감동속에서 들었다.

그 투사의 이야기는 사실이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도 회고록에서 그 일을 회억하시면서 그 범은 항일빨찌산들의 《친선적인 이웃》이 되어 계속 《선린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유격대원들이 범의 굴앞에 보관한 수백정의 무기를 착실하게 지켜주었다고 쓰시였었다...

그후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동물원에 나오시면 범들은 강아지가 응석을 부리고 재주를 부리듯 하였으며 그이께서 나오시지 않을 때에는 그리워하듯 금수산의사당 쪽을 바라보며 우리안을 오갔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날 동물원맹수사에서는 전에 없던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새벽에 갑자기 맹수사에서 범의 울음소리가 울리었는데 그 소리가 매우 이상하였던 것이다.

《따-웅》하고 기운차게 울곤 하던 범이 《어웅》하고 구슬픈 소리로 울고있었다.

마음이 불안하여 달려온 관리원들은 우리안을 들여다보자 가슴이 철렁하였다.

세마리의 조선범들이 똑같이 발을 앞으로 내밀고 고개를 떨군채 그런 소리를 내고있는 것이었다.

불을 뿜는듯 번쩍이던 두눈은 불꺼진 숯덩어리처럼 컴컴하였고 티끌 한점 묻을세라 아끼던 몸통이와 꼬리는 땅우에 되는데로 놓여있었다.

참으로 이상한 거동이였다.

(왜일일가?) 관리원들은 도무지 영문을 알수 없어 어찌할바를 몰랐다.

그런데 슬피 울던 범들은 이번엔 앞발로 땅바닥을 마구 허비며 몸부림을 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불덩이가 몸에 닿기라도 한듯 우리안을 미친듯

이 돌아치더니 앞발을 들었다가 바닥이 깨어져라 내리치며 벽력같이 울부짖었다.

《따웅, 따웅》

대성산골안은 금시 떠나갈듯 하였다

관리원들은 안타까와 살창을 부여잡고 발을 동동 굴렀고 동물원 일꾼들도 모두 달려왔다.

그러나 누구나 길길이 날뛰는 범을 보며 아연실색하였을뿐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알지 못하였다.

무슨 일일가?

지진이 일 징조라고 느낀 것일가.

아무리 애를 써도 범들의 이상한 거동은 멈출 수도 달랠 수도 없었다.

먹이도 먹지 않고 계속되는 범들의 이상한 거동은 낮에 밤을 이어 다음날 한낮까지 계속되었다.

그날 낮 12시, 태질하는 범결에서 떠날줄 모르던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지고 지구가 깨어진것보다 더 무서운 비보를 듣게 되었다.

세기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심장이 뜻밖에도 고동을 멈추었다는 너무나도 비통한 소식이었다.

《수령님, 가시면 안됩니다! 우린 어찌하렵니까?》

사람들은 무너지듯 주저앉아 땅을 치며 목놓아 울고 또 울었다. 범들도 구슬픈 목소리로 《아-으》하고 곡성을 터뜨리었다.

이날은 주체 83(1994)년 7월 9일이였다.

하늘이 낸 위인의 서거를 범들이 먼저 안것인가.

범들이 피상한 소리로 울기 시작한것은 7월 8일 새벽, 위대한 수령님의 심장이 고동을 멈추던 그 시각이였다고 한다.

하늘땅이 비애로 가득찼던 그때, 범의 이상한 거동은 황해북도 신평군과 자강도 장강군를 비롯한 전국의 여러곳에서도 있었다.

여느때는 없었던 범들이 나타나 큰 울음소리를 터뜨렸던 것이다.

호곡소리는 사람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였다.

《백두산호랑이》이신 우리 수령님이 가시었으니 어찌 이 땅의 범들이 호곡을 터뜨리지 않겠는가.

그후에도 대성산동물원의 조선범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기념궁전쪽을 자주 바라보곤 하였는데 그 모습은 흡사 그이께서 찾아오실 그날을 기다리는듯 하다고 한다.

사랑을 선언한다

리민철

폭풍을 호흡한
거인의 가슴인듯
배심도 든든히
정의를 만장약한 총대를 거머쥐고
사랑의 노래를 내 부르노라
심장의 걱정 한껏 터치여

나무람하지 마시라
그처럼 부드럽고 살뜰한 사랑을
달빛아래 유정한 산보길이 아닌
증오의 불벼락 금시 쏟아부을듯
멸적의 기상념친 엄숙한 전호가에서
이렇게 노래함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허나 내 오늘 부르는 노래는
달콤한 속삭임과 인연이 없다
칠현금에 애뜻한 련정을 담은
목가적인 노래를 무색케 하는
선군이 떨치는 사랑의 노래

이 시각도 잠시 귀기울이면
들려온다 시간마다 분마다 태어나
이 땅에 꽃피나는 전설같은 이야기
선군시대 숨결이런가
가슴마다 넘쳐나는 사랑이야기

인생의 보람과 조국의 존엄이
위대한 사랑속에 꽃피난것이기애
전설같은 그 사연 전하고싶은 마음
그 마음에 붓대도 젖어만 드는 이 시각

백두산천출위인 우리 장군님
장엄하게 펼쳐주신 선군세월이
그대로 사랑의 년대기여서
필승의 신심념친 이 노래도
어차피 사랑으로 엮여지게 되었거니

사람들이여 우리 함께 이야기하자
천만군민의 행복과 영광을 꽃피준
그 사랑의 참뜻이 무엇인가를
그 시작과 끝은 과연 어디인가를

사랑의 시작은 어디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이 그 어떤 감정이기에
그것만 지니면 환희가 넘치고
끝없는 행복감에 젖어드는것인가

사랑이 그 어떤 신비의 샘이기에
가슴에 불같은 열정이 솟구치고
아름다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져
참된 삶의 노래가 울려나는것인가

어머니는 사랑의 상징이라 하였더라
자신의 피와 숨결 나눠준 생명들이
불면 날가 쥐면 꺼질가
애지중지 입맞춰주고 껴안아주며
세월의 모진 눈비바람을
치마폭으로 감싸주고 막아주던 어머니

허나 그처럼 열렬한 어머니사랑도
한두명에 불과한 살불이의 운명을
책임지고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거니
아 어찌하여 지난날
어머니의 고결한 사랑의 세계가
그처럼 허무하게 무너져내렸던가...

오, 우리 장군님
력사적인 선군장정 시작하실 때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수 있었으랴
부드러움과 인연없다는 서슬푸른 총대로
사랑의 새 전설 꽃피워주실줄이야

눈덮인 다박술초소를 찾으셨던
1월의 그날도 잊지 못하노라
야전복차림의 우리 장군님
아버이수령님께 인사 드리시고
금수산기념궁전 나서시는 그 길로
총권 병사들을 찾아주시던
감격의 그 아침 다시금 생각한다

아이들이 설맞이공연무대 펼쳐놓고
애타게 기다리고있는줄 알면서도
그들을 뒤에 두고 먼저 찾아왔다고
내가 있는 한
아이들의 노래춤 영원하다는것을
총대로 말하고싶어 선군길 나섰다고
갈리신 음성으로 하시던 말씀

아, 하늘이 내신 열의인 정의인
백두의 정기와 기상을 안으신
백두산 빨찌산의 아들이시기에
인간애, 조국애, 그 성품, 그 마음씨
사랑을 천품으로 이으셨기에
정의의 수호자가 되신
우리 장군님

사랑이란 말이야 누군들 못하랴만
피땀을 포식하는 사악한 무리들도
식인종의 더러운 그 주둥이로
사랑을 도용하여 때문하면서
이 세상의 온갖 재부 창조해가는
슬기로운 인민들을 우롱하였더라

장리쌀 되로 주고 말로 뺏아내면서도
자본의 채찍으로 고혈을 짜면서
놈들이 떠벌여온 《자선》과 《박애》
허울좋은 《인도주의》, 《인권》타령
그것은 간특한 사랑발림의 속임수
인간과 사랑에 대한 모독이고 도전

희떠운 언어유희 언어회롱속에
인민의 고통은 백배로 더해지고
세상은 사랑의 불모지로 되었건만
그 어느 위인 어느 정당이
인민을 사랑의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사심없는 선정을 베풀적 있었던가

사랑과 인간을 욕되게 하는
패덕한들을 쓸어버리지 않고서는
인간도 사랑도 지킬수 없었기에
10 대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큰 심장 지니시고
백두산에 오르신 우리 수령님

가슴속에 타오르는 사랑의 불길로
정의의 장검을 버리셨는가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된
주체의 해불을 높이 드시고
타도제국주의를 선언하셨거니

아버이수령님처럼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
총대높이 추켜드신 선군의 기치
그것이 력사가 아직 들어보지 못한
인민사랑의 언약을 대신한것 아니던가

오, 선군
백두산 3대장군 한평생 바치시여
마침내 찾아주고 꽃피워주신
인생과 사랑의 참다운 노래
인민을 세계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간과 사랑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 다져진 사랑의 보검!

그것은 이 세상의 아름답고 우아한
사랑의 모든것을 다 합친것보다 장엄한것
진리는 소박하고 명백하나니
총대로 사랑을 지켜야 함을

단마디로 깨우쳐준 위대한 진리!

그렇더라 선군!
인륜을 거부하는 야수들에게
분노의 무자비한 철추를 내리고
이 땅 이 행성 인간세상에
사랑의 새 료리를 세우기 위한
인류사의 빛나는 력사적총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드신 그날부터
내 조국의 푸른 하늘 더 높이 들리우고
사회주의 이 강산에
천만가슴 더욱 뜨겁게 적시여주는
인민사랑의 새 력사의 장이 펼쳐졌어라

사랑의 참뜻은 무엇

생활속에 가꾸고 투쟁속에 검증되는
거기에 사랑의 진가가 있을진대
몸과 마음 내대이는 헌신이 없이
어떻게 참사랑을 운운할수 있으랴

어머니가 한 자식 키워내는데
오만공수 든다는 말이 있건만
사랑의 감정 지너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체험해보았으리라
한 인간을 사랑하여 바치는 공수도
결코 험치 않고 적지 않다는것을

하물며 한가정의 호주만이 아닌
선군대가정의 아버지되시여
사나운 눈비바람 다 막아주시려고
선군장정 시작하신 장군님의 그 로고
정녕 무엇으로 헤아릴수 있으랴

우리와 경애하는 장군님께 있어서
사랑의 주인공인 천만군민은
자신과 같고
사랑의 전부

사색을 하시여도 군민
한결음을 걸으셔도 군민
슬픔도 고초도 묵묵히 새기시며
장군님 이어오신 선군길 얼마던가

사랑은 헌신이라 일러오건만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안으시고
우리 장군님 걸으시는 그 길은
헌신이라 하기엔 너무나도 희생적인
최전연의 아슬아슬한 순간으로부터
야전차도 얼음길에 뒤걸음치는

위험천만한 경길의 편속이었다

세상을 둘러보면
이상정치기류에
불행을 겪는 소식 자주 들려오고
때아닌 《폭설》, 쏟아지는 《장마비》에
넋을 잃은 달팽이들 붉은기 내리우고
신념의 돛대를 꺾을 때에도
선군은 혁명의 명맥이라고
한치도 드림없이 쉬임도 없이
헌신으로 선군장정 수놓으신 장군님

사랑위해 지는 짐은
천만근도 가벼운듯
사랑위해 걷는 길은
천만리도 지척인듯
험로역경을 뚫고헤치는것을
자신께서 지니신 너무나도 웅당한
사랑의 신성한 의무로 여기시고
스스로 걸머지신 그 의무를
희생적인 헌신으로 지켜오셨더라

동지들이 있기에 김정일도 있고
동지들이 없으면 김정일도 없다
나는 곧 그대이며 그대는 곧 나
이 불변의 신념안고 온 나라 다 찾으시어
숭고한 뜻과 정 고스란히 안겨주어
마침내 하늘땅 다 얻으셨는가
천만군민모두다 동지로 삼고
동지애의 새 세기 펼치셨거니

승엄하여라
평범한 날 정원에서가 아닌
준엄한 폭풍우 뚫고 헤치며
족잡과 췌기밥 함께 들면서
생사고락 같이하며 혈연으로 맺어진
더없이 소중하고 굳건한 동지애여

천금주고 살수 없는 동지적 그 사랑은
돌우에도 꽃을 피우고
기어이 가야 할 선군길에서
뜨거운 믿음과 사심없는 보살핌
그것으로 수놓아진 위대한 사랑

믿음중에서도 최상의 믿음인
정치적신임이 담겨진 그 사랑은
이 나라 아들딸들 정치적생명 지닌
존엄있는 인간으로 키워주시며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 사랑

잘나고 못난 자식 가림이 없이
허물있는 자식들도 한품에 안아
사소한 의혹이나 오해와 불신

차별을 모르는 변심없는 그 사랑이
인덕정치 광폭정치 안아왔는가
그 믿음 그 사랑에 새 생명 받아안고
두번다시 태어난 전사들은 얼마던가

한번 웃으시면
마른 고목에도 꽃을 피우시고
눈보라 울부짖던 수림속에도
봄동산 펼치여 꽃향기 안겨주는
해빛같이 환하신 장군님의 그 미소

선군령장 그이께서
주시는 과업 어렵고 힘들수록
그것은 더더욱 뜨거운 믿음의 표시
그 믿음에 담겨진 최대한의 사랑은
최대한의 원칙적인 요구성이더라

그 사랑 자애롭고 웅심깊기에
때로는 꾸짖음과 처벌을 받는대도
거기 담긴 어버이의 진정을 읽으며
이 나라 아들딸들 의기소침함이 없이
죽어서도 붉은기에 휩싸이길 바라며
분발하여 선군길 따라서지 않았던가

천만군민모두를
세상에 부럼없이 내세우시려는것은
선군령장 그이의 필생의 념원
기쁨이 열가지 백가지라도
고통이 한가지면 그것은 불행한것
그러기에 그이께서 베푸시는 사랑은
정치적신임과 하나로 융합된
친부모의 사심없는 보살피심이더라

군민전체를 대하시면서도
홍안의 전사나 소박한 너인의
가슴속에 남몰래 간직한 소망도
귀속말로 소중히 들어주시며
본인도 친부모도 미처 몰랐던
병색도 찾아주고 재능도 꽃피워주는
력사에 전례없는 다심한 보살피심

자주 만나야 정이 두텁다고
군민을 찾아 걷고걸으시는
선군길이 그대로 사랑의 길이건만
그 길에서 만난 평범한 사람들의
소박한 일본새와 말마디속에서도
진리를 찾아 짚으시며
인민 위한 정책으로 꽃피워주시는
이런 사랑 그 언제 어디에 있었던가

고귀한 삶의 목적을
군대와 인민 위해 복무하는데 두시고
커가는 인민의 행복에서

끝없는 기쁨을 찾으시며
투쟁의 새 영역으로
쉬임없이 전진하고 돌파하시며
창조하고 혁신하시는것을
더없는 행복으로 여기시는 장군님

사랑은 의리이고 포용력이더라
선군길에서 숨졌던 렬사들도
그 사랑의 힘으로 다시 일떠세웠는가
선군령장 우리러 감사의 정에 넘쳐
영생의 언덕우에 정렬하였으니
대해같은 품에 안긴 전사들에겐
애당초 죽음이란 있을수 없으랴

그 사랑의 빛과 열엔
무심한 돌조차 녹아내리는듯
편견과 곡해속에 떠나갔던이들도
안아주고 품어주는 너그러운 품을 찾아
재생의 감격속에 새 출발을 고하거니
그 사랑의 폭과 깊이 어디에 비기랴

장군님과 한식술인 우리에게
사랑의 언어와 문법이 따로 있어
우리 식 사랑의 풀이법이 있어
그이 한번 일터에 오시면
그 결음의 무게 인민은 다 알고
그이 한번 시선을 주신 곳에서
세월의 먼 래일도 내다보나니

정녕 선군령장 그이의 사랑은
우리 시대 인간들의 우정과 애정도
피와 살 뼈까지 서슴없이 나누는
선군 새 료리로 꽃피워주었거니

선군길에 넘쳐나는 상하일치 군민일치
선군에 한몸 바친 영예군인들과
일생을 약속하는 청춘들의 그 속삭임
불빛은 창가의 화목한 웃음소리
그것이 다 합쳐진 일심단결의 대합창
선군이 펼쳐준 새 화폭이 아니던가

아 억만개의 초불 모두 합쳐도
한가닥의 해빛에 비할수 없고
홀어진 빗발을 한데 묶는데도
결코 태양을 이룰수 없듯이
하늘땅을 사랑으로 꼭 채우신 장군님은
아, 온 누리에 빛나는 태양!

승엄하다 선군태양 그이의 사랑은
수난자로 버림받던 인민대중을
세계의 주인으로 높이 내세우고
전설의 장수 신화의 거인같은
력사의 창조자로 키워준 사랑

그 사랑 다 노래불러 전하기엔
인류가 창조한 말과 글이 부족하거니
선군으로 사랑의 진리 밝혀주시고
그 사랑 참답게 꽃피워주시는
선군사랑실록은
세기를 이어 영원하리라

사랑의 끝은 어디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락엽지듯이
인생에도 봄이 있고 가을이 있다지만

봄가을 계절도 가림이 없고
무한대의 하늘처럼 영원한 사랑
세월이 갈수록 곱으로 더해지는
공자전의 지구처럼 무궁한 사랑

우리만이 지닌 특전 수령복 장군복
선군이 있기에
어머니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부터
국가와 군대도 인민의 이름으로
기념비적창조물도 인민의 이름으로
영원한 인민의 세상을 펼쳤거니

그 어느 문호가 남긴 말이던가
인생의 최고행복은
사랑을 받고있다는 확신이라고
아마도 그것은
참사랑을 애타게 갈구해온
력사의 피타는 하소연이리

비길수 없으랴
우리 인민이 누리는 이 행복 이 영광
하늘이 낸 희세의 성인이신
우리 장군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받아안고 사는
최상의 행복과 영광
그 어이 다 노래할수 있으랴

그 누구의 가슴을 헤쳐보아도
그 어느 연혁실을 찾아가봐도
알고받은 사랑이 열, 스무가지라면
모르고 받는 사랑 천가지 만가지

사랑의 창조물도 따로 찾지 말라
선경으로 펼쳐진 그 모든 창조물이
그대로 선군이 낳은 사랑의 기념비
그 모든것 한품에 그려안고 높이 솟은
백두산은 선군성산 사랑의 성산!

그 몇번 되뇌이신 말씀이던가
걸어온 선군길 감회깊이 추억하며
뜨겁게 하시던 장군님의 그 말씀
우리 인민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나에겐 인민복 동지복이 있다고

아 그 말씀 그대로 사랑의 명언
인민에게 주시는 사랑의 표창인가
주고받는 미덕이 사랑이라 하였건만
《고난의 행군》길 이어오시면서
첼기밥으로 끼니를 이어오신 장군님 생각하며
송구함 죄송함에 가슴치는 인민에게
장군님 베푸시는 그 사랑의 최절정엔
소탈하기 그지없는 겸허성이 빛나거니

인간중의 참인간 그이에 대한
가장 순결한 숭배와 존경
이것은 력사의 분부만이 아니더라
사랑은 돈으로도 살수 없는것
도덕적의무감과 그 어떤 론리적귀결
그것으로 형성된 감정도 아니더라

천만군민모두가 자신을 믿듯
장군님을 무조건 절대적으로 믿는것은
매혹적인 풍모와 덕망에서 시작된것
그이께서 안겨주신 사랑의 힘으로
용기백배 시련을 뚫고오는 과정에
스스로 다져진 신념이고 의지

장군님마음속엔 군민이 있고
군인의 마음속엔 장군님이 계시기에
애오라지 장군님만 하늘처럼 믿는것은
군민의 량심이고 참다운 의리
그래서 천만이 총폭탄되어
수령결사옹위 노래 심장으로 부르며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건만

너무나도 웅당한 진심의 그 소행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우리 장군님
세월의 이끼속에 묻어두지 않으시고
온 세상이 다 알도록 내세워주시나니
갈수록 더하여 끝없는 그 사랑
언제면 그 언제면 다 갚을수 있으랴

오, 선군과 사랑은
우리 장군님의
사고와 활동의 시작이며 그 원천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그 모든것 하나로 집대성하여
주체와 진리로 새롭게 다듬은
인간사랑의 최고정화!

정녕 그것이여라

핵무기보다 위력한 일심단결의 무기
당과 조국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혁명적군인정신
혁명적동지애와 대중적영웅주의
부정의와 타협없는 견결한 투쟁정신
우리 지닌 풍모와 기질의 모든것은
전적으로 선군령장 그이께서 안겨준것
선군에 시원을 둔 사랑에서 분출한것

하기에 그 사랑에 매혹되고 격동된
이 행성 그 어디나 선군의 열풍인가
세계 수억만 진보적인민들
선군령장 우리러 만세의 환호를 터친다

장쾌하도다
노을이 불타는 내 조국의 하늘이여 땅이여
선군이자 사랑이고
사랑이자 선군임을
가슴속에 그대로 묻어만 둘수 없고
말과 글 다하여도 전할수 없어
한다면 한다는 위인의 그 기질로
백두강국 려명을 한껏 펼치며
하늘땅에 선군포성 승전고를 터쳤거니

인민사랑의 표적은 선군의 총대
선군은 강의한 신념과 의지로
불행을 기어이 행복으로 바뀌놓고
끝끝내 참다운 사랑의 대화원을 펼쳤어라

아 우리 수령님과 백두너장군
선군령장의 환하신 웃음속에
들려온다 이 땅우에 사랑의 노래소리
산원에서 태어나는 새 생명의 숨결소리
소년궁전아이들의 청고운 노래소리
정리된 새 땅의 파도같은 설레임
희한한 선군팔경 백경, 천경 펼쳐가는
창조와 건설의 대교향악이

기쁨이여라 행복이여라
장군님의 선군동지가 된
우리모두 가수가 된다고 한들
그 사랑 어찌 다 노래할수 있으랴
우리 인민모두가 석공이 되어
삼천리의 바위돌에 새긴다한들
그 사랑의 위업을 어찌 다 새기랴

수만년 사랑의 상징으로 불리웁은
이 땅의 어머니들 큰 절을 올리시라
다함없는 감사의 큰 절을 드리시라
어머니라 아버지라
당이라 조국이라
태양이라 하늘이라 칭송해마지않는
사랑의 최고화신 김정일장군님께 !

군민의 가슴속에 피가 끓는다
 우리 장군님 걸으시는 길이라면
 저 하늘끝까지라도 무지개다리 놓고
 보석주단 정히 펼쳐드리고싶은 마음
 우리 장군님안녕을 위함이라면
 수령결사옹위의 총폭탄이 되리라

아 선군만세의 환호성
 신념의 노래되어 넘쳐나는 이 시각
 원수복차림으로 영광의 단상에서
 만민의 축복을 받으셔야 할
 선군령장 그이는 어디에 계시는가

군민의 눈에 익은 야전복차림새로
 이 시각도 길 없는 선군길 헤치시며
 사랑안은 가슴에 더 큰 사랑 안겨주시고

은덕어린 땅에 더 뜨거운 은덕 새겨주시며
 창창한 앞길을 펼쳐주시거니
 사랑으로 시작된 사랑의 이야기
 언제면 그 언제면 끝맺을수 있으랴

한생을 다해도 못다하리라
 천만년 전해도 다할수 없으리라
 이 시각도 셈숫듯 끝없는 그 전설
 하고 또 하여도 다할수 없는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의 이야기여

오 백두산 3대장군의 불멸의 위업
 선군으로 창조한 사랑이야기
 선군태양 천만년 높이 모셔갈
 천만군민의 일심의 반석위에 수놓아진
 선군조선의 사랑이야기
 언제나 시작인듯 끝이 없으리라!

고요가 흐른다

주광일

고요하구나
 고지는 고지마다
 성새마냥 솟아있고
 맑게 개인 전선하늘가엔
 유유히 날아도는 수리개

허나 장엄도 하구나
 밀려오는 불구름을 막아선
 불패의 보루인양
 적진을 눈아래 굽어보며 치솟은
 영웅의 고지여

여기서 내 들었노라
 조국으로 피가 끓는
 병사들의 심장의 고동소리를
 빨찌산의 아들
김정일장군의 거룩한 발자욱소리를

여기서 우러르노라
 한눈에 적진을 가르던
 령장의 번쩍이는 그 시선을
 한낮에도
 천만대적의 오금이 저려드는
 백두산장군의 범접 못할 그 기상을

전방감시소에서 장군님을 만나뵈었다는
 애어린 병사는

평양으로 가는 길은 우리가 지킨다며
 구리빛얼굴을 번뜩이였다

혈기 넘친 젊은 참모장은
 원썬들이 덤벼들면
 모조리 함정굴에 처박겠다고
 무쇠주먹을 내흔들었다!

오 위대한 령장을 닮아
 승리자의 배짱이 넘치는 고지
 백두산총대로 철의 성벽을 이룬
 조국수호의 최전선

고요가 흐른다
 허나
 이 고요를 고요라고만 생각지 말라
 만약 원썬들이
 이 고요를 한번 깨치는 날엔
 적진을 털어버리는 화산으로 분출하리

고요가 흐른다
 불의를 치는 정의의 전선에
 장군님 자욱어린 최전연고지우에
 평화를 지켜선
 조국을 지켜선
 무적의 총대의 고요가 흐른다

혁명소설창작의 새 력사와 함께 성장한 세계적인 작가(2)

박춘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난 1970 년대에 우리의 문학예술은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섰습니다.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났으며 우리의 문학예술은 주체적문학예술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게 되었습니다.》

문학예술혁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던 1970 년대는 우리의 문학예술분야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이 마련된 뜻깊은 년대였을뿐만아니라 석운기에 게 있어서도 창작의 새로운 전성기였다.

그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장편소설로 옮기는 사업을 짧은 기간에 훌륭히 해낸데 이어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장편소설들인 《고난의 행군》과 《두만강지구》를 사상예술성이 높은 혁명적작품으로 완성하였다. 그후 련이어 그는 장편소설들인 《대지는 푸르다》와 《봄우뢰》를 내놓았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 하나하나의 소설을 다 보아주시였으며 여러 기회에 작가가 항일무장투쟁시기의 력사적사실들을 가지고 작품을 정책적으로 소설맛이 나게 감동적으로 쓰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일반주체의 소설을 써왔던 석운기가 과연 어떻게 되어 책임적인 형상과제를 해결해나가는 새로운 혁명소설창작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둘수 있게 된것인가.

이에 대하여 석운기는 주체 63(1974)년에 발표한 한 회상실기에서 이렇게 썼다.

《불의 발견으로 인간의 생활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난것과 같은 그러한 사변이 나의 창작생활에서 있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받은 그때부터였다.》

석운기가 불의 발견과 같은 사변에 비긴 그의 창작생활에서의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스승.

석운기가 처음으로 그 파사로운 손길을 몸가까이 받아안은것은 주체 59(1970)년 가을이었다.

그때 그는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영웅으로서 당원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준 간호원 안영애를 원형으로 하는 영화문학을 쓰면서 작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애를 먹고있었다.

작품전반에 비극적인 그늘이 진하게 비끼는가 하면 의견을 받고 수정작업을 하고보니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였다.

바로 이런 번민속에서 뜻밖에도 위대한 장군님

의 부르심을 받게 된 그는 흥분되는 마음을 견잡을수 없었다.

석운기는 이미 여러 기회에 많은 사람들로부러 그이께서 지니신 빛나는 예지와 비상한 령도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왔으며 무한한 흠모의 정을 마음속깊이 소중히 간직하고있었다. 그런데 단 한번만이라도 영광의 그 시각을 바라던 절절한 소망은 마침내 성취되게 된것이였다.

그때 그는 어찌나 흥분이 컸던지 자신이 어떻게 차비를 하고 당중앙위원회청사로 달려갔으며 해빛 밝은 검소한 집무실에 들어섰는지 자기로서도 알수 없었다.

그로부터 퍼그나 시간이 지나서였다.

당중앙위원회청사를 나서는 석운기는 자신이 작가의 삶, 인간의 삶이 닿을수 있는 영광의 절정에 오른듯 한 행복의 무아경에 잠겨있었다.

그에게는 처음 만나주시는 한 평범한 작가를 봄빛같은 미소로 반기시며 창작에서 제기된 문제가 있으면 함께 토론해보자고 하시던, 영화문학의 창작과 수정과정에 대하여 허물하심이 없이 다 들어주시고 고생을 했다고 창작가의 수고를 그리도 깊이 헤아려주시던 그 다정하신 음성이 그대로 귀전에 울려와 가슴을 적셔주는것이였다. 그리고 영화문학이 잘 안된 원인에 대하여 마치 뒤엎킨 삼거웃을 한칼에 베여던지듯 단번에 명철하게 밝혀주시고 실재한 인물을 원형으로 한 작품창작에서 지켜야 할 근본문제와 미학적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일깨워주실 때 그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느끼였던 경탄과 환희의 감정이 그대로 가슴에 출렁이고있었다.

하나하나의 의견에 대하여 접수되는가를 따듯이 물어주시고 작가가 접수된다니 마음이 놓인다고, 이번에는 백지에 쓰는 기분으로 이미 만들어놓은 틀에 구애되지 말고 한번 마음 놓고 대답하게 써보라고 고무해주시던 작가와 그 창작사업에 대한 무한한 존중의 세계...

석운기는 그 빛나는 예지와 고매한 덕망에 대하여 되새길수록 무상의 행복감에 눈곱이 후더워올랐다.

잊을수 없는 그날로부터 그는 예술영화 《한 간 호원에 대한 이야기》가 완성될 때까지 무려 세번이나 그와 같은 영광과 행복의 순간을 체험하게 되였다.

영화문학을 다 고치였던 그날에 현지도의 길에서 점심식사도 뒤로 미루신채 그가 읽어드리는 수정대본을 끝까지 들어주시였던 사실이며 예술영화가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평가를 받았을 때

그를 다시 몸가까이 불러주시어 뜨거운 은정을 부어주시면서 수령님께서 동무가 쓴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을 다 읽으시었다고, 앞으로 좋은 작품을 더 많이 써내라고 고무해주시던 사실, 작가는 그 모든 일들을 영원히 잊을수 없었다.

참으로 그것은 첫걸음마를 떼는 자식을 다심히 일으켜세워주고 이끌어주는 친부모의 살뜰하고 웅심깊은 손길이며 사랑이었다.

안기면 안길수록 더 깊이 흠모하고 따르게 되는 위대하고 자애로운 품!

그의 이러한 생활, 이러한 체험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석운기가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소설로 옮기는 사업에 참가하여 작품을 탈고했던 주체61(1972)년 여름 그는 그간의 수고를 깊이 헤아려주신 은정깊은 사랑에 의하여 외국여행의 길에 올랐다.

그 하루하루는 석운기에게서 인상 깊은 것이었으나 그런 가운데서도 한가지 걱정만은 가슴에서 떠나지 않았다.

방금 탈고해놓은 작품에 대한 걱정이었다. 사실 그때까지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소설로 옮기는 사업에서는 본보기가 없었다. 그런것만큼 탈고된 작품은 필자인 그에게 있어서도 너무도 부족점이 많아보였던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소설문학에서 원작이 가지고있는 완벽한 사상예술성을 어떻게 보장하는가 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기본문제였다.

떠나온 어머니조국과 그 품이 그리워질수록 그의 이러한 생각은 깊어졌다. 이러했던 석운기는 외국여행에서 돌아온 얼마후 당중앙위원회에서 찾는다는 기별을 받았다.

그는 한 일군의 따뜻한 마음을 받았다. 그 일군은 석운기의 두손을 뜨겁게 잡으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옮긴 장편소설의 초고를 보시고 부족점과 수정방도에 대하여 가르치심을 주신 사실을 알려주었다.

순간 석운기는 그 무엇이랴 이름할수 없는 뜨거운것이 목에 꼭 차올랐다.

외국여행의 길에서 작가가 보낸 그 하루하루에 우리 장군님께서 부피 두터운 장편소설의 초고를 보아주시고 수정대안까지 찾아주시며 짧은 시간의 휴식도 다 바치시었을 헤아릴길 없는 로고, 이에 대하여 생각하느라니 작가와 작품에 대한 웅심깊은 사랑이 더욱 뜨겁게 새겨져 석운기는 도저히 마음을 가라앉힐수 없었다.

이윽하여 일군이 그에게서 주신 가르치심을 석운기에게 전달하였다.

창작가의 환희는 헤여날길없이 생각되던 창작의 세계에서 마침내 그것을 훌륭히 완성할수 있는 출로를 찾았을 때에 느끼게 되는 환희이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자리에서 석운기가

체험한 환희가 바로 그것이였다.

석운기는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장편소설로 옮기면서 이미 예술영화와 혁명가극에서 감동을 받았던 화폭들을 그대로 재현하면 될것으로 생각하였었다.

그이께서는 바로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소설로 옮기는 사업에서 있을수 있는 이러한 편향에 대하여 일깨워주시면서 만일 소설의 특성을 옹계 살리지 못한다면 원작의 심오한 사상이 예술적으로 옹계 해명될수 없다고, 이런 의미에서 원작을 소설로 옮기는 사업은 창조적인 사업이며 작가들은 창작가로서의 기본자세와 립장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간곡히 일깨워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소설적특성에 맞게 더 전개할것은 전개하면서 뒤생활을 파야 한다고, 그렇게 해야 소설은 소설대로 읽을 맛이 있고 감동을 줄수 있을것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작가가 주관적욕망을 앞세워 생활과 밀착되지 못하게 추상적으로 그린 결함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장면을 실례로 드시며 지적해주시면서 생활과 밀착되지 않는 심리, 감정, 주정은 아무리 잘 그렸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고. 문학예술작품에서 추상성은 죽음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의 진수를 옹계 파악하고 창작사업에 구현해나가야 한다고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소설에서 생활을 진실하게 그릴데 대한 문제, 어머니의 형상을 깊이 파고들데 대한 문제, 정확하지 못한 표현과 인물들의 이름을 고칠데 대한 문제... 그 귀중한 말씀을 다 전달받고난 석운기는 눈앞이 환히 열리고 신심과 창작적열정으로 가슴이 불탔다.

문학예술 매 분야에 대하여 그리도 깊이 정통하시고 혁명적문학작품창작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과 미학적문제들을 그처럼 심오하고 명철하게 밝혀주시는 빛나는 예지와 령도의 손길... 그것은 비단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소설로 옮기는 사업과 그리고 어느 한 작가의 창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였다.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첫 장편소설 《1932년》으로부터 시작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형상한 하나하나의 작품들도 다 비범하고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완성되어 세상에 나온것이였다.

우리 작가들이 인류력사에 그 류례가 없는 위대한 수령님의 장구하고도 거창하고 격동에 넘친 혁명력사를 담을수 있는 소설형식은 과연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낮과 밤을 토론과 논쟁으로 이어가고있던 때에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그 위대성으로 보나 방대한 내용으로 보아 몇편의 장편소설로 형상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하며 총서형식으로 하는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하면 매 장편소설들이 자기의 독자적인 의의를

가지면서도 통일성을 가질수 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총서의 제목을 《불멸의 력사》로 제정하여 주신 명철하고 빛나는 예지, 총서의 장편소설들의 창작에서 작가들이 처음으로 수행하게 되는 책임적인 형상과제를 두고 모대기고있을 때 집필된 초고들을 보아주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최대의 정중성을 다하여 창작할데 대한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인민들속에 계시는 수령님을 형상하며 인간관계를 격식화하지 말고 인간성을 부각시킬데 대한 문제, 수령님의 혁명활동력사에서 중요한 력사적사실을 놓치지 말고 핵을 틀어쥐고 생활을 진지하게 반영할데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창작원칙들과 요구들을 환히 밝혀주시고 소설의 대목대목, 문장과 대사까지 손수 바로 잡아주신 비범하고 정력적인 지도...

석유키는 그 지도의 손길아래 날마다 몰라보게 성장하는 자신을 느끼며 우리 당의 사상리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기 위한 학습에 깊이 파고들

었다.

그의 서고에는 문장마다 붉은색연필로 밑줄이 그어진 경애하는 장군님의 문헌들이 소중히 보관되어있었다. 또 그의 사업일지들에는 매 작품의 창작과 관련하여 지도받은 내용들이 감동깊이 적혀져있었다.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를 통일적으로, 총체적으로 포괄하여 주체적문학예술건설의 과학적이며 완벽한 리론실천적해명을 주시고 혁명문학의 근본고리를 해결해나가는 초행길에서 작가들을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신 손길.

참으로 위대한 그 품에 안기였기에 석유키는 주체적문예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당의 작가로 자라날수 있었으며 짧은 기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높이 평가하시고 군대와 인민들이 사랑하는 혁명적인 소설들을 련이어 창작하여 우리 문단을 빛내일수 있었던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추지령의 코스모스

방금석

하얀꽃 분홍꽃
줄기마다 피었네
구슬같은 새벽이슬
꽃잎마다 구울며
전선길에 피어난 내 사랑 코스모스

이른새벽에도
해지는 저녁에도
꽃과 속삭이며 사는
나는 추지령 도로관리원

인적드문 령길
때아닌 밤중에도
병사들의 행군대오가 소리없이 흐르는
너무도 평범한 길이어도

오, 나의 일터
굽이쳐간 이 길은
평양과 최전방으로 잇닿은
우리 장군님과 가장 가까운 길

우리 장군님 병사들을 찾아
낮에도 가시고
밤에도 소문없이 넘으신
사연많은 이 령길

위대한 사색의 한순간에

내가 피운 이 꽃이
잠시나마 기쁨이 된다면
끝없는 로고로 이어지는 그 길에
잠시나마 피로를 푸시게 된다면
더 바랄것 없는 이 마음
코스모스 꽃잎마다 연연히 어렸거니

그래서 아니라
꿈을 꾸어도
우리 장군님 전선길 지나시다
문득 차창문을 여시고 말씀하실듯
-얼마나 아름답소
전선길마다에서 나를 반겨준
잊을수 없는 꽃이요

오, 장군님의 전선길
천리면 천리
만리면 만리를 따라설 우리 마음
령 넘어 고개 넘어
꽃길로 펼쳐진 내 사랑 코스모스

아 전선길에 피어난 코스모스
내 심장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꽃이어
장군님께 꽃주단 펼치며
한생을 여기서 살
나는 추지령의 도로관리원이다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작가들은 당이 인민앞에 새로운 요구와 과업을 제시할 때마다 당의 기대에 훌륭히 보답해왔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속도전을 벌릴데 대한 요구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새로운 속도창조운동의 선구자를 형상한 작품을 내놓았고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할데 대한 요구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우리 시대의 참된 영웅을 형상한 대작을 많이 창작해내었다. 3 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벌릴데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을 때에나 당의 군중로선을 철저히 구현할데 대한 요구가 나섰을 때에도 그에 훌륭한 대답을 주는 작품을 써냈다. 우리 작가들은 1990년대에도 2000년대에도 계속 당과 수령의 의도와 요구, 우리 인민의 지향에 대답하는 훌륭한 작품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나는 선군의 나이로 산다

리범수

나는 영광스러운 선군시대
김정일시대에 총을 잡았다
나의 이름은 선군병사
나는 선군의 나이로 산다

우리 장군님
선군의 자욱 새겨진
조국의 하늘, 땅, 바다가초소
눈비 내리는 준엄한 전선길우에
내 성장의 나날은 새겨졌노라

쪽잠도 미루시고
췌기밥을 드시며
우리 장군님 몰아가신 야전차를 따라
나의 《요람기》는 흘렀고

적진을 발밑에 굽어보시며
최전연고지우에 날리시던
우리 장군님의 야전복자락에 감싸여
나의 《유년기》는 흘렀노라

력사의 그 나날에
장군님의 선군사상을 피줄로 받아
내 뜨거운 심장은 고동치고
장군님의 선군신념을 의지로 새겨
나의 총검은 서리발 날리거니

덧없는 해와 달의 흐름으로
나의 선군나이는 계산되지 않는다

십년, 백년과 맞먹는
값높은 위훈의 날과 달로
나의 선군나이는 이어지노라

나의 선군나이는 젊다
허나 백여년의 침략사가 피로 얼룩진
날강도 미제의 온갖 도전을
총대로 가차없이 징벌하는
무적의 선군용사로 나는 산다

나의 선군나이 시대의 선군나이가 늘어갈수록
조국땅엔 번영의 전성기가 펼쳐지고
시대의 절정, 세기의 상상봉에
백두산강국의 준엄은 빛나리니

산과 들에 피는 꽃도
선군의 빛을 받아 향기 풍기고
한그루 나무도 선군으로 년륜을 새기고
한줄기 강물도 선군의 역사를 담아 흐르는
위대한 김정일선군시대여

세월은 흐르고 흘러도
값높은 선군나이를 지녀
천만군민은 영원한 젊음에 살고
시대가 안겨준 선군나이를 지녀
군모밑에 흰서리 내린다해도
내 영원히 장군님의 선군병사로
복무의 한생을 빛내여가리라

장군님과 동포청년

주체 85(1996)년 1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한
재일조선청년학생들을 위하여 연회를 마련해주시
고 그 자리에 참석하시였다.

그 뜻깊은 자리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 어떻게 하는가, 조국에 처음 온 동무들은 몇명이나 되는가 하는것을 일일이 알아보시다가 문득 누구에게라없이 여기에 효고현에서 온 동무가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모두가 영문을 몰라하는데 조선대학교 교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졸업반학생들속에 효고현에서 온 동무가 있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 학생의 가정에서는 지난해의 대지진때 어떤 피해를 입었는가고 재차 물으시였다.

그제야 비로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물으시는 뜻을 알게 된 동행한 일군들을 비롯한 참가자들 모두는 가슴이 뭉클해짐을 어쩔수 없었다.

1년전 그곳에서 일어난 지진때에 그 학생은 어머니를 잃었다. 하지만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자기는 결코 외롭지 않다고 하면서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면 조청전임일군이 될 군은 각오를 가지고 학습과 조직생활에 열중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자신의 불행과 슬픔을 애국의 한마음으로 이겨가는 그를 두고 기특하게 여기시며 그 학생은 훌륭한 조선청년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동행한 일군들과 재일조선청년학생들을 둘러보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속하여 총련조직에서는 이런 청년을 핵심으로 잘 키우는것이 좋겠다고, 당이 있고 조국이 있는 이상 그 청년은 결코 외롭지 않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윽고 그 학생을 몸가까이 부르시여 이름이며 나이, 가정형편과 피해정형을 하나하나 물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머니가 잘못된 사연을

가사

상세히 료해하시고는 저으기 안색을 흐리시며 안됐소, 참 안되었소라고 거듭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그 모습을 우러르는 동포학생의 눈가에서는 어느덧 뜨거운것이 고여올랐다. 봄날의 해빛처럼 온몸을 포근히 감싸주시는 아버지장군님의 그 인정, 그 사랑이 그의 가슴벽을 뜨겁게 울리었던것이다.

《아버지장군님, 고맙습니다.》

목메인 어조로 이렇게 말씀올린 그는 그만 소리내어 흐느껴 울었다. 지금껏 누구도 그 가정의 슬픔과 불행을 그토록 가슴아파하며 따뜻이 위로해준적은 없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흐느끼는 그의 어깨를 다정히 어루만져주시며 비록 어머니를 잃었지만 당이 있고 조국이 있는 이상 동무는 결코 외롭지 않다고 다시금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동포학생은 어깨를 들먹이며 더욱 세차게 흐느껴 울었다. 옆에 있던 일군들과 동포학생들도 모두 뜨거운 눈물을 머금었다.

돌이켜보면 간포대지진때에는 일본땅에서 우리 동포들이 수없이 불타죽고 죽창에 찔려 쓰러져도 조국이 없고 수령이 없으니 누구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았었다. 그러나 《한신대지진》 때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여 피해를 입은 첫날부터 동포들이 따뜻한 후원과 보호를 받는 판이한 현실이 펼쳐졌다.

하기에 어머니조국의 품,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이 하도 고마와 감동의 무아경에 이른 동포들의 울음바다가 펼쳐졌다. 끝없는 걱정과 흥분에 휩싸인 재일동포청년학생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르며 마음속으로 뜨겁게 외쳤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진정 우리 해외동포 모두의 영원한 삶의 은인이시고 태양이시며 조국 이시라고!

전선길에 전설도 많아

박세일

비맞으며 오신 초소 해가 비치고
눈맞으며 가신 들판 새싹이 텃네
계절의 조화를 길들이시는
장군님 전선길엔 전설도 많아

판문점을 찾으시면 흰안개전설
농장마을 지나시면 흰까치전설

자연의 조화를 길들이시는
장군님 전선길엔 전설도 많아

빨찌산전법에 능통하신분
백두산천기를 타고나신분
하늘의 조화를 길들이시는
장군님 전선길엔 전설도 많아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계승본, 8권)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김정숙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지들을 위해 한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생애는 동지애로부터 시작되었고 동지애를 기초로 하여 발전하였으며 그 과정에 공산주의적도덕의리가 최대한으로 발양된 비범한 혁명가로 되었습니다. 그가 일생동안 해놓은 그 모든것은 다 동지들을 위하고 인민을 위하고 혁명을 위한것이였지 자신을 위한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정숙의 관념속에는 자기라는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굶어도 좋고 얼어도 좋고 아파도 좋다, 그러나 동지들이 배고프지 않고 춥지 않고 아프지 않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다. 내가 죽는 대가로 동지들을 살릴수 있다면 나는 아무런 미련도 없이 웃으면서 죽음의 길을 택할것이다 하는것이 바로 김정숙의 인생관이였습니다.》

첫자욱

유영하

흰파도 뛰어올라 은구슬 뿌리는
원산부두의 긴 잔교
해풍에 옷자락 날리시며
조용히 서계시는 김정숙어머님

정겨운 시선으로
잔교의 발판을 더듬어보시며
개선의 첫 자욱
수령님의 발자취 안아보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시여라

조국진군의 그 자욱 받드는 길에
수령님의 안녕을 바라며
깎아드린 그 달비를 생각하시는가
품에 말려드린 그날의 수령님 옷
어머님마음속에 뜨거워선가

타오르는 우등불가에서
녀대원들과 나란히
노래를 부르시며
그러보던 해당화가지엔
해방의 기쁨 한껏 무르익었는데...

건국의 초행길 열어가시는
수령님의 거룩한 자욱 더듬어보시는듯
구름너머 저 멀리
평양하늘을 바라보시며
어머님 말씀하셔라

-조국으로 개선하신 수령님의 발자취
우리는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도 땅도 새겨들었네
억만파도도 새겨안았네
새 조국 건설에 일떠선 가슴가슴에
피가 되어 뿜어번지는 어머님말씀
삼천리강토가 다 새겨안았네

망국의 설음을 가셔준 첫 자욱
재생의 기쁨 안겨준 첫 자욱
후손만대 빛내실 어머님앞에
해빛넘친 바다가 설레었네
찬란한 미래가 마주 웃었네

새벽 (1)

김래옥

새벽
잠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 때면
문득 새벽안개 걷히는 저 큰 길가에
내 마음 멈춰서노라

아직은
사람들의 발길이 찍혀지지 않은
저 길우에
간밤 지나간 차바퀴 자욱
또렷이 새겨져있어

내 마음
그 자욱을 삼가 쓸어보노라
저 멀리 령길넘어 찍혀진
차바퀴 자욱

어이 알라
내가 잠들고 안해가 잠들고
온 마을이 잠든 간밤에
우리 장군님 조용히 지나가신줄

언제인가
한 구분대를 지나실 때엔
밤에 초소를 찾으면

군인들이 잠에서 깨여날수 있다고

또 언젠가는
마을사람들이 깨기 전에
그들에게 불편을 주지 말고
조용히 돌아보고 가자고 하신
아버이장군님

자신께서는
야전차의 쪽잠마저도 미루시며
초소에서 마을로
마을을 지나 다시 공장으로 가시면서도
언제 한번 깊은 잠에서
인민을 깨우신적 있으셨던가

아 그 사랑 안으시고
내가 사는 마을의 작은 골목길뿐이라
이 나라의 길이란 길은 다 걸으시고
령이란 령은 다 넘으시거니

그래서 아니라
저 큰길에 찍혀진 두줄기 차바퀴 자욱
그 자욱을 따라
이 땅의 새벽이 동터오는것 아니라

새벽 (2)

지나가신 그 자욱
소중히 새겨보고 쓸어보며
내 비자루를 들고 서있노라
그이 가신 저 멀리 전선길 바라보며...

이 길을 지나며
무슨 생각 하셨을까
깊은 잠에 든 우리 마을 지나시며
아마 나의 집 방마다 흐르는
행복의 숨결도 가늠해보셨으리

군대나간 아들의 전선소식을 받고
아들에게 보내는 시 한편을 써놓은채
즐거운 꿈을 달리는
내 마음도 헤아려보셨으리

헤아려보셨으리
우리 옆집 로병아바이며
웃집에 사는 인민반장이주머니
날뻗으면 발전소건설장에 나가자던
그 약속 그 시간도

새 발전소 덕으로
원산시민들이 전기덕을 본다는

그 소식 들으시고
또다시 큰 발전소건설을 발기하신
우리 장군님

이제 머지않아 집집마다에
공장마다에
더더욱 넘쳐날
그 행복의 노래소리
창조의 동음소리 새겨보셨으리

아 이 아침
잠을 깨는 사람들아
깊은 잠에 든 간밤에
우리 장군님
우리 마을 지나가셨단다
철령넘어 전선으로 가셨단다

자나깨나 장군님 생각
않으나 서나
장군님께 기쁨드릴 한마음으로
우리모두 새날의 일터로 간다
전선길의 이 새벽에서
우리의 아침이 밝는다

선군혁명위업수행의 억센 기동에 대한 심오한 성격형상

-장편소설 《기동》을 두고

최준희

문학작품은 성격을 창조함으로써 인간과 그의 생활을 반영하여 사람들을 교양하는데 이바지한다.

문학의 성격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주인공의 성격이며 주인공은 곧 문학작품의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람을 그리는 데서 무엇보다도 얼굴을 잘 그려야 그 인물의 개성적인 특징이 살아나는 것처럼 문학작품에서도 그 얼굴인 주인공부터 인상깊게, 개성이 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인물을 그리는 데서 힘을 넣어야 할 첫째가는 대상은 주인공이다.》

문학작품에서 주인공을 작품의 인물형상집단을 대표하게 된다. 따라서 그의 성격이 어떻게 그려지는가 하는데 따라 성격형상의 전반적 질이 좌우되게 된다. 구성을 아무리 인간성격의 발전과정에 따라 엮으려고 하여도 주인공선을 돈구지 않을 때에는 성격들이 전반적으로 사건선에 묻힐 수 있다.

장편소설 《기동》(최영조 작)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고 있는 우리 인민군군인들의 영웅적인 투쟁모습을 예술적으로 일반화한 의의있는 작품이다.

작품에서는 주인공 최주성의 성격형상을 통하여 오늘의 선군혁명시대에 우리 인민군군인들속에서 높이 발휘되고있는 혁명적군인정신, 영웅적인 투쟁모습을 생동한 예술적화폭을 통하여 실감있게 보여주고있다.

소설이 성공하게 된 비결을 우리는 주인공을 성격형상의 중심위치에 확고히 세우고 주인공선을 돈굴으로써 주제사상의 해명에서 기본적인 역할을 하게 한 형상기교에서 찾는다.

소설에서는 우선 주인공을 작품의 중심위치에 확고히 세우고 작품이 제기한 기본주제의 해명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도록 하고있다.

장편소설 《기동》에서는 오중첩 7련대칭호쟁취를 위한 관정준비가 힘차게 벌어지고있던 어느 한 인민군려단을 기본부대로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 려단은 기계화부대로서 오중첩 7련대칭호쟁취운동을 활발히 벌려 그 관정준비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었다.

그런데 려단장이 군단부사령관으로 소환되어가게 된다.

새로 부대에 배치되어온 려단장,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신임에 의하여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한 36살의 젊은 주인공 최주성이다. 군사칭호도 중좌밖에 안되며 나이도 려단지휘부 군관들중에서 제일 젊은 그가 이제 부대를 어떻게 이끌어갈것인가?

독자들은 처음부터 주인공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지게 된다.

최주성은 도착하자마자 려단을 돌아본다.

부대를 돌아보며 그는 려단지휘관들과 병사들이 지난 기간 부대의 꾸리기와 싸움준비완성을 위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무엇이 주인공에게 불만족과 불안을 주게 하였는가. 바로 여기서부터 작품의 기본문제와 함께 동시에 주인공의 성격창조에서 그의 역할문제가 제기된다.

새 세기, 선군시대의 군사지휘관의 관점에서 볼 때 최주성에게 불안을 준것은 려단에서 자체로 건설한 발전소와 그 아래 골짜기에 있는 군사시설물이었다.

물론 군사시설물은 산골짜기중턱의 자연지리적 조건을 리용하여 굴설한것으로서 그 위치가 적들의 항공타격을 피하는데서 유리한것만은 사실이였다.

그러나 그 웃쪽에 위치하고있는 발전소의 연체가 타격을 받거나 장마철에 물이 불어 터지는 경우에는 부대의 기동로들이 차단되게 될것이며 일단 유사시 적들과의 싸움에서 돌이킬수 없는 엄청난 후과를 미치게 될것이였다.

이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할수 있었으나 싸움준비를 명실공히 미제와의 최후결전을 위한 준비로 되어야 하였기에 그는 지체없이 결심한다. 청룡산으로 물길을 내서 현재 발전소의 물량을 가지고 발전능력을 3 배로 높이며 전투준비에 필요한 전력을 100% 안전하게 자체의 힘으로 보장하면서도 여러 리들에 전기를 보내줄수 있게 할것을 지휘관회의에서 제기한다. 이렇게 하는것은 전투준비완성에서 보나 실리적측면에서 보나 전적으로 옳은 결심이였다.

그러나 주인공의 이 결심으로 하여 심각한 인

간문제가 제기된다. 그것은 발전소의 물길공사를 새로 하는것은 부대정치위원 강호근과 려단참모장인 남유철을 비롯한 전 세대 지휘관들과 군인들의 피라는 노력의 열매를 부정해야 하는것이며 동시에 려단의 오중훈 7 려대칭호쟁취를 위한 관정도 뒤로 미루어야 했기때문이었다.

그러나 주인공 최주성은 려단정치위원 강호근과의 진지한 협의끝에 군단의 승인밑에 물길굴을 뚫기 위한 전투를 지체없이 벌린다.

그 과정에는 세멘트를 바다로 운반하다가 배가 가설 《부두》를 들이받아 가라앉는통에 수많은 량의 세멘트와 1척의 배를 수장시킴으로써 처벌을 받게 되는 난관도 제기된다. 그렇다고 하여 뒤로 물러설 최주성이 아니었다.

그는 물길굴뚫기와 기동훈련조직을 비롯하여 부대앞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언제나 싸움준비완성, 수령결사옹위의 견지에서 이악하게 풀어나가며 려단의 모든 군인들을 경애하는 장군님께 끝없이 충직한 오중훈 7 려대병사들로 준비시켜간다.

그리하여 최주성려단은 최고사령부훈련관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되며 꿈결에도 그리던 경애하는 장군님을 부대에 모시는 최상의 영광을 받아안게 된다.

이 눈부신 성과의 앞장에는 언제나 주인공 최주성려단장이 서있다.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성격의 핵을 옹게 잡고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최주성의 성격을 일관하면서 발전적견지에서 형상하고있다.

주인공 최주성의 성격에서 기본은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무한한 흠모심과 끝없는 충실성이다. 그는 젊은 나이에 한개 려단의 지휘를 맡겨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모든 부대지휘를 철두철미 수령결사옹위의 견지에서 사색하고 진행해나간다.

최고사령부훈련관정시 진궐을 극복해야 할 결정적인 시각에 림시물빼기물길을 막으면 비교적 안전하게 도하할수도 있었으나 그는 단호히 선험에게 말한다.

《난 다만... 싸움의 그날에는 결코 동무생각처럼 강물을 막고 극복할수 없다는걸 말하고싶었을 뿐이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결사관철하려는 사생결단의 각오와 의지를 지닌 최주성이였기에 상상을 초월하는 군사적기적을 안아올수 있었으며 최고사령부훈련관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던것이다.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성격형상에서 선군시대의 시대적요구에 맞게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그 어떤 현대전에도 대처할수 있는 높은 군사실무적자질과 부대지휘능력, 담대한 배

짙과 드눌지 않는 신념과 의지를 지닐 때 높이 발휘될수 있다는것을 력점을 찍어 강조하고있다.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발전소의 위치에 대한 문제, 4 대대에 갔을 때 훈련장의 책상에 그려진 지형략도를 두고 군사비밀부터 생각하는것이 라든가 원유가 공급되지 않아 4 대대 3 중대의 기동훈련을 일시 중단하자고 하는 참모장에게 《전투예비》- 군인들의 정신적힘을 발동시켜 포를 끌고가자고 하는 등 소설에는 그의 높은 군사실무적자질과 대담한 공격정신을 보여주는 세부들이 적지 않다.

작품에서는 주인공 최주성의 성격에서 시종 선군혁명시대 우리 군대의 지휘관들의 군사실무적자질과 품모에 관한 문제를 의의있게 해명함으로써 시대의 전형-인민군대지휘관의 전형을 창조하였다.

작품에서는 또한 주인공의 성격형상에서 그가 한생 총잡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성전에 설것을 결심하게 된 성격적바탕과 36 살의 젊은 나이에 려단장으로서 기적과 위훈을 떨칠수 있는 요인에 대하여서도 강조하여 밝히고있다.

최주성의 고향은 강선이며 그의 아버지는 한생을 강철기둥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온 로동계급이었다. 아버지는 최주성에게 쇠장대를 물려줄것을 념원하였었다. 주성도 그렇게 하려고 하였었다.

그러던 주인공이 어찌하여 총대를 한생토록 잡을 결심을 하였는가.

옛 분대장시절에 입당보증인이며 중대장인 박순보가 자기때문에 중상을 당하였을 때 총대가 무엇보다 강해야 강철기둥도 굳건히 세울수 있다는 진리를 피로 받아안았기때문이었다. 그렇기때문에 강선으로 가는 걸음을 바꾸어 군관학교로 가게 된것이였다.

소설에서는 아버지세대가 강철기둥으로 자기수령을 받들어온것처럼 아들세대가 총대기둥으로 자기 령도자를 결사옹위하고있는 선군혁명시대의 주도적흐름과 주인공의 성격적바탕을 깊이있게 그려냄으로써 작품의 사상미학적감화력을 높이고 오늘의 시대모습도 잘 보여주게 하였다.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젊은 나이에 려단지휘를 맡아 기적과 위훈을 떨칠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도 해명하고있다.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졸업생들의 명단을 보시면서 친히 한사람한사람 이름밑에 밑줄을 그어가시며 그들이 맡게 될 직무까지 밝혀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최고사령부관정에서 강한 《우》를 맞았을 때에는 훈련성파에 앞서 먼저 군인들부터 생각하시며 그들이 동상이라도 입지 않았을가 념려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이시기에 깊은 밤 친히 최주성려단으로 현지시찰의 길을 떠나신다.

단잠에 든 병사들을 위하여 눈덮인 추운 겨울날 차디찬 새벽길에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영상은 만사람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킨다.

부대에 들리시여서는 12월 24일까지 오중훈 7련대칭호를 쟁취하자고 한 부대당위원회의 결정을 귀중히 여기시여 려단의 오중훈 7련대칭호쟁취를 위한 결의실천사업정형 실태료해를 총정치국에서 하였으면 판정에서 합격한것으로 보고 그들에게 오중훈 7련대칭호를 수여하자고 친히 제기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르며 최주성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아뢰인다.

(장군님! 그 총대를 누가 키우셨습니까?!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과연 그 누가 총대를 조국을 떠맡들고 나가는 기둥으로 더 억세게 키우시었습니까?! 장군님!)

소설에서는 이처럼 작품의 절정부분에 부대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영상을 모심으로써 선군시대 인민군군인들속에서 높이 발휘되고있는 혁명적군인정신과 우리 인민군대가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자라나게 된 요인에 대하여 감동깊게 형상하였다.

작품에서 주인공은 인물관계와 사건의 중심위치에 있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여 성격이 원만히 창조되는것이 아니다. 주인공은 인물관계와 사건에서 주도적위치를 차지할뿐 아니라 개성이 뚜렷하게 형상될 때 성격이 인상깊게 창조되는것이다.

소설에서 주인공 최주성은 젊고 결패있는 군인다운 기질을 소유한 개성이 뚜렷한 인물로 형상되었다.

긴말을 좋아하지 않으며 사업에서 절도가 있고 결단성이 있는 걸으로는 엄하면서도 마음은 쇠물처럼 뜨거운 최주성의 성격은 선군시대 인민군지휘관의 전형의 모습이다.

4대대로 갔을 때 대대장의 집에서 내온 음식으로 점심식사를 차리려고 하자 경애하는 장군님의 전선길, 그 전선길의 췌기밥을 생각하며 병사들속에서 그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는 주인공, 3대대로 가는 길이 옛중대장 박순보의 아들 박성찬이 병사들에게 소대후방물자를 지우고 가는것을 보며 자기의 차에 병사들과 물자들을 실어보내고는 박성찬과 함께 걸어가는 최주성의 모습은 개성이 뚜렷한 인상깊은 세부라고 할수 있다.

소설에서는 병사들을 위해서는 그처럼 뜨거운 면서도 훈련에서는 한치의 예누리도 모르는 최주성의 성격을 선군시대 우리 인민군지휘관의 전형으로 개성화하고있다.

작품에서는 주인공의 성격을 형상함에 있어 주인공선을 돌굴수 있게끔 인물관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면서도 매 등장인물들의 형상의 묘를 뚜렷하게 하고있다.

소설의 이야기줄거리는 다른 작품들에 비해볼 때 굵고 결가지들이 별로 많지 않다. 어찌 보면

사건선이 단조롭지 않는가 하는 느낌을 주는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소설의 이야기줄거리는 주인공의 선을 따라 굵고 진하게 펼쳐져나가며 등장인물들도 주인공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얽혀져있다.

작품에서는 등장인물들을 주인공과 단순한 군사실무적관계로 인간관계를 맺게 한것이 아니라 사상적으로, 운명적으로 깊이있게 맞물려 놓고있다.

정치위원 강호근은 최주성이 옛 《가막봉중대》의 분대장시절의 정치지도원이며 박성찬은 옛 중대장 박순보의 아들이다. 그런가 하면 선향은 주인공이 대대장으로 있을 때부터 인연을 맺은 인민군설계기사이며 려단참모장 1대대장, 훈련참모 등은 그가 려단에 배치되어 알게 된 인물들이다.

작품에서는 이러한 인물관계를 발전적전지에서, 주인공선을 부각시키는 방향에서 조직함으로써 주인공선을 살리고 소설의 주제사상적과제해명에 이바지하게 하고있다.

이 소설에서 특징적인것은 매 등장인물들의 형상의 묘이 뚜렷한것이다.

무릇 문학작품들에서 등장인물들의 개성이 아무리 뚜렷하다 할지라도 형상적묘이 없다면 그런 인물형상은 아무런 의의도 없다.

이 소설에서는 매 등장인물들(단역으로 잠간 등장하는 인물들까지도)의 형상의 묘이 아주 명백하다. 려단정치위원 강호근은 주인공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군정배합실현에 대한 주제사상적과제를 안고있으며 참모장 남유철은 주인공과 대조되면서 선군시대 군사지휘관의 사상정신적품모에 대한 묘를 안고있다. 또한 박성찬, 유성실, 차승호 등도 주인공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인민군군인들의 대중적영웅주의, 상하간의 관계에 대한 형상과제를 맡고있다. 특히 박성찬과 차승호, 유성실의 형상은 매우 인상적이다.

작품에서는 한번 잠간 등장하고마는 인물들까지도 무게있는 형상과제를 안게 함으로써 작품이 그대로 선군시대를 생동하게 펼쳐보이게 하고있다.

경험은 소설작품창작에서 주인공의 선을 부각시키고 개성이 뚜렷하게 형상할 때 그만큼 사상에술적질이 높아진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편소설 《기둥》은 사상미학적감화력이 큰 작품이며 선군시대의 주도적흐름을 폭넓게 반영한 성과작의 하나라고 말할수 있다.

수령결사옹위의 총대기둥, 그 기둥속에 굳건히 서있는 주인공의 모습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켜주고있다.



최영조

한낮의 날씨는 찌는듯이 무덥다.

쇠를 굽는듯 한 풀메뚜기들의 울음소리가 이따금 귀따갑게 울려올뿐 길가의 풀잎들마저 시진하게 늘어져 그 어디서도 생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확확 달아오르는 열기만이 왕우구의 황막한 자연을 무겁게 뒤덮은듯싶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언덕길에서 곧추 내려다보이는 구인민혁명정부(그곳에는 구당도 함께 있었다.)가 자리잡은 ㄷ자형의 동기와집지붕우를 눈이 아프도록 바라보시었다.

언제나 희망과 열정으로 가슴불태워주며 세차게 휘날리군 하던 붉은 기발이 장대에 무겁게 드리워진채 이날따라 한점 펄럭임조차 없었던 것이다.

어쩐지 마음이 허전해지시었다.

지난봄 일제놈들의 대《토벌》을 쳐몰리친 소왕청유격근거지에서의 승전소식이 전해졌을 때 기세차게 펄럭이던 저 붉은 기발아래에서 만세를 부르며 덩실덩실 춤을 추던 그날의 그 환희와 감격이 못 견디게 그리워지시었다.

《에익, 더위도 지독하군.

정숙이도 거기에 그냥 서있지 말고 여기 그늘 밑으로 들어서지.》

구당비서 리호산이 언덕길옆의 커다란 밤나무 그늘밑에 털썩 앉으며 하는 말이였다.

그는 지금 계수동지하조직으로 내려가는 김정숙동지를 배태주러 따라나온 길이였다.

이 언덕은 왕우구유격구의 마지막경계선이였다.

《털어놓고말해서 난 정숙이가 가는 이번 걸음이 어쩐지 마음놓이질 않는구만. 이제라도 결심을 돌리는게 어떤가?》

그의 갈린듯 한 목소리에는 진정어린 불안이 짙게 어려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되

시였다.

오죽하면 이 무더위속에 여기까지 따라나왔겠는가.

《구당비서동지.》

《원, 그저 오빠라고 부르라는데...》

리호산의 말에 그이께서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시였다.

사실 김정숙동지에게 있어서 그는 친오빠와 다름이 없었다.

리호산은 김기준오빠와 오래동안 지하혁명조직에서 함께 생사를 같이해온 귀중한 전우였고 둘도 없는 벗이였다.

희생된 오빠의 시신을 물어준 사람도 다름아닌 그였다.

그후 유격구에 들어와 구당비서사업을 하면서 그는 상급당조직에 제기하여 부암유격구에 있던 김정숙동지를 이곳으로 데려왔다.

거기에는 아등단지도자로 소문난 그이의 높은 사업능력에 대한 욕심과 함께 전우의 누이동생을 몸가까이에서 돌봐주고싶은 리호산의 웅심깊은 마음이 깔려있었다. 그러한 그였기에 그저 단순한 적구공작임무라고만 볼수 없는 김정숙동지의 이번 걸음을 두고 못내 마음놓을수 없어하는것이였다. 그 사연인즉 이러하였다.

어제 저녁 왕우구유격구에서는 현당조직책의 지도밑에 구인민혁명정부와 구당, 구공청일군들의 회의가 진행되였다. 반《민생단》투쟁을 한층 심화시킬데 대한 현당의 지시를 전달하고난 조직책은 좌중을 빙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다.

《헌데 여기선 잡아놓았던 <민생단>까지 도망쳐 버렸다면서? 그게 사실이요? 구당비서동무.》

《저... 그렇긴 한데 그를 <민생단>으로 보기에 는...》

리호산이 주저하며 조심스레 자기의 견해를 털어놓으려했다.

그러나 현당조직책은 그의 말을 더 듣지 않고

자기 말을 계속했다.

《가만, 이곳에서의 <숙반>사업은 부회장이 책임지고 있지?! 부회장동무, 그래 동무 생각은 어떨소. 그가 <민생단>이라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가?…》

얼굴이 갸웃한 부회장(그는 회장대리사업을 하고 있었다.)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근거가 있습니다. 장태섭은(바로 그 도망친자입니다.) 노상 반<민생단>투쟁을 극좌적이라고 결코들면서 우리 <숙반>사업을 뒤에서 시비질해 왔습니다.》

《그거야 근거라고 말할수 없지. 까놓고말해서 반<민생단>투쟁이 극좌적으로 진행되는데 대해 우려를 품고있는 사람들은 많소.》

현당조직책은 사람들을 휘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거 일전에 현에서 조직한 공청일군강습에 참가했던 동무가 누구더라?…》

《구공청위원 김정숙동무입니다.》

구당비서가 얼른 귀뜸해주었다.

김정숙동지께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서시었다.

《웁소, 저 동무가 웁소. 그때 동무는 우리 현당에 장태섭이 문젠 바로잡아달라고 정식으로 제기했었지?》

《그렇습니다. 전 반<민생단>투쟁이 마땅히…》

《됐소. 정숙동무는 자리에 앉소.》

현당조직책은 머리를 끄덕이며 언짢은 눈길로 다시 부회장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 얼굴이 벌개진 부회장이 황급히 입을 열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장태섭은 적구에 내려갔다가 돌아오게 된 날자보다 사흘이나 더 늦게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좀 알아본데 의하면 그자는 숙청대상자명단에 들어있는 촌장네 집에 었드려있었다고 합니다. 본인은 뭐 촌장을 돌려세우려 그랬다고 돌려쳤지만…》

《그렇다?… 물론 그것도 의심쩍은 행동인게 분명하오. 하지만 그보다 더 명백한 과학적근거는 뭔가?! 그건 장태섭이가 유격구에서 도망쳤다는 그 사실이요. 자기 정체가 드러나게 되니까 들구 뻬었던 말이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현당조직책은 자기의 말에 제격 장단을 쳐주는 부회장에게 얼핏 불쾌한 시선을 던지고나서 옆에 앉은 리호산을 돌아보았다.

《헌데 내가 이해되지 않는것은 구당이나 구공청이 어째서 아직까지 유격구사람들을 적통치지역인 <백색구역>에 자꾸 드나들게 하고있는가 하는거요. <백색구역>이야말로 <민생단>의 서식지란 말이요, 교활한 왜놈들은 바로 이 <백색구역>을 통해서 우리 <적색구역>까지 <민생단>화하려고 음모로양모로 책동하고있단 말이요.》

그의 어조는 아직 느슨한듯 하였으나 거기에서 분명 사람들을 긴장시키게 하는 차거운 서리가 느껴졌다.

《저… 유격구주변일대를 혁명조직화하고 그곳을 반유격구로 만들데 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왕채산회의방침을 관철하자면 어차피…》

《참,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구당비서야 문제를 변증법적으로 봐야지.》

현당조직책은 답답하다는듯 리호산을 바라보며 머리를 가로저었다.

《물론 혁명의 대의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전술적으로 그러한 슬로간(로선)을 제기할수는 있지. 그러나 혁명정세는 급변하고있단 말이요!》

그는 지금껏 의자등받이에 편안히 기대고있던 상반신을 반쯤 일으키며 정색한 표정을 지었다.

《동무들도 소왕청유격구근거지에 대한 일제의 대<토벌>소식을 알고있겠지?! 그놈들이 비록 그곳에서는 참패를 당했지만 이제 다른 유격구들에도 다시 달려들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소. 이러한 목전정세하에서 우린 유격구안의 <민생단>을 하루빨리 숙청하구 혁명대오의 순결성을 이룩해야 하는거요. 그래야 일제의 <토벌>공세와도 맞설수 있단 말이요!》

열이 오른 현당조직책은 자기의 리론에 스스로 심취되어서인지 나중에는 의자를 밀어제끼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서술에 바닥을 긁는 아츠러운 소리가 가득이나 긴장해진 사람들의 신경을 움츠러들게 했다.

《그런데 이곳 실정은 어떠한가? 조성된 주객관적정세를 바로보지 못하고 반유격구요 뭐요 하면서 부차적인 사업에 매여달리고있거든.》

그랬기때문에 장태섭이와 같은자들이 나오게 된게 아닌가. 설사 <백색구역>에 반유격구를 꾸려놓은들 그 <량면파>군중을 도대체 어떻게 믿는단 말이요. 동무들은 이 엄연한 현실을 제때에 깨달아야 하는거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저도 모르게 입술을 옥개무시였다. 유격구에 몰아치고있는 반《민생단》투쟁의 사나운 회오리!…

그 차갑고 사나운 바람은 지금 또 그 무엇을 휘말아올리려고 하는가.

단순히 몇몇사람들의 운명만이 아니라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반유격구창설로선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밀어버리려고 하지 않는가!…

아무리 혁명정세의 변화를 운운하며 그럴듯한 리론을 전개해도 결국은 장군님의 왕채산회의방침을 반대하고있는것이 아닌가!…

어쩐지 가슴이 후두둑 떨리시였다.

《…바로 그래서 오늘회의를 현당에서도 중시하고있고 또 내 그래서 이렇게 직접 회의에 참가한 거요.》

현당조직책은 그쯤하면 자기의 말이 사람들에게 충분한 효과를 주었으리라고 생각했던지 다시

금 의자를 당겨 자리에 앉았다.

《그래 구당비서동무, 이젠 내 말이 이해되오?》
《...》

리호산의 거뒀한 얼굴은 돌미륵처럼 굳어져 있었다. 무거운 침묵, 아니 숨가쁜 침묵만이 흘렀다. 더는 이 침묵을 지켜보고만 있을수 없으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주빛저고리고름을 줌안에 꼭 움켜쥐며 자리에서 일어서시었다.

《전... 동지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유격구사람들은 <민생단>이여서 믿을수 없고 적통치구역사람들은 <량면파>군중이여서 믿을수 없다면 도대체 누굴 믿고 왜놈들과 싸우겠습니까?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일제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조직에 묶어세워 이 일대를 모두 유격구, 반유격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었습니다.

난 동지가 오히려 장군님의 사상과 로선을 모르고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당조직책의 아연해진, 아니 당황해진 그리고 사나와진 눈빛이 화살처럼 날아와 박혔다.

폭풍전야! ...

드디어 《폭풍》이 몰아쳤다.

그러나 그 《폭풍》은 뜻밖에도 마당에 들이닥친 요란한 말투레질소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뭐요?》

방문을 벌컥 열고 다급히 들어선 청년에게 현당조직책이 버럭 소리쳤다. 금시 미역이라도 감고 나온 사람처럼 얼굴에 땀방울이 줄줄 흐르는 그 청년은 바지피춤에서 종이말이를 꺼내었다.

《계수동지하조직책임자가 보내온 긴급통신입니다.》

현당조직책은 나꾸어채듯 종이쪽지를 받아쥐었다.

탕!- 그는 책상을 내리쳤다.

《내 이렇게 될줄 알았단니까! 보란 말이요.

계수동에서 유격구원호물자를 가지고 떠나던 세명의 조직성원들이 붙잡혔다는거요. 그런데 그 밀고자가 누군가? 그가 바로 장태섭이라는거요!》
의기양양한 그 목소리에 회의장안은 금시 벌들지를 쭈서놓은듯이 술렁거렸다.

김정숙동지께서도 소스라치듯 놀라시었다.

조직성원들이 체포되다니? 더구나 그들을 밀고한것이 다름아닌 장태섭이라니?...

아니, 아니 그럴수 없어! 절대로 그럴수가...

《사태는 바로 이렇소. 반유격구창설보다 반<민생단>투쟁이 더 현실적이고 더 절박한 혁명의 요구라는것이 론의할 여지없이 명백해졌단 말이요. 부회장! 이 엄연한 현실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자는 다 <민생단>으로 봐도 무방하오!》

현당조직책의 어조는 단호했다. 눈빛도 단호했다. 그는 랭기를 풍기며 회의장을 나섰다.

문턱을 넘어서려던 그의 발이 문득 멈춰섰다.

그리고는 돌아섰다.

《공청위원동무, 난 아직 동물 <민생단>이라고 단정하지는 않겠소, 현당앞에 자신을 증명할수 있는 기회를 주겠단 말이요. 혁명의 배신자 장태섭일 잡아오던가 아니면 처단해버리던가. 그렇게 되면 우린 동무가 혁명에 대한 리해부족으로부터 본의아니게 그자에게 속히웠다고 볼수 있는 과학적근거를 가지게 될거란 말이요.》

현당조직책은 짐짓 아량있는 미소를 지어보이고나서 책 돌아서나갔다.

회의는 이렇게 끝났었다....

어제 저녁 현당조직책이 남긴 그 마지막말을 생각할수록 리호산은 지금도 등골이 쭈늘해왔다.

그것은 분명 회의에서 받은 비판에 대한 로골적인 복수였다. 저들의 종파적, 배타적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로골적인 위협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뽑아든 그 《숙반》의 칼날에 벌써 적지 않은 견실한 혁명가들이 목숨을 잃지 않았는가.

《정숙이! 현실은 생각보다 더 엄혹해.

현당에서는 <백색구역>의 조직선파도 련계를 차단하라고 하는판에 정숙이가 계수동지하조직을 복구하러 간 사실까지 그들이 알게 되면...》

리호산은 더 말끝을 잊지 못하였다. 어쩐지 김정숙동지앞에 그런 나약한 말을 하기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비록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김일성장군님의 혁명사상과 투쟁로선을 관철하는 길에서는 그 누구의 눈치나 위협앞에도 굴하지 않으시는 그이의 대바르고 강직한 성미를 너무도 잘 알고있는 리호산인것이다.

《구당비서동지, 그렇다고 동지들이 적들에게 붙잡혔는데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있겠나요.

그곳 지하조직이 다 파괴되면 어떻게 계수동을 반유격구로 꾸리라고 하신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관철할수 있겠나 말입니다.》

《...》

《더구나 이번 사건에 장태섭이가 끼여있다는데 제가 직접 만나보기 전에는 도대체 믿을수가 없습니다. 그 동문 절대로...》

리호산이 밤나무그늘밑에서 움쭉 일어섰다. 울대뼈가 꿈틀했다.

《내 정숙이가 그렇게 생각할줄 알았단니까. 그래서 더 정숙이의 이번 걸음을 마음놓을수 없는 거야. 에익, 더러운 놈!...》

그는 돌덩이같은 주먹으로 밤나무등허리를 힘껏 쳤다. 분기로 하여 그의 얼굴은 검붉어보였다.

《정숙이! 어떤 곤경에 빠뜨려놓은줄도 모르고...》

《호산오빠!...》

낮으나 절절한, 그러면서도 강잉한 목소리가 그의 말을 끊었다. 안타까움과 야속함, 기대와 격려의 눈빛이 그를 당혹케 하였다.

아 그 눈빛은 신통히 잊을수 없는 동지- 김기

준의 눈빛을 련상시켰다.

리호산은 그 눈빛을 뿔뿔이 마주볼수 없는 자신이 한스러웠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들이닥친 화난은 어찌하면 중단 말인가.

그는 애써 눈길을 돌렸다.

《어쨌든 그곳에 가면 지하조직책임자와 잘 의논하라구. 그리고 이 편질... 그에게 전하라구.》

리호산은 그 마지막말을 몹시 힘겹게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저 지나가는 범상한 말처럼 하려고 애썼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의 착잡한 심정이 이해되어서 그저 묵묵히 편지를 받으시였다.

《갔다고겠습니다.》

그이의 인사말에 리호산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리고는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더 위나 수그러진 다음에 떠났으면 좋았을걸...》

×

사방대의 맑은 물이 풀을 메우며 흘러내리는 계수동은 인가가 30 여호 남짓한 그리 크지 않은 마을이다. 산마루에 올라서면 한쪽 기슭에 잇닿은 곳은 연길현이요 다른쪽 기슭과 잇닿은 곳은 왕청현이라 한눈에 두 지경을 사방 다 볼수 있는 곳이라 해서 사방대라고 불리우는 산밑에 자리잡은 이 마을은 비록 자그마한 마을이지만 왜놈들이 《자위단》까지 조직해놓고 다스리는 중요말단 통치지역이였다. 이곳의 지대적중요성을 간파하기는 유격투쟁을 하는 혁명가들도 마찬가지여서 그들은 이미전부터 이 마을에 지하혁명조직을 꾸려놓고 두 현의 련계를 보장하고 적《토벌》무력의 기동상태 등을 알아내려 하였다.

그러나 일부 좌경분자들의 적통치구역혁명조직들에 대한 로골적인 불신과 무장한 적《자위단》놈들의 탄압책동으로 하여 계수동지하혁명조직은 자기 활동을 원만히 벌려나가지 못하고있었으며 더우기 이번에 벌어진 조직성원들의 체포로 하여 거의나 파괴되다싶이 되고말았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곳 지하혁명조직책임자 박춘남을 만나신 첫 순간에 벌써 그것을 직감하시였다. 신심을 잃은 그의 눈빛에서, 침울한 그의 표정에서 이곳의 형편을 읽고도 남음이 있었던것이다.

《그러니 체포된 사람들은 아직 <자위단>놈들에게 붙잡혀있다는거지요?!》

《그렇소. 아직까지는 왕청현쪽으로 물건을 바 꾸러가겠노라고 그냥 뻔대고있지만...》

박춘남은 노전바닥이 꺼지도록 한숨을 내쉬었다. 그 서술에 등잔불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적들이 그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있는지. 또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는 전혀 모르고있겠군요?》

《글쎄 그걸 어떻게 알겠소. <자위단>놈들은 그들이 가족들과조차 만나지 못하게 하고있는데...》

그의 말을 들을수록 김정숙동지께서는 더없이 마음이 무거워지시였다.

조직이 아직 살아있기는 하지만 갑속의 골병이처럼 움츠리고있어 군중속에 뿌리박지 못하고있는 형편에서 어떻게 적들의 내부비밀까지 알수 있겠는가.

계수동을 일찌기 장군님의 가르치심대로 반유격구로 꾸리도록 이곳 혁명조직을 도와주고 이끌어주었다라면 애초에 그런 일은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며 또 지금처럼 이렇게 소경막대기질하듯 하는 막막한 실태는 아니었을것이다. ...

김정숙동지께서는 자꾸만 갈마드는 이런 생각을 애써 털어버리며 말머리를 돌리시였다.

《저... 책임자동지.》

어쩐지 그 말을 입에 올리기가 두려우시였다.

도저히 믿고싶지 않으셨지만 엄혹한 현실앞에서 무작정 부정할수도 없는 그 일...

《장태섭이가 조직성원들을... 밀고... 했다는게 사실입니까?》

《사실이요. 우리 동무들이 원호물자를 가지고 떠날 때 뒤를 밟는자가 있었는데 그로부터 불파시오리도 못가서 <자위단>놈들이 따라왔거던.

그런데 그뒤를 밟던 놈이 다름아닌 장태섭이라는거요.》

《그걸 확인한 사람은 누구니까?》

《원호물자를 가지고 떠났던 그 동무들자신이요. 이건 놈들에게 붙잡혀 끌려올 때 마을사람들이 에워싸는 혼잡속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알려진 그들의 련락이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지그시 두눈을 감으시였다.

박춘남의 그 말이 뽕뽕 고막을 울리며 어지럼증을 일으켰던것이다.

《설마 장태섭이가 그런자일줄은... 유격구에서 공청생활까지 하던 놈이... 그가 이곳에 왔을 때 나도 유격구형편을 들은바 있어 오히려 리해해주려 했더니... 그때 벌써 단호하게 제껴버리지 못하게 한스럽소.》

박춘남은 울기가 뻔쳐올라 두주먹을 으스러지게 틀어쥐였다.

그러다가 김정숙동지의 창백해보이는 얼굴빛을 보고는 자기 감정을 털어버리며 손을 내저었다.

《정숙동무, 너무 속을 썩이지 마오.

구당비서동지가 편지에 유격구형편을 자세히 알려왔더구만. 동무가 장태섭이때문에 어떤 벼랑 끝에 서게 되였는가도.》

박춘남은 그이의 무거운 심증을 체나름대로 넘겨짚으며 말을 이었다.

《구당비서동지의 걱정이 여간 아니더군. 하기가 왜 그렇지 않겠소?! 그야 동무의 오빠인 김기준동지와 오래동안 지하공작을 함께 해온 전우가

아니요. 희생된 동지의 누이동생이 자칫하면 <민생단>으로 몰리우게 되었는데 그가 오죽이나 불안하겠소?!》

김정숙동지께서는 유격구를 떠나올 때 구당비서가 계수동지하책임자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던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였는가가 짐작되시었다. 그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되었고 또 고맙게 여겨지시었다. 하지만...

안타까우시었다. 과연 나 하나의 신상을 걱정하고 보호해주는것이 오빠와의 동지적의리를 지키는것으로 되겠는가.

오직 **김일성**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그분의 가르치심대로만 싸워나갈 때 왜놈들을 몰아내고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을수 있다던 오빠의 그 마지막 당부를 나에게 전해준 사람이 다름아닌 그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젠장, 차라리 잘됐소. <백색구역>에서 의심을 받으며 일하느니 이번에 나두 아예 유격구로 들어가고말겠소.》

박춘남의 열기띤 목소리에 김정숙동지께서는 저으기 놀라시었다.

지하혁명조직책임자인 그가 이렇게까지 나오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하셨던것이다.

《아니 그건?... 그럼 여기 조직은?...》

《가놓고말해서 이젠 조직이랄것도 못되오. 세 사람은 붙잡혔지, 나머지사람들이란게 나까지 네명인데 이번일루 다들 생각이 달라지고말았소.

가뜩이나 <량면파>라는 <모자>를 쓰고 의기소침해있던판에...》

그는 흥분된 마음을 좀 누착히려는듯 담배쌈지를 꺼내더니 두툼게 일초를 말기 시작했다.

담배말이종이가 자꾸만 터져나갔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가 네번째만에 새 종이로 담배를 말아 불을 붙여무는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었다. 오죽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면 저러라 하는 생각이 드시었다.

《현당사람들의 지지도 그렇다지.

또 편지내용을 보면 구당비서자신도 지금 형편에서 그렇게 하였으면 하는 눈치던데 괜히 옆사람들을 막다른 골목에 빠뜨릴게 있소?

난 이미 이렇게 될수밖에 없다는걸 생각했소.

그래서 우리 동무들과도 의논하고 결심을 해둔거요.》

《그러니 책임자동진 조직성원들을 다 데리고 유격구로 들어가겠다는거군요.》

《달리야 할수 없지 않소. 래일 밤 <자위단>을 습격해서 붙잡힌 동무들까지 아예 다 빼내가지고 가겠소.》

김정숙동지의 눈에서 섬광과도 같은 강렬한 빛이 번쩍 뿜어나왔다.

그이께서는 단호히 머리를 가로저으시었다.

《그건, 그건 안됩니다. 책임자동지랑 어떻게 애써 꾸러놓은 조직인데 그걸 그렇게 하루밤사이에

다 깨버리고만단 말입니까?

그래서 좋아할거야 왜놈들밖에 더 있어요?!》

박춘남이 껍- 하는 소리를 내었다.

얼마후야 숨길을 막았던 담배연기가 맹렬한 기침과 함께 그의 코와 입으로 꾸역꾸역 밀려나왔다.

《더우기 여기야 지대적으로도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 소왕청과의 련계를 보장하는 중요한 곳이 아닙니까. 이곳에 우리의 혁명조직이 없다는건 그만큼 우리가 장군님의 가르치심과 멀어진다는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박춘남의 눈길에 허둥거렸다. 처음에는 등잔불에로 향하는가싶더니 다음에는 띄창쪽으로 옮겨졌고 그마저 이내 눈길을 떨구어버리고말았다.

그리고는 피로운 어조로 띠엎띠엎 말을 이었다.

《정숙동무의... 그 말뜻을... 내 왜 모르겠소. 하지만... 지금처럼 여름더위가 지독할 땐... 풀잎마저 시들어버리고마는거요. 그래서 아마 이럴땐 다들... 그들을 찾아가는것이겠지...》

《...》

김정숙동지께서는 그의 피로움이 가슴아프게 이해되시었다. 그래서는 안된다는걸 잘 알면서도 그러지 않으면 안되는 그의 심정...

과연 《그러지 않으면 안되는》 그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자기 한몸의 보존때문인가?

박춘남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속단할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자신께서는 그를 잘 아신다.

오빠에게서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다고 왕복 팔십여리를 찾아오군 하던 열정적이고 호협스러운 박춘남, 마음씨 결국하고 의리심 깊은 그를 오빠와 리호산도 그 시절에 얼마나 칭찬하군 하였던가.

그는 결코 자기 한몸에 닿는 《더위》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바로 이 김정숙이나 구당비서와 같은 사람들을 넘려해서 그럴것이다. 자기가 우리를 위한 《그늘》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서였을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 《그늘》속에 들어가 《더위》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시들어버릴것은 정녕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은 다름아닌 혁명조직이다.

과연 생각만 해도 가슴저리는 이 준엄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물려서야 한단 말인가?

아니, 아니야. 그럴수 없어. 설사 모든 사람들이 다 물려선다 해도 나만은, 이 김정숙이만은 절대로 물려설수 없어.

김일성장군님의 혁명사상과 로선을 체일생명으로 간직하고 싸우려는 나의 이 신념을 어찌 한목숨을 구하려고 쉬이 버린단 말인가!

아, 오빠, 이 동생을 떠밀어주세요.

어머니를 잃고 오빠의 품에 안겨 우는 불쌍한

어린 조카를 두고 선뜻 발걸음을 못 떼는 나를 꾸짖으며 혁명의 길로 떠밀어주던 그날처럼... 그날처럼...

문밖에서 다급한 인기척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낮으나 규칙성있게 문을 두드렸다. 약속된 신호인지 박춘남이 얼른 일어나 나갔다.

잠시 동안이 흘러 그가 다시 들어섰다. 그의 뒤로 체격이 역대우같은 한 청년이 따라 들어왔다.

《정숙동무, 동문 이밤중으로 유격구에 들어가야겠소. 네가 이 최동무를 붙여줄테니...》

《돌아가다니요?》

김정숙동지께서는 그의 뜻밖의 말에 저으기의 아한 목소리로 이렇게 되물으시었다.

박춘남은 이상야릇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최동무의 어깨를 툭 치며 말을 이었다.

《이 동무들이 장태섭일 붙잡아왔소. 그자가 제지는 죄가 두려운지 저 사방대의 깊은 초막에 숨어있더라는거요.》

《예?》

너무도 갑작스레 돌변하는 정황앞에서 그이께서는 다시한번 놀라시었다.

장태섭의 체포?!... 어쩌면 그런 일을 한마디의 토론도 없이?...

《우리가 여기서 그자를 처리할수도 있겠지만 동무가 유격구로 끌고가는것이 더 좋겠소.

그자때문에 정숙동무랑 구당비서동지랑 애매한 사람들이 위험한 험태기를 뒤집어쓸수야 없지 않소?! 구당비서나 내나 동무의 심정을 모르는바는 아니지만 지금은 우선 이 일부터 처리해놓는것이 상책이요.》

그의 얼굴에는 자기의 결심을 따라줄것을 바라는 간절한 빛이 짙게 어려있었다.

그것은 귀중한 혁명동지의 신상에 붙어에는 뜨거운 열풍을, 아니 자칫하면 상상할수 없는 무서운 후과를 일으킬 지독한 열풍을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주려는 그의 진실하고도 깊은 의의심이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어쩔수없이 망설여지는 심중을 다잡기 어려우시었다. 그의 말이 옳을수도 있다. 지금 형편에서 흑백을 명백히 가르는것은 사활적인것이다. 이들의 말처럼 장태섭이가 정말로 배신자라면 그를 처단하는것은 혁명을 위해서도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유익할것이다.

하지만... 그런다고 계수동혁명조직이 다시 살아날수는 없지 않는가. 반유격구로 꾸러질수는 없지 않는가. 장태섭이 하나를 처리하는것으로써 사실상 이곳에서의 지하활동은 좌절되고마는것이 아닌가

아니, 그것은 김일성장군님의 가르치심과 어긋나게 반유격구창설을 반대해나서는 일부 사람들

의 그릇된 요구에 추종하는것이나 다름이 없다.

여기서 리득을 보는것은 왜놈들뿐이고 좋아할것은 좌경적인 그 야심가들뿐이다...

김정숙동지의 사색은 점차 뚜렷한 매듭들을 지으며 끝없이 이어졌다.

《정숙동무, 여기 일때문에 그러는것 같은데 너무 마음 쓰지 마오. 아까는 내 결집에 그런 소릴 했지만 나도 자기가 해야 할바를 영 모르는 사람은 아니요. 그러니 여기 뒤수습은 걱정말고 오늘 밤중으로 유격구에 돌아가오. 부탁이요!》

박춘남의 얼굴에는 진정이 어려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의 얼굴에서 눈길을 돌리며 나직이, 그러나 단호히 말씀하시었다.

《그를, 장태섭을 만나게 해주세요!》

유격구시절의 장태섭, 그는 진실하고 정의감이 강한 공청원이었다.

왜놈들의 《토벌》이 진행될 때마다 유격구를 사수하기 위한 싸움들에서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우곤 하였으며 위험한 적구 공작임무도 언제나 훌륭하게 수행해내곤 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 장태섭이와 함께 생활한 기간은 두달 남짓하였으나 그의 남다른 혁명적열의와 인간적성실성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한 나날이었다.

최근시기 《숙반》사업을 책임진 부회장과와 충돌이 찾아지면서 그는 그들의 눈밖에 나게 되었으며 끝내는 《민생단》감투까지 쓰게 되었다.

구당과 구공청에서 그를 보증해나섰으나 《숙반》사람들은 장태섭을 창고에 가두어넣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현공청과 현당에 정식으로 장태섭의 문제를 제기하셨으나 현당사람들은 그저 알아보자고 했을뿐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

가증되는 자백의 강요속에서 억울한 죽음을 예감한 장태섭은 나흘째 되는 날 밤 창고의 토피벽을 허버내고 탈출하고말았다.

창고벽면에는 그가 손가락을 깨물어 피로 쓴것이 분명한 《장태섭은 소왕청으로 간다.》는 글발이 희미하게 새겨져있었다.

그랬던 그를, 끝까지 믿어의심치 않았던 장태섭이를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될줄이야 어떻게 알았으랴!

그것도 다름아닌 밀고자라는 락인이 찍힌, 온몸을 결박당하여 외판 집 허청찬에 갇혀있는 그를 보게 될줄은 꿈에도 상상해보지 못했었다.

장태섭이도 불그스레한 등잔불빛에 김정숙동지를 알아보는 순간 소스라치듯 놀랐다. 아연한 눈빛을 감추지 못하였다.

《뜻밖이요. 어쩐지 내 운명이 이렇게 되리라는 예감은 들었었지만 그 사형집행자가 부회장이 아니라 다름아닌 정숙동무일줄은... 정말...》

저것은 자신의 죄과에 대한 스스로의 인정인가? 아니면 자신의 억울함에 대한 반감인가?...

《나도 정말 뜻밖이에요. 소왕청에 가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장동무를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장태섭의 머리가 폭 수그러졌다.

《난, 난... 갈수 없었소.》

그것은 변명이라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타대로 가득찬 고백의 목소리였다.

《갈수 없구말구. 제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혁명을 버리고 도망쳐온 배신자가 감히 어딜 찾아간다구? 난 우리 동지들을 밀고한 죄만으로도 죽어 마땅해.》

박춘남의 추상같은 목소리에는 섹독한 살기가 풍겨나왔다.

그 순간 장태섭의 숯덩이같이 시꺼먼 두눈섭이 꿈틀 일어섰다. 그 눈섭아래서 풍구질 먹은 숯덩이처럼 시퍼런 불길, 황황 타오르는 사나이의 눈빛이 섬광쳤다.

그것은 자기의 온몸을 강그리 태우는 불길이었다. 뼈속까지 비쳐내는 빛이었다. 심장이 내뿜는 열이었다. 그것은 도저히 거짓으로 만들어낼수 없는 또 하나의 그자신의 깨끗한 모습이었다...

장태섭이 혁명을 배신하고 동지들을 밀고했다는것은 믿을래야 믿을수 없는 억측이다. 내가 알고있는 그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다. 만약 그가 동지들을 배신했다면 박춘남을 비롯한 다른 조직성원들은 어떻게 아직까지 무사할수 있으며 또 이렇게 야밤중에 뼈젓기가 나다닐수 있단 말인가?! 장태섭이로 말하면 계수동지하조직이 추천하여 유격구에 보냈던 사람으로서 이곳 조직의 실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있지 않는가...

김정숙동지의 눈앞에는 강습을 마치고 돌아온 날 밤 그가 갇혔던 창고에서 보았던 그 희미한 피의 글발이 또다시 안겨왔다

《장태섭은 소왕청으로 간다.》...

너울거리는 불뭉치의 화광속에 거명게 보여오던 그 피의 자욱...

피는 결코 물이 아니다. 그것은 생명의 원천이고 삶의 원동력이다. 그의 혈서는 심장의 목소리이다.

그가 만약 이곳에서 원호물자를 가지고 떠나는 사람들의 뒤를 밟았다면 거기에는 분명 그 어떤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였을것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렇게 믿고있으시였다. 아니, 그렇게 확신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그 무엇에 이끌리듯 자신도 모르게 한걸음 또 한걸음 그에게로 다가가지였다. 왜 그러는지 미처 의식하지 못하시였다. 결박당한 그의 손목을 풀어주시였다.

《아니, 정숙동무! 어찌자는거요?》

박춘남의 놀란 목소리가 등뒤에서 다급히 울리였다.

《책임자동지, 난 장동무가 그랬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믿을수가 없습니다. 난 진

실을 알기전에는 장동무를 원썬로 마주설수 없습니다.》

그이께서는 분한 마음을 누를길 없으시였다.

박춘남에 대해 분하셨으며 그보다도 장태섭에 대해 더 분하시였다.

《태섭동무, 이 김정숙이를 혁명동지로 변함없이 믿는다면 내앞에서, 동지들앞에서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동무야 원래 진실하고 용감한 공청원이 아니였나요. 예?!...》

장태섭의 머리가 더 깊이 숙여졌다.

후두둑- 어디선가 비방울 떨어지는듯 한 소리가 들렸다. 급기야 장태섭의 어깨가 오한에 떨듯 세차게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박춘남은 그가 눈물을 쏟고있음을 알수 있었다.

《?!...》

《그러니... 정숙동문... 지금도 날... 믿는단 말이요?》

장태섭의 눈물섞인 부르짖음이였다.

《난 오직 김일성장군님의 뜻을 따르고싶어하던 태섭동무 믿고싶어요.》

《정숙동무!-》

...억울하고 분한김에 창고의 토피벽을 허버내고 탈출한 장태섭은 소왕청으로 가기 위하여 정신없이 걸음을 다그쳤다. 그러나 왕청현쪽으로 들어서는 사방대골짜기가 가까와질수록 그는 천근만근으로 걸음이 무거워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여기까지 달려오다싶이 하는 동안 미처 느끼지 못했던 《숙반》사람들에게서 맞은 상처의 아픔이 불시에 온몸을 쿵쿵 쑤시여들었다.

그 아픔은 유격구에서 이미 자기를 《혁명의 배신자》로 낙인하고 산하 혁명조직들에 알렸으리라는 생각으로 하여 더욱 배가되였다.

혁명의 배신자.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쳐와 그는 저도 모르게 우뚝 멈춰서고말았다.

쓰러지듯 주저앉고말았다.

이런 꼴을 하고 도대체 어딜 찾아간단 말인가? 날 누가 믿는단 말인가?

과연 나의 이 처지, 이 심정을 어떻게 리해할수 있단 말인가? ...

《이 시라소니같은 놈! 혁명을 한담시고 유격구에 들어갔던 놈이 제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이렇게 도망쳐와? 자고로 우리 가문엔 너 같은 배신자는 없었다!》

어제날의 흥법도의병출신인 아버지는 분명 이렇게 노성치며 장동속에서 사냥총을 꺼내들것이다. 아, 배신자의 억울한 루명을 쓰고 이렇게 집없는 들개처럼 방황하느니 차라리 아버지의 그 사냥총에 맞아 죽는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 아버지 한사람의 용서만이라도 받은것으로 되지 않겠는가?!...

장태섭에게는 문득 자기의 《민생단》루명을 벗겨주려고 현공청과 현당에까지 찾아다니던 김정

숙동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고맙다는 인사말조차 한마디 못 남기고 허둥지둥 도망쳤으니 이게 어디 사람의 도리인가?

아니, 인사는 돌째치고 자기를 적극적으로 두둔해나섰던 그를 오히려 곤경에 빠뜨리는 결과를 빚어냈으니 이제 어떻게 그의 얼굴을 마주 보며 무슨 려치로 이 세상에 머리를 들고 다니랴.

차라리 《숙반》사람들의 손에 죽느니만 못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후날에라도 사람들은 《장태섭인 억울하게 죽었다.》고 좋은 추억이라도 해줄수 있지 않았는가?! 그러나 이제는 그런 말조차 들을수 없게 된것이다...

장태섭은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내쉬며 으스스리게 틀어진 주먹을 부르르 떨었다.

무거운 모래김속에 가슴을 허비던 그는 《허, 이거 어디서 오는 젊은인지 신색이 말이 아니다?!》하는 누군가의 목소리에 편뜰 정신을 다잡았다.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는 걸음이 분명한데 약초뿌리들이 아구리사이로 뻗어 죽죽 솟구쳐나온 커다란 배낭을 진 40 대중엽의 낫모를 사람이 그의 앞으로 다가왔던것이다.

보내 이 고장 사람은 아니고 타곳에서 약초를 캐러 온 사람임이 틀림없었으나 아무리 초면이라도 이 아군에서는 사람을 만나는것자체가 두려웠다.

《이 마을에서 보지 못하던 젊은이로군.》

새로 나타난 사나이가 그의 행색을 유심히 살펴보며 비위중계 말을 건네었다.

장태섭은 그가 그냥 지나쳐버릴 때까지 아무 말도 하고싶지 않았으나 차마 그럴수가 없었다.

《거긴 누구시우?》

《나? 나야 보다싶이 왜놈들 꼴 안 보구 약초를 캐서 벌이를 하는 약초군이지. 봄부터 저 사방대 중턱에 초막을 치고 약초를 캐고있소. 그러다나니 여기 계수동사람들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지.》

사방대는 위낙 산이 깊고 험해서 귀한 약초들이 많았다. 장태섭은 약초군의 호기심어린 눈길 앞에 할수없이 지난해 가을 유격구로 들어갈 때 아버지와 약속해두었던 구실을 내대지 않을수 없었다.

《난 저 팔구쪽에 금이 많이 난다기에 겨우내 봄내 벌일 떠났다가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약초군은 《벌이를?》하고 되물으며 왜서인지 그의 얼굴을 지긋게 바라보았다.

장태섭은 룡감적으로 온몸에 얼룩얼룩한 뱀이 휘감기는듯 한감을 느꼈다.

중며보는듯 한 저런 기분나쁜 눈빛을 어디서 봤던가? 분명 어디선가 저 가늘게 쪼프린 눈길을 보았었는데? ...

《돌아오는 길에 마적패에 걸려 이렇게 빈털터리가 됐수다. 살아있는것만도 다행이지요.》

그는 애써 약초군의 그 눈길을 피해버리며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말과 행동이 어느 정도 실감있게 보였던

지 약초군은 머리를 끄덕이며 제갈길로 가버렸다.

그자의 뒤모습이 사라져가던 그 순간 장태섭은 불현듯 약초군의 그 눈빛이 지난 겨울 현성에 적구공작을 나갔을 때 약방에서 보았던 밀정놈의 눈빛과 같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때 그자의 정체를 몰래 귀뜸해주면서 그곳 조직성원은 자기들도 얼마전에야 알게 되었는데 그자에게 속히워 몇몇 동지들이 적들에게 체포되었다고 말했었다. 그러니 그놈이 그곳에서 정체가 드러나게 되자 더는 현성에 있을수 없어 이렇게 으스스한 산골로 활동지대를 옮긴것이 틀림없었다. 하긴 이곳은 두개 현의 접경지대로서 지대적으로 매우 전략적의의가 중요한 곳이 아닌가.

그놈을 그냥 내쳐둔다면 기필코 여기 혁명조직이 피해를 입게 될것이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장태섭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자의 정체를 알면서도 외면하고 떠나가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혁명에 대한 배신이고 김정숙동지의 믿음에 대한 저버림으로 될것이라는 심장의 목소리가 쿵쿵 그의 가슴을 울렸다.

장태섭은 그자의 뒤를 밟아서라도 다시한번 그 정체를 확인해보고 쥐도새도 모르게 없애치워야겠다고 결심하였다. 하여 그는 비장한 각오를 안고 수치와 모욕, 지어 죽음까지도 기다리고있을지 모르는 계수동으로 들어서게 되었던것이다...

《헌데 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알릴 생각을 안했소?》

박춘남은 여전히 날카롭게 따지고들었다.

《만일 그랬다면... 춘남동진 제 말을 믿었겠습니까? 난 그게 두려웠습시다.》

《태섭이가 말하는 그 약초군에 대해 우리도 알고있었소. 그러나 그 사람과 접촉해본 조직성원들의 말에 의하면 그의 사상적경향이 매우 좋다는거요. 왜놈들의 학정을 피해 세상을 등지고 살지 않으면 안될 사람이라고 하던데...》

박춘남이 고개를 기웃거렸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뭔가 짙어는데가 있어 그에게 나직이 물으시었다.

《지금 체포된 조직성원들중에 그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소. 약초군에 대해 나에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요. 그러니?... 설마?...》

그는 아직 갈피를 잡기 어려운듯 미심쩍은 눈길을 장태섭에게서 떼지 못하였다.

《헌데 우리 동무들이 원호물자를 가지고 떠난 그날 네가 <자위단>을 끌구 그들을 뒤따른건 어떻게 봐야 하는가?》

최동무를 비롯한 다른 조직성원들이 그에게 따지고들었다. 장태섭은 아무런 놀라움도 나타내지 않고 그저 덤덤한 어조로 사연을 설명했다.

《그날 <자위단>놈들에게 연락한건 바로 그 <약초군>이였습니다. 그놈이 <자위단장>방에 종이 쪽지말이를 밀어넣는걸 난 푹푹 봤습시다.

물론 그때까지 그 쪽지내용은 몰랐지요.

그래서 그냥 그놈의 뒤를 조용히 쫓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동무들이 떠나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위단>놈들이 그곳에 들이닥치더군요. 결국 그들은 놈들에게 붙잡히고말았지요. 내가 그놈들의 뒤를 계속 따라 움직인건 어떻게 기회를 보아 그들을 구출할수 없을가 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래서 난 그 밀정놈을 처단하려고 그놈이 잘 드러나는 초막에 가있었던것입니다.》

그는 할 말을 다 했다는듯 더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자기가 한 말의 반응을 살피느라고 그 누구의 얼굴도 쳐다보지 않았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곳 계수동지하혁명조직에서 벌어진 사태의 진면모를 똑똑히 알수 있으셨다.

더이상 장태섭이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이 드시였다. 원체 자신께서 믿으셨던 장태섭이 그대로였다. 박춘남과 이곳 조직성원들도 그의 말이 믿어진듯 고개들을 끄덕이였다.

그 어떤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지 박춘남이 두 눈을 빛내며 김정숙동지를 바라보았다.

《정숙동무, <약초군>으로 가장한 그 밀정놈을 잡읍시다. 그놈의 토설을 받아보면 모든것이 더 명백해질거구 그다음에는 그자와 장태섭일 데리구 유격구로 돌아가서 그 부회장과 현당사람들한테 진실을 빼개놓잔 말이요. 말그대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데야 그들이 어파대구 감히 험태기를 뒤집어 씌우겠소?!》

박춘남은 자기의 이 말에 흥분되였다.

그이상 현명한 방법이 있을상싶지 않았다.

그렇게만 되면 김정숙동지는 물론 장태섭이의 억울한 사정도 다 해소될것 같았다.

《정숙동무의 생각은 어떻게?》

김정숙동지께서는 물론 박춘남의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되시였다. 계수동지하혁명조직을 파괴한 밀정놈을 붙잡아가지고 유격구로 돌아간다면 그이상 명백하고 뚜렷한 담보가 없을것은 분명했다.

그러나 저들의 밀정이 행방불명이 되면 놈들이 여기에 더 큰 축각을 세우고 혁명조직의 활동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게 될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조직은 자기 활동을 다시 전개하기 힘들게 될것이며 이곳을 반유격구로 꾸리는 사업은 영영 불가능한것으로 될것이었다.

결국 일신의 안전은 담보될수 있어도 조직을 다시 살릴수 있다는 담보, 여기를 김일성장군님의 가르치심대로 반유격구로 전변시킬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지게 되는것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박춘남의 얼굴을 바라보시며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밀정놈을 체포합시다. 그런데 그놈을 체포해가지고 유격구로 갈것이 아니라 바로 <자위단>놈들에게로 끌어가야 합니다.》

《뭐라구?》

《예? 아니, 그건...》

다들 놀란 눈길로 그이를 바라보았다.

《동무들! 책임자동지!》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최대한의 가능한 합법성을 생취하여 혁명조직들을 위장하고 유격근거지를 보위하는 보이지 않는 요새로 만드는것이 반유격구창설의 목적인데 가려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린 <자위단>놈들에게 갇혀있는 동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계수동을 강력한 반유격구로 만들기 위해서도 그렇고 놈들의 통치지반에 뚫고 들어가 주도권을 쥐고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숙동문 우리가 적 <자위단>에 들어가야 한다는겁니까?》

최동무가 흥분어린 목소리로 다우쳐물었다.

《그래요. 최동무랑 장태섭동무들이 그 밀정놈을 붙잡아가지고 빠졌이 <자위단>에 갇다바쳐야 해요. 아, 그 밀정놈이 겉으로야 얼마나 왜놈들을 욕질하고 <혁명>을 선동하며 다녔어요?》

태섭동무랑 여러 동무들이 들었던것처럼 그 <죄>가 얼마나 <엄중>한가요. 안 그래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엷은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물으시였다.

《하하...》

가벼운 웃음이 터졌다.

누군가의 손이 김정숙동지의 두손을 덥석 잡았다. 장태섭이었다.

《정숙동무, 그러니 내가, 이 장태섭이가 <자위단>놈들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거지요? 예?...》

《그래요. 난 장동무가 그 누구보다도 책임자라고 생각해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물기가 번뜩이는 그의 얼굴을 미덥게 바라보시였다.

《책임자동지 생각은 어때요? 아직도 장동물 믿지 못하겠나요?》

박춘남은 그이의 미소어린 눈빛을 차마 마주 바라볼수가 없었다. 그는 얼굴을 돌리며 중얼거리듯 말하였다.

《정숙동무가 믿는데... 나라고 왜 그를 믿지 못하겠소. 하지만...》

《아이참, 믿는다면서 하지만은 또 뭐예요.》

《하지만 저 장태섭이 <자위단>에 들어간걸 알면 그 사람들이... 얼짜 좋구나 하구 정숙동무한테 <민생단>감투를 씌우려고 할텐데?!...》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말았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일때문에 마음을 놓지 못하는 그의 심정이 고마와 말없이 손을 꼭 잡으시였다. 그의 우려가 결코 공연한것이 아님을 자신께서도 잘 알고계시었던것이다.

그러나 계수동을 반유격구로 꾸리자면 그렇게 하는 길밖에 다른 방도가 없었다.

《책임자동지! 우리가 김일성장군님의 가르치심대로 싸우는데 그들이 감히 어찌지 못합니다.

실사 그런대도 나 하나의 위험이 도대체 뭐겠어요. 조직을 살릴수만 있다면, 하여 장군님의 혁

명로선을 지킬수만 있다면 더 바랄것도 두려운것도 없습니다.》

《정숙동무!》

박춘남이며 장태섭 등이 그의 두손을 다시금 뜨겁게 부여잡았다. 지그시 안겨오는 그의 웅심깊은 마음이, 쉬임없는 맥박이 사나이들의 심장의 박동으로 이어졌다.

그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거세찬 박동이었다.

×

그로부터 며칠후

구당비서 리호산은 계수동지하조직이 다시 복구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조직책임자 박춘남의 통신을 받았다. 붙잡혔던 세명의 조직성원들도 《신고자》의 《정체》가 밝혀져 죄없는 《량민》들이 《모함》당했었다는 리유로 석방되었다는 소식도 그 통신내용에 적혀있었다.

리호산은 언덕길가에 높이 자란 밤나무가지를 힘껏 그려잡았다. 며칠전 자기는 계수동으로 떠나는 그를 여기 이 밤나무그늘밑으로 불러들이려고 했었지, 하지만 그는 그늘속으로가 아니라 엄혹한 불벌속으로 주저없이, 흔들림없이 걸어가지 않았던가...

혁명동지들에게 들썩워진 모해는 뜨거운 믿음

가사

열병광장의 발구름소리

리명원

척척척 지축울린다
열병광장의 발구름소리
명장의 심장에 박동을 맞춘
강군의 그 숨결 맥박쳐온다
아 선군기치 떨치는 발구름소리
조선의 노래 승리의 노래

척척척 영광빛나라
무적필승의 발구름소리
원쑤의 아성에 불벼락 내릴
서리찬 멸적의 퇴성을 친다

아 선군기치 떨치는 발구름소리
조선의 노래 승리의 노래

척척척 신심넘쳐라
일심대군의 발구름소리
통일의 광장에 장군님 모실
겨레의 환호성 메아리친다
아 선군기치 떨치는 발구름소리
조선의 노래 승리의 노래

대사하언덕

류명호

항일의 너장군 한몸이 방패되어
혁명의 사령부 지켜낸 언덕
대사하는 항일의 전장에만 있었던가
아 장군님 결사옹위 총검의 숲을 이룬 나라
우리의 하늘땅 바다는 오늘의 대사하언덕

항일의 너장군 그날의 총소리
세월의 언덕넘어 울리어오네
그 메아리 총대의 사명을 깨우쳐주네

아 장군님 결사옹위 총검의 숲을 이룬 나라
우리의 하늘땅 바다는 오늘의 대사하언덕

항일의 너장군 계시던 그 자리에
오늘은 천만군민 함께 서있네
혁명의 수뇌부 목숨바쳐 지켜가리라
아 장군님 결사옹위 총검의 숲을 이룬 나라
우리의 하늘땅 바다는 오늘의 대사하언덕

별처럼 빛나는 숭고한 모습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보여주신 혁명적동지애의 숭고한 모습은 혁명적의리로 빛나는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의 모습으로 천만 군민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김정숙동지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지들을 위해 한생을 살았다고 뜨겁게 추억하시였다.

주체 26(1937)년 3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무송원정때였다.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고 수면부족으로 고통을 당해야 했던 무송원정은 참으로 어려운 행군이 아닐수 없었다.

눈으로 끼니를 예워야 했고 눈구멍이속에서 배낭에 기대여 자야 했으며 그 몸으로 하루종일 행군해야 했다.

때로는 달려드는 적들과 격전도 벌려야 했다.

구대원들마저도 지쳐 쓰러지곤 하였던 무송원정은 입대한지 얼마 안되는 신입대원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어려운 행군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때를 회고하시며 《장백산 즐기 즐기 피어린 자옥》이라는 노래의 구절과도 같이 우리는 그때 가는 곳마다에서 피를 흘리며 한치한치를 헤쳐나갔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무송원정의 나날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혁명적동지애가 얼마나 뜨겁고 열렬한것인가를 보여주는 잊지 못할 나날이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남들이 다자는 길은 밤에도 우등불가에서 대원들의 해진 옷과 신발을 손질해주시며 동지들을 위해 자신의 한몫을 깡그리 불태우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우등불에 태운 마동희동지의 모자를 밤길도록 기워주신 이야기도 그때에 있는 사실이다.

어려운 행군이 계속되던 어느날이였다.

대원들은 휴식구령이 내리자 우등불가에 누워 인차 잠들어버리였다.

신입대원인 마동희동지도 우등불가에서 정신없이 잠들어 모자와 귀뚜가가 타는것도 몰랐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를 깨우지 않으시고 조심스레 모자를 벗겨 불을 끄고 킁기 시작하시였다. 때늦게야 깨어난 마동희동지는 머리를 만져보며 당황해하였다.

모자가 없었던것이다.

결에서 그의 행동을 지켜보시며 미소를 짓고계

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불티가 모자에 달렸던것 같다고 하시면서 우리도 처음 입대했을 땐 가끔 이렇게 태워먹곤 하였다고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하도 그이의 다심하고 웅심깊은 말씀에 마음이 훈훈해진 마동희동지는 어려움도 잊고 그이께 자기는 소학교때부터 모자를 한번도 써보지 못하였다고 솔직히 말씀드리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 모자는 자기가 난생처음 써본 모자라고 하면서 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였다.

그는 소학교에 다닐 때 공부는 늘 1등을 하였으나 돈이 없어 모자를 써보지 못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선생이 권세있는 집아이에게 부당하게도 1등을 주는데 격분하여 마동희동지는 학교를 뛰쳐나왔다.

그런데 그날 아버지가 장마당에서 학생모자를 사왔던것이다.

그때의 일을 되새겨보며 마동희동지는 김정숙동지께 그 모자는 자기가 쓸 모자가 아니였다고, 그 학교도 자기가 다닐 학교가 아니였다고 하면서 유격대야말로 자기가 다녀야 할 혁명의 학교이고 혁명군의 군모야말로 자기가 써야 할 모자라고 진심에 넘쳐 말씀드리였다.

그러는 그에게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모자에 빨간 별까지 붙여주시면서 그러니 우리모두가 조선혁명의 대학에서 공부하는셈이라고 하시며 모자에 새긴 이 붉은별이 앞으로 간고한 투쟁의 길에서 사령관동지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가 되도록 동무를 이끌어주는 마음속의 별이 될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마동희동지는 김정숙동지로부터 오각별이 빛나는 군모를 받으며 앞으로 이 군모를 쓰고 조선혁명이 승리할 때까지 사령관동지의 혁명전사답게 용감히 싸우겠다고 굳은 맹세를 다지였다.

그 맹세를 지켜 마동희동지는 최후의 순간까지 적들과 용감하게 싸웠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보다 뜨거운 동지적사랑을 받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로 자라난 대원이 어찌 마동희동지뿐이라.

정녕 백두산녀장군이신 김정숙동지의 위대한 한생은 혁명동지를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고귀한 혁명생애였다.

럼철호

전망대 외 2편

염득복

산악이 두팔 벌려
바다를 품었는가
바다가 한품에
산악을 안았는가
령남땅에 일떠선 도크엔
배머리를 추켜든 산악같은 배들

12월의 찬바람 맞으시며
우리 장군님 오시였다
웁기시는 자욱자욱마다에서
건설자들의 수고를 헤아리시며
천천히 전망대에 오르신 장군님

대설의 추위에도
봄날의 훈향을 안고오신 장군님
풍치가 좋다고 정말 큰일을 했다고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했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실 때

아 때아닌 봄바람이
령남땅 언덕에 불어왔다
그 사랑의 열풍을 안은 풍력발전기는
머나먼 대양우의 파도를 헤치는 배들에
이 소식 전하며 세차게 돌고도는듯...

수리를 끝마친 배들
빈뜩이는 닻을 거수경례마냥 건듯 올리고
장군님 명령만 내리시면
대양만리 단숨에 달려갈 맹세를
은은한 고동소리에 담아 올리고

생각이나 했으랴 여기가
갈대만 설레이던 감탕밭이었음을
짠물에 바다새마저도 깃들지 않던 기슭
세기로 해묵은 감탕을 헤치고
천지개벽을 이룩한 배수리공장

아 혁명의 사령탑인듯
전망대에 오르신 우리 장군님
이것이 바로 천지개벽이라고 하실 때
땅도 바다도 들었다
수원들도 인민들도 보았다

이 세상의 모든 바다가
그이 계시는 기슭에서 시작되고
그이 계시는 기슭에서 펼쳐지는
강성대국의 그날의 조선의 모습을
령남땅 전망대에서 보았다!

나의 사랑 도크여

나의 사랑 도크여
나의 청춘시절의
더운뎃배인 일터여
내 오늘 밤 너의 기슭을 거닐며
하많은 이야기 나누고싶구나

불야성의 땅
장군님 자욱이 어린 령남배수리공장
수고많은 우리를 잠재우려
파도는 도크를 다독이며 자장이 불려도
이 마음속 《도크》에 가득찬 격정의 파도를
어찌 잠재울수 있으랴

하늘을 기울여 은하수 쏘는듯
밤을 불사르는 용접의 불보라
너의 환희로운 불바다의 화광은
쇠물이 피워주는 불빛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흘린 땀방울의 빛과 열

물에도 꺼지지 않는 불꽃을 위해
물에서 산 날 더 많았던 우리
물에서 피워낸 저 불꽃이
이 땅우에 영원하기를 바래
청춘도 생명도 서슴지 않았던 우리

이야기하고싶구나 저 파도와
12 만산을 날려보내던 그 퇴성을
안아보고싶구나 도크의 성벽
수천년세월의 감탕을 헤치고
한치한치 세운 만년성벽

때로는 성벽이 되어 감탕을 막았지
물속에서 언밥을 먹으면서도
우리 부르는 노래는 장군님의 노래
그 노래 순간도 잊지 말라고
가슴속에 새겨주는 풍력발전기의 은빛날개여

우리 어찌 잊으랴
청춘의 한시절 영원히 남아있는 곳
그 시절로 영원히 살라고
회관의 정문엔 용접공 우리의 모습과
도장공 우리의 모습 군상으로 세워져 있나니

아, 여기에서 닻을 올린 모든 배
그 어느 대양을 횡단한다 해도
마음의 닻은 여기에 두고가리니
내 한생 그 닻을 지켜 여기서 살리
나의 사랑 도크여!

제대군인마을

기초를 파고
벽체를 세울 때는
심리안팎에 소문났지
령남땅 제대군인마을건설소식

새색시 맞고
새집들이 흥성이여
백리안팎에 소문났지
령남땅 제대군인마을의 새집들이경사

중대 대대의 병실처럼
오붓하게 처마도 나란히 잇대고
덩실하게 솟아난 살림집들은
수도의 한구역을 여기에 옮긴듯

두칸도 작아 모두 세칸 네칸...
살림도구들도 하나같이

딸네 집 나들이왔던 어머니
집을 삭갠다는 제대군인마을

집집의 하얀 벽엔
훈장빛나는 병사시절 군복
배고둥소리는 병사시절 일파의 신호
너와 나 병사시절의 청호로 서로 찾고 부른다

고지의 초소를 바다가에 옮긴듯
습관된 병사생활 변함없이
일을 해도 군대식 노래도 군대노래
출근길도 스스로 대오짓는 제대군인마을

아 어버이장군님 찾아오시여
제대군인들이 좋아한다니 기쁘다고
친어버이사랑 베푸신 그날부터
온 나라가 다 아는 령남땅 제대군인마을

교정의 푸른 숲

주경

숲속의 교정인가
교정속의 숲인가
아름다운 시루봉기슭에 자리잡은
푸른 숲 우거진
원산농업대학이여

푸르른 금솔나무
수종의 나무들로 가득찬
밀림이 반기는듯
내 대학구내에 들어서니
문득 비울것만 같은
김정숙어머님의 그리운 영상이여

저 나무들이 아닌가
그날에 어머님눈빛에 안겨들던
애솔포기들이
이제는 아름답드리 거목으로 자라
교정에 설레이는 푸른 숲이여

그 어느 년륜에 새겨안았느냐
60년전 가을날
건국의 환희를 해빛으로 뿌리시며
동해라 천리 먼먼길을 이어
이곳에 오시였던 김정숙어머님
자애깊은 영상을

싱그러운 숲향기에 실려
들려올것만 같구나
우리 나라 농업기술인재육성의 원종장으로 될
대학의 터전을 돌아보시며
김일성장군님의 높은 뜻을

이 땅우에 활짝 꽃피우자고
뜨겁게 외우시던 어머님의 그 음성이

아 네 푸른 숲에 어려오누나
한줌 난알이 없어
생눈을 씹으며
혈로를 헤쳐야 했던
투사들의 목숨으로 바꾼 이 땅에
풍요한 이삭이 물결치게 하시려
그날에 어머님 걸으신 자옥자옥이

정녕 무심히 볼수 없구나
저 아름답드리 나무 한그루 한그루가
그날에 어머님 잡아주신 터전에서
자라고 또 자라
박사가 되고 원사가 된
이 나라 과학자들의 푸른 숲인듯

숲속에 비쳐오는 해빛이여
천가락 만가락
그날에 어머님 새겨가신
자옥자옥우에
가장 밝은 빛을 뿌리어다오

무성한 억만잎새를 번뜩이며
온 나라에 설레이는 푸른 숲이여
그날에 어머님 안아보신
내 조국의 영원한 가을이
네 푸른 숲우에
파도치며 일렁이누나!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의 빛나는 형상

-총서 《충성의 한길에서》 중 장편소설 《진달래》를 읽고-

김순립

진달래, 진달래를 보면 조선인민혁명군의 주력 부대를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으로 진군하시던 그 시기 연분홍빛으로 핀 조국땅의 진달래포기들을 가슴가득 그리안으시고 그리도 기뻐하시며 진달래꽃가지들을 정히 꺾어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시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을 생각하게 된다.

어머님의 탄생 90 돛을 맞는 우리모두의 가슴마다에는 오매에도 그리던 조국땅에서 붉게 핀 진달래를 한아름 안고 조국산천을 바라보니 하루빨리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광복시켜야 하겠다는 생각이 더욱 굳어진다고 하시면서 봄을 먼저 알리는 진달래처럼 광복의 봄을 알리는 진달래가 되자고 하시며 활짝 웃으시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온다.

총서 《충성의 한길에서》에 속하는 장편소설 《진달래》(리종렬 작)는 주체 27(1938)년 가을부터 주체 28(1939)년 5월까지의 역사적시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있다.

주체 27(1938)년 겨울은 우리 인민의 항일무장 투쟁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련의 시기였다.

이 시기는 일제가 중국대륙에 대한 침략전쟁을 확대하여 중국의 광활한 지역을 강점하는 한편 중일전쟁의 《전략적후방》으로 된 조선과 만주에서의 조종인민들의 항일무장투쟁을 말살하려고 발악하던 역사적시기였다. 이 시기 조선인민혁명군의 적극적인 적 배후타격작전과 인민대중의 줄기찬 반일투쟁에 의하여 심대한 정치군사적타격을 받은 일제는 조선인민의 혁명적진출을 막아보려고 전례없는 반동공세를 감행하여 나섰다. 일제침략자들은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과 인민들간의 관계를 끊어보려고 꾀하였으며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대규모적인 《와해공작》과 국내인민들에 대한 파썸적폭압을 그 어느때보다 강화하였다.

한편 좌경모험주의자들에 의하여 강요된 《열하원정》의 후파로 항일련군부대들이 많은 손실을 당함으로써 조선인민혁명군은 백두산서남부일대에 증강된 적의 대병력과 거의 단독으로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리하여 우리 혁명앞에는 엄혹한 난국이 조성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를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주체 27(1938)년 11월에 역사적인 남파자회의를 소집하시고 조성된 군사정치정세와 《열하원정》의 좌경모험주의적오류를 심각히 분석하시면서 부닥친 난국을 타개하고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계속 양양으로 이끌어올리기 위한 새로운 전략적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전략적 방침에 따라 력사적인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고 주체 28(1939)년 4월 북대정자회의가 있는 뒤 5월 무산지구진공작전이 개시되었다.

장편소설 《진달래》는 이러한 력사적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장 충직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벌리신 빛나는 혁명활동을 감동깊은 예술적화폭으로 형상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받드는 자세와 립장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뜻깊은 사상에 걸쳐 해답을 주고있다. 다시말하여 사령관동지의 친위전사는 혁명의 수령을 진심으로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로선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원들을 이끌어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자세와 립장을 가져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숙동무는 조국의 광복과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열렬한 혁명가였습니다.》

장편소설 《진달래》는 혁명의 령도자를 모시는 친위전사의 자세와 립장이 어떠하여야 하는가 하는 인간학적문제를 제기하고 깊이있는 예술적형상으로 해명하고있다.

주체형의 혁명가의 사상정신적품모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력사발전과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옳은 인식에 기초하여 가장 진실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혁명의 령도자를 높이 모시고 신심으로 받들어나가는 혁명적수령관을 확고한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는것이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가장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을 지니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최고의 높이에서 체현하시였다.

참으로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살아도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며 한생을 다 바쳐 장군님께 충실하는것이 김정숙동지의 고결한 인생관이였다.

장편소설은 무엇보다도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을 지니시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어떻게 받들어모시였는가 하는것을 생동한 생활을 통하여 예술적으로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소설에서 보는바와 같이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고 가재꿀밀영을 떠나 남패자에 이르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뵙고싶은 마음이 간절하시였다. 그러나 장군님을 만나뵙지 못하니 얼마나 섭섭하겠는가고 말하는 장철구에게 김정숙동지께서는 《우리 같은 보통전사들까지 다 만나뵙자고 하면 어찌겠어요.》라고 하시며 오히려 그토록 바쁘신 사령관동지를 위해드릴수 있는 일에 마음을 쓰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썸터에 나가셨다가 썸터에서 흘러내리는 물가의 마른풀이며 돌에 치분가루가 떨어져 희끗희끗한 반점들이 찍혀있는 썸터가 사령부가 쓰는것이라는것을 장철구로부터 들으시였다. 얼핏 보기에는 맑아보이지만 눈여겨 들여다 보면 물밑은 흙감탕과 쌀뜨물이 앙금으로 가라앉아 물이 부엌에 흐려있고 그속에 감자껍질이며 음식찌꺼기 같은것이 묻혀있는것을 보시고는 사령관동지께서 이런 흐린물에 세면을 하시리라 생각하니 결음을 더 내디딜수 없으시여 한시간 남짓이 애써서 썸터로부터 도랑을 따로 짚고 세면터를 만드시였다. 그 이튿날 아침 세면을 하시려고 썸터에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 세면터를 보시고 전령병에게 김정숙동지께서 왔다가지 않았는가고 물으시였다. 사령관동지를 위하드리신 일이라면 그 어떤 사소한것도 놓치지 않는것은 오직 김정숙동지께서만이 하실수 있는 일이였기 때문이였다.

남패자로부터 시작된 고난의 행군의 그 엄혹한 나날에도 김정숙동지께서는 언제나 사령관동지의 안녕을 생각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끝없는 행군과 전투에 지치고 식량마저 떨어져 허기증까지 겹쳐 몸을 가누지 못하여 눈속에 푹푹 쓰러지는가 하면 전대오가 침묵으로 허기증을 참고있는것을 보시면서도 위대한 장군님을 생각하시였다. (이러다가 모두 얼마 못 가서 쓰러지지 않겠는가. 우리는 벌써 끼니를 몇번이나 넘겼는가. 련대들도 식량이 다 떨어졌을게다. 그런데 행군을 계속하는걸 보면 사령관동지께서 무슨 대책을 취하신것인가?... 아니, 아니... 사방에 적들이 널렸는데 어디서 식량을 구하겠는가. 악착한 놈들은 우리한테 난알한알 넘여가지 못하게 외진 산골사람들까지 모조리 집단부락에 몰아넣고 빈집마저 불태워버렸다지 않는가, 아, 식량, 식량! 이제 휴식하게 되면 밥소랭이에 뭇을 넣고 끓일가. 피쌀 한되나 감자 몇되라도 있었으면... 사령관동지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우실가?)

김정숙동지께서는 몇끼씩 굶어 대원들이 지쳐 쓰러지는 그 시각에도 위대한 장군님의 때식을 걱정하면서 얼마 되지 않는 장갑속의 좁쌀을 털어 죽을 쑤어서는 사령부작식대원인 장철구를 통하여 장군님께 보내드리시였다.

소설에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고 부상병들과 녀대원들

을 인솔하여 청봉밀영으로 떠나신 때의 이야기도 감명깊게 형상되였다.

고난의 행군의 그 어려운 나날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신의 머리칼을 잘라 만든 신발깔창을 위대한 장군님의 신발밑에 깔아드려달라고 장철구에게 말하시였다.

그리고 사령관동지를 위하는 마음이 그토록 지극하셨기에 김정숙동지께서는 뒤산너머 사령부쪽에서 총소리가 들리자 눈앞이 아찔해지는감을 느끼시며 기관총소대 강태수소대장에게 사령부로 적이 달려드니 어서빨리 가라고 격한 소리를 치고는 산기슭쪽으로 바람처럼 달려가시였다. 그러시고는 예광탄의 빨간 점선들이 앙칼진 비명을 지르며 그쪽으로 날아가고있는것을 보시고 그에게로 날아가는 불비속에서 탄알 하나라도 덜어주고싶은 심정이 불같이시여 구름처럼 밀려드는 적들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자신도 알수 없는 함성을 터뜨려 적들을 유인하기도 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청봉밀영에 도착하시여서는 사령관동지께서 적들의 포위를 무사히 돌파했는지 마음을 놓을수가 없으시여 산등성이에 올라 사령부가 떠나간 먼 동남쪽 하늘가를 애타게 바라보시였다. 그 하늘가를 봐서는 사령부가 돌파에 성공했는지 어졌는지 도무지 알수 없으시여 《장군님!》하고 마음속으로 절절히 부르시며 왈칵 터져오르는 오열을 삼키며 입술을 깨무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격렬하였던 대홍단전투때에도 사령관동지의 입술이 말라 갈라터졌다는 전령병의 말을 들으시고 물을 드려야 하겠다는 생각이 떠올라 군용밥통을 들고 숲속으로 뛰어들어가시였다. 풀잎과 나무잎사귀들에 맺힌 이슬을 털어넣으시다가 티같은것이 떠있어 정갈하지 못하여 아쉽지만 간신히 모은 그 물을 쏟아버리시였다. 그리고는 행군해올 때 국사당 가까이에서 썸물을 마셨던 일이 생각나시여 국사당쪽을 향해 숲속을 헤쳐 아릅드리강대나무열을 지나가시다 사령부의 배후로 달려드는 적들을 발견하시자 순간의 지체도 없이 적을 유인하여 사령부의 안전을 보장하시였다.

소설은 이처럼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을 무한히 흠모하신 김정숙동지께서 위대한 장군님을 혁명의 령도자로 높이 우러러모시는 자세와 립장을 어떻게 가지시고 위대한 장군님을 어떻게 받드셨는가를 구체적인 생활세부를 통하여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장편소설 《진달래》는 또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사령관동지의 사상과 로선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으시고 그것을 견결히 옹호보위하기 위하여 어떻게 싸우시였는가 하는것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을 절대적으로 신봉하시고 그를 목숨바쳐 옹호고수하는 견결한 혁명정신을 지니고계시였다.

사령관동지의 혁명사상과 로선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으시고 그것을 견결히 옹호보위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투철한 혁명적원칙성은 청봉밀영에서 엄가놈의 반혁명적립장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시는 그의 형상에서 가장 감동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소설에서 보는바와 같이 사령부로부터 특별임무를 받고 청봉밀영의 책임자로 들어온, 혁명대오에 끼여든 우연본자인 엄장호는 사령관동지의 명령대로 조선인민혁명군의 식량을 마련하지 않았을뿐아니라 변질타락한 생활을 하고있었다.

사령관동지께서 주신 임무를 받아안으시고 청봉밀영에 들어가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첫 순간에 엄장호의 그릇된 사상관점과 생활태도를 간파하시고 그와 견결히 투쟁하시면서 사령관동지의 의도와 명령을 관철하는 사업에 몸바쳐 나서시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의 세계는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혁명사상과 로선을 옹고고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뚜렷이 발휘되였다.

청봉밀영에서는 어느날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연설 **《일제의 대륙침략전쟁을 저지파탄시키고 조국광복의 위업을 앞당기자》**에 대한 상학을 진행하고 학습토론이 있었다.

이미전에 사상적으로 변질된 밀영책임자 엄장호는 남파자회의에서 제시된 사령관동지의 조국진군방침을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 대신 로씨야혁명의 경험을 실례로 들면서 혁명의 고조기와 저조기에 대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러면서 이자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조국진군을 죽음의 함정으로 찾아들어가는, 파멸의 낭떠러지를 향해 눈감고 달려가는것이라고 악의에 차서 비방중상하고 사령부의 로선을 정면으로 반대하여나섰다.

사령부의 로선을 형틀는 엄장호의 궤변을 듣고 계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참을수가 없으시여 엄장호와 정면으로 맞서 싸우시면서 그자의 본심을 신랄히 폭로규탄하시었다.

《...동무들, 우리 주력부대의 저 행군이야말로 우리 나라 력사에 류례없는,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가장 성스러운 애국적인 행군입니다! 절세의 애국자 김일성장군님께서 그런 결심을 하실수 있고 장군님의 결심은 백번 정당하고 빈틈없는 정확한것입니다! 사령부의 현 로선은 눈물겹도록 옳은것입니다!》

사령관동지의 사상과 로선을 옹호보위하시는 김정숙동지의 이 열렬한 주장에 아연해진 엄장호가 그 말씀을 꺾으려고 날뛰었지만 김정숙동지께서는 조금도 굽히지 않으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또한 엄장호가 신입대원 지세천에게 갖은 고문을 들이대면서 그에게 **《밀정》**이라는 억울한 루명을 씌우려 할 때에도 일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놈을 찾아가 나 어린 대원을 당장 석방시키라고 들이대시는가 하면 엄장호가

김정숙동지를 체포하려고 할때에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단호하게 맞서 싸우시며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었다.

《나 하나를 체포해서 없앤다고 혁명앞에 저지른 죄가 감춰질것 같아요? 당신은 어린 대원을 위협공갈해서 도주자로 만들어놓고 우리를 모해하자는게 아닌가요? 자기 정체를 폭로한 우리가... 우리가 두려워서... 더 큰 죄를 짓지 말고 그를 내놓아요!》

엄장호의 책동에 의하여 병실에 갇혔을 때에도 김정숙동지께서는 혁명의 배신자와의 투쟁을 멈추지 않으시였으며 청봉밀영에서 벌어진 사태를 빨리 사령부에 알려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박두성과 협력하여 류승민을 떠나보내심으로써 마침내 험악한 사태를 수습하도록 하시었다.

이처럼 소설은 엄장호와의 비타협적인 투쟁을 통하여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장군님의 사상과 로선을 견결히 옹호보위하시는 김정숙동지의 혁명정신과 불굴의 의지를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김정숙동지의 성격형상에서 감명깊게 안겨오는 것은 또한 혁명의 어려운 고비마다 언제나 앞장에 서시여 이신작직의 모범으로 혁명동지들을 이끄시면서 장군님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나가시는 끝없는 충실성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행군도중 수림속에서 휴식할 때에도 지칠대로 지쳐 자는 대원들에게 배낭을 머리맡에 밀어넣어주시고 자신의 숨외투를 가슴노리까지 끌어올려 덮어주기도 하시며 싸리나무삭정리로 고깔볼을 피워놓고 작식을 도맡아하시었다.

한되 되나마나한 조잡쌀을 들고 앞으로 어려운 고비가 더 많지 않을가고 안타까와하고있을 때 전령병 마영남이 들어와 쓰러진 7련대 대원들이 난알물을 한모금이라도 먹으면 일어나겠는데 사령관동지께서 누나한테 가보라고 하시였다고 말한다. 최정덕이 조잡쌀이 든 쌀주머니를 등뒤에 감추자 김정숙동지께서는 **《정덕이, 장군님 명령인데 보내야지요. 내놔요.》** 하시며 자신이 배낭속에 깊이 간수했던 조잡쌀을 전령병에게 주시었다.

김정숙동지의 충실성은 가재풀밀영에서 군복을 제작하시는 숭고한 모습에서 더욱 생동하게 형성되고있다.

가재풀의 재봉대를 지도하시면서 산너머 범골의 재봉대도 돌보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어느날 적토벌대와 맞닥든 범골재봉대원들이 필사적인 저항끝에 모두 희생되는 가슴아픈 현실에 부딪치게 되시었다. 몇몇 대원들을 거느리시고 범골밀영으로 건너가신 김정숙동지께서는 혁명동지들을 무참히 학살한 놈들을 징벌하는 복수전을 벌리시었다. 그후 다시 가재풀밀영에 도착하였을 때 대원들이 어서 사령부로 돌아가자고 한다. 김정숙동지께서도 사령관동지결의로 돌아가고싶은 마음은 간절하시였지만 범골밀영재봉대원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과업받은 군복제작을 끝내지 못했는

데 어떻게 사령부로 돌아가겠는가고 하시면서 이미 만든 군복만을 먼저 지워보내시고 적들의 수색대가 밀영주변에 수시로 나타나는 위험속에서도 군복제작을 마쳐 끝내시고야 사령부로 떠나가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조국으로 진군하는 고난의 행군때에도 김정숙동지께서 가장 숭고하고 뜨거운 동지애를 지니시고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어떻게 집행하시였는가를 소설은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혁명적동지애는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신 가장 고결하고 아름다운 품성이며 바로 그것으로 하여 그 어떤 어려운 난관앞에서도 모든 혁명전사들을 사령관동지의 명령관철에 힘있게 불려일으킬수 있었다.

모진 강추위에 며칠씩 굶으면서 무릎을 넘는 생눈을 헤쳐야 하는 조국에로의 진군길은 적들의 추격을 물리쳐야 하는 간고한 행군길이였다. 그러나 김정숙동지께서는 언제나 행군대오의 앞장에 서시여 혁명동지들을 이끄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맨손으로 눈과 언 땅을 파헤치고 칠팔리틀 캐서 그것을 끓여 대원들에게 나누어주시였으며 나어린 대원 지세천이 다리에 상처를 입어 하반신마비로 더는 걷지 못하겠다고 할 때에도 그를 타이르시면서 그의 다리에 눈을 가져다비벼 맥이 통하게 하시고 그가 혁명대오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이 행군과정에 김정숙동지께서 발휘하신 뜨거운 혁명적동지애에 대한 묘사는 참으로 만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청봉밀영에서도 엄장호와 싸우시면서 너대원들을 따듯이 보살피주시였으며 느릅나무껍질과 황경피나무껍질을 벗겨오시고 송진, 가문비진 등 약재들을 뜯어다가 약을 만드시여 박두성과 지세천을 비롯한 부상병들의 상처를 정성껏 치료해주시었다.

이처럼 소설은 김정숙동지께서 혁명적동지애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을 따듯이 보살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정확히 집행하는 혁명전사의 영예를 빛내이도록 하시였을뿐 아니라 그들의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여겨주시는 참다운 인간애의 체현자이시라는것을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소설에서는 이러한 김정숙동지의 모습을 청봉밀영에서 엄장호의 반혁명적책동과 원칙적으로 투쟁할 대신 그의 배신행위를 묵인하면서 엄중한 파오를 범한 리금준의 정치적생명을 건져주시려는 웅심깊은 인간애에 대한 감동적인 묘사를 통하여 잘 보여주고있다.

청봉밀영의 전원이 사령부의 부름을 받고 북대정자로 와서 그 기간에 벌어진 사건을 총화짓기 위한 방면군당위원회에 참가하였을 때 많은 대원들은 사령부의 로선을 반대한 엄장호와 함께 그놈의 반역행위를 묵인한 밀영의 정치책임자 리금준에게도 동일한 처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그러나 김정숙동지께서는 장군님께 리금준을 엄장호와 같이 볼수 없다고 하시면서 혁명의 배신자인 엄장호는 엄격히 처단하고 리금준이는 비판을 엄하게 주지만 개준할 기회를 한번만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신다. 그것은 리금준이가 고난의 행군과정에 일시적인 동요가 생겨 엄장호의 견해에 감정적으로 공감한데는 있었지만 사상적으로 완전히 공감하거나 결탁한것은 아니며 또 그가 사령부의 로선자체를 반대하지도 않았고 그 이후 자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옳게 행동하였으며 그에게는 애인 서영순이 있어 그 한말기의 꽃과도 같은 사랑을 귀중히 아껴주는 의미에서도 그에게 개준의 기회를 주자고 하신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또한 리금준이가 경위중대 소대장의 직무에서 철직되어 기관총소대의 대원으로 된 이후 무척 괴로와하면서 늘 기관총탄띠만을 한배낭 지고다니는것을 눈여겨보시고 서영순을 통하여 그에게 힘을 주도록 하시고 대홍단 전투가 끝난 뒤에는 위대한 장군님께 말씀드려 그에게 기관총이 수여되도록 하시었다.

청봉밀영에서 맹종맹동하면서 유유부단하게 행동하여 파오를 범한 리금준을 편협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시며 더 따듯이 돌봐주시는 김정숙동지의 뜨거운 인간애는 이렇듯 숭고한 애정과 넓은 포용력으로 충만되어있다.

이처럼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형상을 구체적인 생활화목으로 생동하게 보여주면서 그것은 바로 위대한 장군님께 의하여 형성되고 공고화된것임을 설득력있게 보여주고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이 시련을 겪고있던 그 준엄한 시기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중요한 과업이 나설 때마다 김정숙동지에게 그 임무를 맡기시면서 꼭 수행되리라는 믿음을 주시었다.

이러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으시고 김정숙동지께서는 언제나 사령관동지를 생각하시고였고 장군님을 높이 받드는 마음으로 모든 임무를 한치의 드림도 없이 수행하시었다.

장편소설 《진달래》는 다음으로 김정숙동지에 의하여 각이한 운명의 길을 걸어온 수많은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이 위대한 장군님께 충직한 혁명전사로 자라나게 되는 모습을 감동적으로 형상함으로써 김정숙동지의 혁명업적을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소설에서 보는바와 같이 혁명의 어려운 고비에 일시적으로 동요하면서 돌이킬수 없는 엄중한 파오를 범한 리금준이 그렇듯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전사로서의 정치적생명을 계속 빛내일수 있게 되고 그와 서영순과의 애정이 아름답게 꽃피날수 있는것은 김정숙동지의 넓은 포용력과 뜨거운 혁명적동지애의 결과이다.

리금준과 서영순의 애정이 뒤틀리고 최정덕이 마저 영순이로 하여금 금준이와의 관계를 단념할것을 요구하던 때에도 김정숙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라고 하여 사랑을 할수 없다고 하여서

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애정을 귀중히 가꾸어주시고 금준이가 파오를 범하여 서영순이 고민할 때에는 그에게 금준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를 배척할것이 아니라 옳은 길로 나가도록 더 잘 도와주어야 한다고 일깨워주시며 방도까지 가르쳐주시었다. 그리하여 리금준은 마침내 위대한 장군님께 충직한 혁명전사로 성장하게 되며 서영순과 그의 애정 역시 순결한 동지적사랑으로 아름답게 피어나게 되었다.

소설에서는 지세천이 위대한 장군님께 충직한 혁명전사로 자라나는 파정도 생동하게 보여주고 있다.

김정숙동지께서 신파지구에 나가 지하공작을 하실 때 추천해보낸 지세천이었지만 그는 유격대를 찾아오는 도중 왜놈들의 매복에 걸려 인솔자를 잃고 적의 추격을 받아 한달이상 산속을 헤매었고 압록강을 건너다가 놈들에게 잡혀 무한령도로공사판에서 강제로노동도 하고 거기서 도망쳐 산속에 숨어있다가 놈들한테 다시 잡혀 끌려가는 도중 유격대의 구원을 받아 무장대오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나 지세천은 몸이 약한데다가 투쟁속에서 단련되지 못하여 고난의 행군시기 대오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갖은 고생을 다 하는가 하면 청봉밀영에 들어가서는 엄장호의 강박과 왜놈의 밀정 구영복의 모략에 못이겨 자기가 《밀정》이라고 허위진술을 하면서 자포자기에 빠져 밀영의 사태를 더욱 험악하게 만들고 자신의 생명마저 위태롭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김정숙동지에 의하여 것처럼 험악한 위기에서 구원되고 마침내 무산지구진공작전에 참가할뿐아니라 위대한 장군님앞에서 사랑하는 어머니와 형님을 만나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지세천이 이렇게 성장한것은 김정숙동지의 뜨거운 혁명적 동지애와 세심한 보살핌의 결과라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이밖에도 부상당한 몸으로 청봉밀영에서 억울하게 박해를 받아오다가 김정숙동지에 의하여 혁명가의 기개를 떨치게 된 박두성, 적들의 《토벌》에 희생되는 마지막시각까지 영웅적으로 싸운 범골밀영의 재봉대책임자 박수정, 기구한 운명의 길을 걸어왔고 조선인민혁명군의 녀대원으로 보람있게 싸우는 최정덕 등 다양한 성격들도 개성적으로 잘 형성되었다.

이 모든 인물성격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고매한 성격적풍모를 다면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주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귀중한 형상으로 되고있다.

장편소설 《진달래》는 또한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로선을 확고한 혁명적신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혁명적신념이 없을 때 그 인간은 준엄한 혁명의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동요하게 되며 나중에는 혁명의 배신자로 굴러떨어질수 있다는 심각한 교훈을 형상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소설에서 엄장호의 형상은 이에 대한 생동한 반증으로 된다.

엄장호는 중학시절에 《청년맑스주의자》로 널리 알려졌고 주체 19(1930)년 겨울부터는 팔도구광산의 노동자들속에 들어가 광산지하조직의 책임자로 있었고 유격대가 조직된 이후에는 한 부대의 지휘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그는 주체의 혁명관으로 확고히 무장되지 못하여 반《민생단》투쟁에서 좌경적오류를 범하고 지휘원의 자리에서 떨어져 평대원이 되었으며 그후 사령관동지의 신임에 의하여련대군수관으로 일하다가 사령부의 특별임무를 받고 청봉밀영의 책임자로 오게되었던것이다. 하지만 그는 사령관동지께서 제시하시는 로선을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에 의혹을 품고 저울질을 하면서 자기의 소충명을 앞세우고 사령관동지의 명령지시를 태공하면서 사령부의 로선을 반대하는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자는 혁명대오안에 우연히 끼여든 불순분자 구영복의 꼬임에 넘어가 혁명임무수행을 쫓겨버리고 산속에서 짐승을 잡아 모피장사를 하는가 하면 서애순을 통락하고도 아무런 량심상 가책도 느끼지 않는 철면피한 인간추물로, 혁명의 배신자로 굴러떨어졌다.

소설에서 보는바와 같이 회의에서 청봉밀영사건을 분석총화하면서 엄장호의 죄행을 단죄하는 7련대장 오중흡이 하는 말은 참으로 뜻이 깊다.

《...동무들, 혁명을 오래한 저 인간이 왜 이런 변절자, 타락분자, 추물로 되였는가 하는데 대하여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사령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흐려지면 누구나 혁명승리에 의혹을 느끼고 나중엔 타락해서 반역의 길에 떨어져 저꼴로 된다고 봅니다.》

소설은 오중흡련대장의 이 말을 듣는 리금준이 지난날 엄장호와 투쟁하지 못하고 그자의 책동에 사상감정적으로 공감하였던 자신의 파오를 심하게 뉘우치는것을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이와 같이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로선을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절대적인 신념으로 간직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훌륭히 형상하였다.

참으로 총서 《총성의 한길에서》중 장편소설 《진달래》는 백두산 3대장군을 형상하는데서 력사적사실과 예술적형상을 옹계 결합할데 대한 우리당의 주체적문제방침을 정확히 구현하였으며 등장인물들의 뒤생활을 잘 파고들어 내용을 풍부화하였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의 탄생 90 돛을 맞으면서 김정숙동지의 혁명업적의 일단을 감명깊게 보여준 장편소설 《진달래》의 형상세계를 감회깊이 돌이켜 보면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높이 받들고 어머님께서 념원하시던 사회주의 내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일떠세울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솔밭마을이야기

오재신

건국의 나날에
어머님 오셨던 바다가 솔밭마을
소나무가 이야기하네
해당화와 백사장이
다투어 이야기하네

소나무-
휴양의 한여름 이 좋은 그늘에
땀흘리는 인민모두 들어세워야 한다고
거친 줄기 부드럽게
어루만져주시던 어머님
온 나라에 그 그늘 넓혀주신
그 손길입니다

진달래-
이곳 경치가 류달라
산에 피는 진달래가
바다가 솔밭에 뿌리내렸다고
기뻐하시던 어머님
인민의 가슴가슴 피워올리신
그 미소입니다

해당화-
줄기엔 가시를 돌렸어도
꽃은 붉고 향기로워
참으로 매력있다고
담찬 사나이 바다사람들
그래서 더 사랑한다고
바라보고 바라보시던 어머님
그 정이랍니다

백사장-
하루도 아닌 반나절
너무나도 떨어지기 아쉬워
도래곶이 한끝까지 따라섰건만
어버이수령님 건국위업 받드시는 걸음
바빠 떠나시였으니
어머님이 그리워 갈피갈피 고이 품은
그 자옥입니다

솔밭마을이야기
어머님 이야기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정으로 수놓아가는 사랑의 서사시
내 고향의 영원한 전설이라네

사랑의 미역숲입니다

김명옥

물속을 들여다보면
아름다운 신비경을 펼친듯
하늘하늘 춤을 추는 미역숲
내 손엔 자꾸 휘감겨지는
미역줄기들

기쁨에 넘쳐
행복에 겨워서입니까
실한 미역줄기
온종일 아름답게 따들일 때면
뜨거웁게 젖는 생각

해방의 봄빛 안고
원산 부두가를 찾으신 김정숙어머님
나란히 너인들과 이 기슭에 서시여
저 바다에 미역을 길러
우리 녀성들에게 안겨주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그날에 남기신 말씀

아이를 낳고도 입에 쓰거운
시래기국을
목으로 넘겼다면 눈물겨운 이야기
바다를 앞에 두고도
미역 한줄거리 마음대로 먹을수 없던
녀인들의 아픈 가슴

어머님은 저 바다를
통채로 기울여
녀인들 가슴가슴에 맺힌 그 설음을
사랑의 바다로
말끔히 다 가져주시는듯...

오늘은
배전이 넘치게
따들이고 또 따들이는 미역더미
홍에 겨워 노를 저어가는
양식공처녀들의 구성진 노래

출렁 출렁
끝없는 행복을 속삭이는 내 고향 바다가
그날에 김정숙어머님
무성히 자래워주신
사랑의 미역숲 행복의 미역숲이
녀인들 가슴속에
사랑의 바다되어 설레입니다

다시 불러보는 이름

김금옥

부모들은 자식이 세상에 태어나면 앞날을 축복하여 그 뜻과 소리를 따져가며 이름을 짓는다. 뜻도 깊고 부르기도 좋은 이름을 짓느라 날과 달을 넘기며 사색과 탐구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하여 마침내 마음에 드는 이름을 지었을 때에는 종이에 큼직하게 써보기도 하고 갓난애를 추켜들고 목청껏 불러보기도 한다. 사실 이름을 놓고 할수 있는 말은 참으로 많은것이다.

지난 가을 세계의 명승으로 이름높은 금강산에 대한 글을 쓰려고 그곳에 갔던 나는 온정령너머에서 왔다는 한 할머니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오늘 우리 시대 인간들이 지니고있는 이름에 얼마나 큰 뜻이 담겨져있는가를 세삼스럽게 느끼게 되었다.

무르익은 산열매의 향기가 섞인듯 한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저녁무렵 나는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사귄 벗인 할머니와 함께 금강산의 만이천봉우리가 한눈에 안겨오는 휴양각 로대에 나와 마주앉았다.

《할머니, 년세가 많으신것 같은데 용케 이곳에 오셨습니까.》

《년세가 많다니요. 70 이 훨씬 넘기는 했지만 한창나이지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하긴 좋은 세월에 그쯤한 나이야...

《이래봐두 내 아직 40 대 녀자들만큼 기력이 펄펄하우다. 아마 내가 군에 있는 혁명사적지관리원을 한다면 믿지 않겠지요?》

《그게 정말입니까?》

내가 놀라자 할머니는 더 열정적으로 손세를 써가며 이야기를 하는것이였다.

《정말 아니믄요. 작가선생, 난 사실 해마다 9월이 오면 여기 금강산으로 오군 한답니다. 금강산에 선녀들이 내린다는 말이 있지요? 내가 바로 <금강산선녀>니까요.》

《예?》

70 나이가 지난 할머니가 자기를 《금강산선녀》라고 하다니...

사실 웃음집이 흔들렸으나 그 무슨 사연이 있는것 같아 할머니의 주름깊은 얼굴을 묻는듯 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나의 심중을 들여다본듯 할머니는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이름이 뭔지 아시우? <금선>이우다. <김금선>이...》

(《김금선》)

나는 조용히 불러보았다.

《그렇지요. 바로 <금선>이우다. <금강산선녀>라는 뜻이지요.》

《<금강산선녀>! 정말 그렇군요. 할머니》

나는 큰 발견이라도 한것처럼 흥분했다.

《바로 우리 수령님과 김정숙어머님께서 나에게 그런 희한한 이름을 주시였답니다.》

《수령님과 어머님께서요?》

크나큰 충격으로 하여 가슴이 뛴뛴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해방후 조국의 방방곡곡 가시는 곳마다에서 이름없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재생의 환희와 함께 뜻깊은 이름을 지어주신데 대한 가슴뜨거운 사랑에 대하여 이미 알고있는 사실이지만 여기 금강산에서 백두산위인들로부터 《금강산선녀》라는 뜻이 담긴 이름을 받아안은 주인공을 만나게 될줄은 몰랐었다.

《어머니,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십시오.》

나는 금선할머니의 나이가 나의 친정어머니와 신통히 똑같은 동갑이여서 서슴없이 어머니라고 불렀다.

《그때가 바로 1947 년 9 월 바로 이맘때였지요. 이제는 60 년세월이 흘렀수다.》

김금선어머니는 감회깊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나갔다.

아버이수령님의 하늘같은 은덕으로 해방전에는 왜놈들이나 잘사는 부자놈들만 물밀듯이 쓸어들어 흥청거리던 금강산에 우리 인민들을 위한 휴양소가 생겼을 때 금선은 휴양각 관리원이 되었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그는 부모들이 아무렇게나 달아준 《부억녀》라는 이름으로 불리웠다. 해방되기 전 왜놈이 경영하는 금강산의 어느 한 음식점에서 부억데기로 일하며 갖은 천대와 멸시를 다 받아온 《부억녀》는 평범한 노동자, 농민들을 위한 금강산휴양소 휴양각 관리원이 된것이 너무도 꿈만같아 일을 하고 또 해도 힘든줄 몰랐고 기쁨속에 흥분속에 날이 어떻게 흐르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평양에서 손님들이 오니 각관리를 잘하고 맞이해야 한다는 소장의 지시를 받게 되었다.

(야! 평양손님들! 그러니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 평양에서 오느분들이겠구나...)

아침일찍 지정해준 각에 올라가 빈틈이 있을세라 방들을 정돈하고 금강산의 들국화며 향기질은 가을꽃들을 꺾어 꽃병에 꽂아놓기도 하였다.

드디어 손님들이 도착하였다. 수수한 옷차림에 첫눈에 인정이 많아보이는분들이였다. 일행중에는 녀성도 한분 있었는데 《부억녀》가 휴양각 방으로 안내해드리며 수집여하사 수고한다고 따듯이 손을 잡아주는것이였다. 세상에 나서 열일곱살을 먹도록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사람대접이였다. 그는 그 순간 철들기 전 얼굴도 익히지 못하고 세상떠난 어머니와 빗값으로 서울에

팔려간 뒤 생사를 모르는 언니를 만난것 같은 친혈육의 정을 느끼었다. 그분은 평양에서 함께 온 손님들을 위해 주전자에 샘물을 떠오기도 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세라 방정돈도 관심하시였으며 지어는 주방에 들러 음식도 손수 지으시였다. 도라지며 고사리, 버섯 같은 산채들로 료리를 만드는 솜씨는 너무도 희한하여 깜짝 놀랄 정도였다. 그리하여 《부엌녀》는 그분을 평양손님들을 위해 함께 내려온 《료리사》라고 제나름대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그 《료리사언니》가 밤에도 쉬지 않고 평양손님들이 든 휴양각 앞뜰을 조용히 오가며 한밤을 밖에서 새우는것이였다. 그날 저녁 깊은 잠에 들었던 《부엌녀》는 달빛이 흘러드는 관리원방 창문을 통하여 마당가의 오동나무 밑에 서계시는 《료리사언니》의 모습을 띄여본 순간 어쩐지 송구하고 미안하여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는 《언니》에게 다가가 왜 주무시지 않는가고 먼길을 오시느라 피곤하시겠는데 이젠 좀 쉬시라고 밀씀올렸다. 《부엌녀》의 눈에는 밤이슬에 젖은 《료리사언니》의 옷이 아프게 안겨왔다. 하지만 《언니》는 웃으시며 왜 자지 않고 나왔는가 그 자신은 금강산에 오니 잠이 오지 않아 그런다시며 《부엌녀》의 눈물겨운 과거사를 들어주시였다.

이름이 《부엌녀》라는 대답을 들으시고는 못내 가슴아파하시면서 이젠 해방이 됐으니 이름도 찾고 행복한 새생활을 마음껏 누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다음날 《부엌녀》는 《료리사언니》와 함께 손님들의 음식을 차리였다. 그때 식당칸으로 들어선 손님들중에서 키가 후리후리하고 안광에 환한 웃음을 지으신분이 그에게 동무의 이름이 《부엌녀》인가고 다정히 물으시고나서 우리 이렇게 만났던 기회에 《부엌녀》라는 이름대신 새 이름을 하나 짓는것이 어떻겠는가고 물으시는 것이였다. 그분의 말씀이 너무도 고맙고 가슴이 뜨거워올라 《부엌녀》는 불쑥 솟구치는 가슴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다. 《부엌녀》라는 이름아닌 이름을 가진것으로 하여 어릴 때부터 얼마나 기막힌 멸시를 받아왔던가. 해방이 되어서도 《부엌녀》라는 자기 이름을 부를 때면 수치감을 느끼곤 하던 그였다. 그자신도 사람다운 이름을 가지고 싶었지만 새로 이름을 지을 엄두를 내지 못하였고 어느 누구도 이름때문에 생긴 처녀의 마음속 그늘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런데... 《부엌녀》는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고 어깨를 떨었다. ...

김금선어머니는 여기에서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내 손을 꼭 잡는것이였다. 그날의 감격이 되살아난듯 그는 눈굽을 찍었다.

《그런데 작가선생. 내가 그때 얼마나 한심했는가 보시우. 글썽 휴양소 사무실에 높이 모신 초상화를 늘쌍 보면서두 그분께서 고마우신 우리의 김일성장군님이신줄을 몰랐단 말이우다. 그리고 유명한 <료리사>로 우러러본 그분께서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어머님이신줄도... 그분들이 금

강산을 떠나가신 다음에야 난 그 사실을 알고 가슴을 쳤지요.》

김금선어머니는 그때처럼 가슴을 쳤다. 잠시후 그는 말을 다시 이었다.

《수령님께서는 인자하신 미소를 지으시고 김정숙어머님께 <이 동무의 이름을 금선이라고 짓는것이 어떻겠소. 금강산선녀라는 뜻에서 말이요.>라고 물으시였다오. 어머님께서는 무척 기뻐하시면서 금선이란 이름이 듣기도 좋고 부르기도 좋다고 나의 손을 꼭 잡아주시였답니다. 그러시면서 <금선동무>하고 나를 부르시더니 <금강산선녀라는 뜻이 얼마나 좋아요. 해방된 조국에서 아름다운 인간이 되라는 뜻이 아니겠나요.>라고 말씀하시였다오. 난 그 말씀이 너무도 고마와 어머님의 품에 얼굴을 묻고 다시금 뜨거운것을 쏟고야말았다오. 기뻐서 울고 고마와서 울고... 그때 수령님께서는 <금강산선녀가 울면 되나.>라고 하시며 친어버이심정으로 나의 마음을 진정시켜주시였고 어리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들고계시던 빨간 사과를 저의 손에 쥐여주시면서 새 생을 받은 저를 축복해주시였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 저에게 이제는 <부엌녀>의 설움을 다 씻어버리고 일을 잘하여 새 조선의 훌륭한 일군이 되라고, 진짜 <금강산선녀>가 되라고 고무해주시였어요. 결국 난 그날 백두산3대장군의 축복속에 <금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다시 태어났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끝났으나 나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사랑의 서사가 계속 울렸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서...

<금선>!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나는 가슴에 차오르는 걱정을 안고 《금선》이라는 이름을 거듭 불러보았다.

《작가선생, 그보다 더 좋은 이름이 어데 있겠나요. 수령님과 어머님께서는 <금강산선녀>처럼 아름다운 인간이 되라고 <금선>이라는 이름을 저에게 주신것이 아니겠나요.

아름다운 인간이란 과연 어떤 인간이겠소. 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을 다름아닌 금강산에 오셨던 못 잊을 그날의 김정숙어머님의 모습에서 보았다오. 우리 수령님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 사소한 빈틈도 없으시고 잠도 휴식도 잊으신 그날의 어머님의 모습을 난 영원히 잊을수가 없어요. 깊어가는 밤 수령님 계시는 창가를 우러르며 친위전사의 모습으로 서계시던 어머님의 영상을 어떻게 잊을수가 있겠나요. 다 알고있는 일이지만 그때 모처럼 마련된 구룡연구경도 수령님의 사업을 보좌하시느라 뒤로 미루신 어머님이 아니나요. 그런데 끝내 구룡연구경을 못하시고...》

김금선은 말끝을 못 맺으며 눈굽을 찍었다.

《그때부터 난 김정숙어머님을 따라배워 한생을 빛나게 살리라 굳게 마음다지고 생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어머님을 항상 마음속에 그리며 어

머님의 뜻대로 우리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을 받드는 길에 깨끗한 양심을 바쳤는가를 심장에 묻군 합니다. 그 물음에 다소나마 떳떳이 대답할수 있을 때 <금선>이라는 내 이름을 맘속으로 불러보군 하지요.》

《금선어머니!》

나는 차오르는 충격을 안고 뜨겁게 젖은 목소리로 부르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밤 나는 잠을 이룰수 없었다. 격정의 파도가 끝없이 밀려와 가슴을 쳤다.

《금선》!

어찌 그 이름을 백두산위인들께서 해방된 조국의 한 처녀에게만 주신 이름이라고 하랴.

지난날 지지리 못살고 천대받던 우리 인민을 인간존엄의 높은 령마루, 행복의 상상봉에 올려 세워주시려고 이 땅에 생을 받고 태어난 우리모

두에게, 아니 이제 앞으로 태어날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생을 축복하여 안겨주신 귀중한 이름이 아니겠는가.

《금선》!

그 이름은 세월이 흐를수록 백두산위인들의 위대한 인간사랑의 역사를 전하여주며 우리 시대 인간들에게 이름과 더불어 빛나는 인생에 대하여 참으로 많은것을 생각해 한다. 사람마다 부르는 이름은 서로 달라도 마음속에 그 이름을 간직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걸어갈 때 얼마나 아름다운 인간의 생이 창조될것인가.

아, 가슴벅차다.

백두산 3 대장군의 축복속에 귀중한 이름을 받아안고 아름다운 생을 창조해가는 우리의 참된 삶이여! 《금선》! 다시금 그 이름을 불러본다. 래일에도 불러볼 그 이름이다.

나의 병사수첩

박현철

군복속에 늘 품고 다녀
보물지고 땀배인 병사수첩
눈비에 함께 젖어
군복과 함께 펼쳐여들고
모닥불에 말린적 몇번이던가

펼쳐봐야 그속엔
별다른것 없었더라
초소로 떠나올 때 나를 바래주던
학창시절 동무들과 선생님들의
이름과 주소들이 적혀있었다

쉽없이 달려가던 병사의 행군길
넘나든 이름모를 그 산발들과
헤쳐 건너간 사품치는 강물을
나는 수첩속에 땀으로 새겨넣었다

초소의 깊은 밤
병실의 유정한 달빛아래서
낮익은 그 산천
그리운 얼굴들을 하나 둘 떠올리며
이 가슴에 조용히 고향의 노래
조국의 숨결을 들려주던 수첩아

기쁠 땐 즐거워서 너를 펼치고
어려울 땐 힘겨워서 너를 찾았다.
때없이 너의 갈피갈피를
나는 남몰래 펼쳐여들고
서툰 자작시를 써넣기도 하였거니

진정 너는
나의 사랑
나의 꿈
고향과 조국의 귀중함을 자래워준
나의 심장의 한부분은 아니었던가

도발하는 원쑤들의 총탄이
지켜선 전호에 비발칠적엔
나의 작은 병사수첩아
네가 철갑처럼 내 심장 감싸주어
나는 이 한몸 불새처럼 솟구치며
원쑤들의 정수리우에
복수의 불벼락을 들부은것 아니었더나

내가 너를 이 가슴에 품고 다녔던가
아니면 네가 나를 따뜻이 품어주었던가
정녕 땀에 젖은 병사수첩은
정다운 내 고향
나를 지켜보던 그리운 얼굴들이었다
그 귀중한 모든것을 지켜갈 병사의 조국이였다

그래서, 그래서... 이 심장 가까이에
너를 품고 사는 병사의 가슴은
원쑤의 총탄이 뚫지 못하는것이다
설사 최후의 백병전에 쓰러진대도
붉은기와 함께
너를 품에 안고 영생하러니
오, 나의 작은 병사수첩아!

가보

김진경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동해천리 《삼복철강행군》을 진행하신데 이어 자강도를 현지지도하시었다는 소식은 나의 가슴을 끝없이 격동시켰다.

나는 다음날로 전천군산업관리소를 찾아갔다.

정춘실소장의 집에서 목계 되어 방에 들어서던 나는 그만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단발머리 꽃나이부터 70 고개에 이르는 오늘까지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술하에서 자라며 찍은 영광의 사진들이 두방의 벽들을 꽉 채우고있었던것이다.

혁명사적교양실을 방불케 하는 수많은 기념사진들... 이것은 위대한 령도자의 품에서 성장해온 정춘실의 한생이기도 하였다.

외태머리쳐너로 매대앞에서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뵙고 기뻐 어쩔줄 몰라하는 그날의 정춘실, 전국상업열성자대회 주석단에서 어버이수령님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송구함을 금치 못해하는 애어린 처녀관매원, 어버이수령님께 《우리 가정수첩》을 보여드리는 정춘실, 풍년작황이 든 강냉이와 누에고치견본을 보시며 그리도 만족해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을 우리르며 행복의 웃음짓는 중년의 녀인, 자기들이 기른 은혹색여우와 해리서의 털가죽을 보여드리는 정춘실소장... 실로 인간의 한생을 두고 깊이 생각하게 하는 사진들이다.

사람이 나서 한평생 자기 존재의 흔적을 후대들앞에 남기는것이 가보라면 이보다 더 값비싼것, 더 훌륭한 가보가 어디 있겠는가.

예로부터 가보는 부모가 물려주는것으로 일러왔다.

해방전 처서군으로 지지리도 못살던 정춘실의 부모는 그에게 이튿석자박에 남겨준것이 없었다.

하나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정춘실에게 이 세상 누구도 줄수 없는 《보물》을 주고 또 주시였다.

인민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하시면서 전국상업열성자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영웅으로 내세워주시고 그후 또다시 《김일성훈장》수훈자로, 2 중로력영웅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되게 해주시는 대해같은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어디 그뿐이라.

가슴을 채우고도 남을 많은 훈장들, 20 여차의 대회참가증들과 주체 83(1994)년 12월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친필서한은 또 얼마나 가슴뜨거운것인가.

나는 동무를 믿는다고,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나라와 인민의 총복으로 사업하고있는 동무를 전당은 적극 지지할것입니다라는 내용으로 보내주신 사랑의 친필서한.

사랑이면 이보다 더 큰 사랑, 믿음이면 이보다 더 큰 믿음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이번에 또다시 상업관리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정춘실소장이 수십년전에 받기한 《우리 가정수첩》의 리용정형을 알아보시고 그들이 한 일을 치하시였으며 정춘실동무야말로 한생 변함없이 충성의 한길을 걸어온 열렬한 애국가, 불굴의 녀성혁명가라는 분에 넘치는 평가를 주시였다.

그리고 그와의 상봉기념으로 뜻깊은 사진을 찍어 대를 두고 전해갈 또 하나의 《가보》를 남겨 주시였다....

하다면 어찌하여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서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춘실소장을 찾으시고 주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 베푸시는것인가.

그것은 인민, 인민에 대한 사랑때문이었다.

일찌기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것, 인민을 잘살게 하는것, 인민을 위해 투쟁하는것보다 더 큰 일은 없다고 하시면서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인민을 위해 애쓰는 일군을 볼 때면 제일로 기뻐 하신다.

어버이의 뜻을 받아들이기는 쉬워도 목숨바쳐 관철하기는 말처럼 쉬운것이 아니다.

남다른 충실성과 완강한 실천력, 여기에 정춘실의 정신적특질이 있다.

인민을 위해 바치고 또 바치는것이 곧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대해같은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정춘실소장은 철석같이 믿고있다.

주민들에 대한 주문공급체계, 다양한 봉사망 확대, 원료기지개간전투, 거름장만과 뽕누에치기, 집집승기르기... 어느 하나 순조롭게 되는 일이 없었고 쉬운 일도 없었다.

걸음걸음 온 육신을 바쳐야 했고 마음의 정을 통채로 기울여야 했으며 때로는 수령판도 가시발길도 걸어야 하는 험한 길이었다.

연약한 어깨에 피멍이 지도록 비탈밭에 거름마대를 저울리고 이슬내리는 누에막에서 남편과 아이들을 생각하며 찬밥덩이를 삼켜야 했던 그 모든 나날들, 때로는 생각지 않았던 오해와 불신으로 말없이 입술을 깨물어야 하는 가슴아픈 순간

들도 있었다.

그러나 돌아설수 없는것이 이 길이었다. 잠시라도 주저앉으면 천어버이앞에 죄를 짓는것만 같아 마음을 견잡을수 없는 그였다.

그저 일손을 잡아야 편안하였다. 일하는것이 체질로 되었다. 일하지 않고서는 순간도 살수 없는 그런 녀인으로 되었다.

로동은 보람을 낳고 보람은 행복으로 이어졌다. 인민을 위해 바친 땀방울은 헛되지 않았다.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아무리 작은 싹도 주옥같이 여겨 내세워주시는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황혼기에 이른 그를 또다시 사랑의 품에 안으시여 힘을 주시고 세상이 다 아는 일군으로 다시한번 내세워주시었다.

하기에 그는 오늘도 일손을 놓지 않고있다. 그라고 왜 할머니대접을 받으며 손자, 손녀들속에 묻혀 여생을 보내고싶은 생각이 없었는가.

하지만 그는 생을 마칠 때까지 군내인민들을 위해 헌신할 마음으로 발머리를 떠나지 않고있다.

강냉이가 우줄우줄 자라고 누에들이 뿔실을 갹아먹는 정겨운 소리를 들어야 편안히 잠을 자는 그다.

영웅은 자기가 한 일이 아직 적다고 생각한다. 만족해할 날은 언제일까? 팔뚝같은 강냉이이삭이 여물고 하얀 고치산이 솟은 원로기지터전에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는 그날일까. 아니면 매대마다 상품을 가득가득 쌓아놓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그날일까... 아마 그 모든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는 결코 만족을 모를것이다.

인민을 위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마음에 끝이 없듯이 장군님을 받드는 정춘실소장의 마음에도 끝이 없는것이다.

바로 그의 그 마음이 누구나 공감하고 부러워하는 진짜 《가보》가 아니겠는가.

처음 놀라웁게 생각했던 그 많은 가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참된 가보는 이렇게 만사람의 가보로 되는 법이 아니겠는가...

나는 천리마에 꿈을 엮는다

리명옥

금시라도 하늘끝에 가닿을듯
눈부신 흰빛을 발산하며
거세차게 창공에 나래편 천리마동상
네앞에 서니
꿈 많던 나의 어린시절이 생각난다

어머니 앞가슴에 번쩍이던 천리마휘장을
작은 내 가슴에도 달아보며 자라던 시절
나래치는 유년의 많고많은 꿈을
저 억센 천리마나래에 엮기만 하면
어이하여 그리도 빨리 이루어졌던지...

그 시절 꿈은 하늘보다 높아
두둥실 높이 띄운 하얀 연에
하늘을 나는 공상을 실었지
봄날의 파아란 진디밭에 앉아
크레용으로 꿈속의 무릉도원을 그렸지

그날에야 어이 알았으리
연을 날리던 하늘 저 멀리
우리의 《광명성 1호》가 날아오를줄
꿈속의 무릉도원보다 더 아름다운
선군시대 새 거리 새 마을들이
내 사는 이 땅우에 그림같이 펼쳐질줄을

내 어린날의 공상마저
공상으로 남겨두지 않은 천리마시대
내 어린날의 꿈마저
꿈으로 남겨두지 않은 선군시대

아 눈부신 기적의 나날들에 살며
지금도 나는 꿈을 꾸다 어릴적처럼
세계를 향하여
더 높이 날아오르는 천리마의 억센 나래우에
열정을 싣고 애국의 마음을 싣고
그 꿈을 꽃피워가는
오늘은 나도 선군준마기수

가슴벅찬 나의 삶, 나의 생활
실기만 하면 천만가지 그 소원 다 이뤄주는
전설의 천리마가 이 땅에 날고있기에
새 세기의 리상 우리의 김성대국은
이미 꿈이 아니다

장군님 태워주신 천리준마에 올라
나는 만복이 오는 꿈을 꾸다
꿈이 아닌 우리의 그 아름다운 래일을
천리마나래우에 실는다
아, 나는 영원히 천리마에 꿈을 엮는다

혁명의 어머니에 대한 위인의 서정세계를 음미하며

- 불후의 고전적명작 《나의 어머니》를 두고 -

리근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릴 때에 어머니한테서 배운것은 일생동안 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제일 오래 기억하고있는것은 어머니가 해준 말씀, 어머니의 모범입니다.》

어머니! 불러볼수록 정답고 언제나 저절로 찾게 되는 부름이다. 하기에 세상에는 어머니에 대한 노래가 많은가싶다.

1. 세월의 눈비를 다 맞으시여
나를 품어 키우신 나의 어머니
만가지 소원을 해아려 보시며
조선의 고운 꿈 꽃피워 주셨네
2. 비 와도 눈 와도 먼 길 떠나도
손 잡아 이끄신 나의 어머니
순간을 살아도 빛나게 살라고
길러 준 그 품을 내 어이 잊으랴
3. 기쁘나 힘드나 부르고 싶은
정답고 미더운 나의 어머니
그 은혜 못 잊어 세월의 끝까지
수령님 받들어 한길을 가리라

어머니 어머니 나의 어머니
뜨거운 그 사랑 내 크며 알았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찌기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나의 어머니》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속에서 스스로없이 불리워지는 어머니에 대한 노래중의 노래이다.

머리 흰 로인들로부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이 노래를 좋아하며 즐겨부르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한가정의 어머니에 대한 노래는 그 자식들만의 노래로 불리워지기에 충분하다. 인생사의 만단사연이나 자식들에게 바쳐진 인정과 사랑, 가슴아픈 일들과 그속에서 흘린 눈물 등 인정세태의 어느 한 측면만을 노래하는 그러한 노래들의 세속적인 의미까지도 사람들은 느끼며 사랑한다. 어머니의 사랑이 어느 정도의 공통성을 가지기때문 일것이다.

하지만 불후의 고전적명작 《나의 어머니》는 그와 다르다.

이 노래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정적, 인정적관점의 세계를 벗어나 일반적, 공통적세계를

초월하여 혁명적, 인생관적견지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는 류다른 정서가 있기때문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나의 어머니》는 짧은 한생을 사시면서도 가정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사랑을 혁명에 대한 사랑,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충성으로 이어오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한생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이 흐르고있으며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을 안으시고 수령님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실 장군님의 의지에 넘친 맹세가 절절하게 흐르고있다.

위대한 어머니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 그 뜨거운 인정과 사랑을 못 잊는 추억도 있고 이 나라 모든 아들딸들이 지닌 가정적도리와 혁명적의리의 세계를 일반화한 여기에 명작이 가지는 영원한 생명력이 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나의 어머니》는 혁명적수령관과 혁명적인생관의 견지에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을 노래한 고전적본보기작품이다.

명작이 제기한 사상주제적과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울으신 혁명적사랑과 그 뜻을 영원히 빛내여가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맹세에 대한 문제이다.

명작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뜨거운 사랑의 한품에 안아 키워주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을 못내 그리워하시는 장군님의 끝없는 흠모심과 어머니의 높은 뜻을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실 장군님의 충정의 세계를 짙은 정서속에 노래하고있다.

명작에 체현되어있는 어머니에 대한 추억은 단순히 키워주고 사랑해주며 내세워주고 모든 소원을 꽃피워준 모성애에 대한 세속적인 추억이 아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베푸신 뜨거운 사랑과 은정에 담긴 숭고한 리념에 그리움과 추억의 원천이 있다. 그 그리움과 추억에 비친 어머니의 모습에 대한 시적형상이 노래에서는 감명깊은 서정으로 흐르고있다.

그 모습은 《세월의 눈비》속에 갇은 풍상고초를 다 겪으시면서도 《조선의 고운 꿈》을 꽃피워주신 어머니의 인자하신 모습이고 눈덮인 백두광야, 통나무귀틀집에서 쪽무이포탄에 자신을 품어 안으시고 자장가를 불러주시던 어머니의 자애로운 모습이며 총탄이 비발치는 항일전장에서 백두령장의 담력을 키워주시던 어머니의 숭고한 모습이다. 항일무장투쟁시기나 해방된 조국땅에서 보

여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 충정이 곧 위대한 장군님의 **《고운 꿈》**으로 되고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게 하는 자양분으로 되었다.

바로 그 모습에는 어서 커서 위대한 수령님을 받드는 나라의 대를보가 되기를 바라시는 어머니의 크나큰 믿음이 어리여있다.

《순간을 살아도 빛나게 살라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고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조선을 온 세상에 빛내일 원대한 포부와 꿈을 키워주신 어머니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그 그리움의 위대한 생명력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순간순간을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지극한 충정의 세계로 수놓아오신것이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슴속에 세월이 갈수록 더 크게, 더 뜨겁게 솟아오르는 마를줄 모르는 샘물과 같은것이였다.

명작은 단순히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울으신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만 노래한것이 아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머니와 함께 계신것은 불과 10 년도 되지 않으시였다. 이 세상 그 어느 위인의 생활에도 없는 가장 짧은 기간을 함께 살아오신 사랑하는 어머니에 대한 추억의 세계속에서 가장 귀중한 진리, 이 나라 모든 가정의 아들딸들이 간직해야 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혁명가의 위대한 충정의 세계, 위대한 지향을 생동하게 밝힌데 명작의 중요한 성과가 있다.

이로 하여 명작은 일찌기 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자질을 체현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풍모를 일반화하고 참다운 위인이 지녀야 할 혁명가적풍모를 혁명적수령관의 견지에서 해명하였다.

명작은 총적으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니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을 바탕으로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받들어나가는 길에서 어머니의 위대한 사상과 숭고한 리념을 꽃피워드릴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타는 의지를 보여주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나의 어머니》**는 예술적형상에서도 원숙한 작품이다.

우선 서정구조에서 예술적형상의 높은 단수를 보여주고있다.

노래는 크게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내용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타는 의지에 대한 세계로 서정을 구획짓고있다.

이를 위해 1절과 2절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노래하고 3절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타는 의지를 노래하는 뉘를 담당수행하도록 절구성을 하였다. 더우기 특색있는것은 매 절 구성에서 후렴구를 설정하지 않고 3절의 뒤에서 하나의 후렴구를 조직하고있는것이다.

하나의 후렴구는 명작의 여운을 조성해주고 주제사상적내용에 맞게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

머님의 뜨거운 사랑을 강조하도록 구성되였다.

명작은 서정구조에서 절별서정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직하고있다. 1절에서 **《조선의 고운 꿈》**을 꽃피워주신 어머니의 자체분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어 가정의 어머니로서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을 노래하고있다면 2절에서 **《순간을 살아도 빛나게 살라고/길러》** 주신 어머니의 숭고한 뜻과 념원을 보여주어 위대한 녀성혁명가, 혁명의 어머니로서의 김정숙어머님의 크나큰 업적을 노래하였다.

여기에 사랑하는 어머니의 뜻과 념원을 꽃피우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지향과 의지를 담은 3절을 배치함으로써 서정의 흐름세를 보장하고 추억의 성격이 짙은 명작의 내용을 시종일관 상승하도록 하고있다. 때문에 명작은 추억의 성격이 짙은 작품들에서 흔히 보게 되는 정적인 서정이 아니라 완만하고 자연스러우면서도 상승하는 동적인 서정이 펼쳐지고 감득된다.

요인은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세부화하지 않은 데 있다. 추억의 구체적인 세부를 설정하면 명작에서 밝혀야 할 주제사상적과제 즉 가정의 어머니, 혁명의 어머니로서의 어머니의 풍모가 어느 한 측면에서만 보여지게 될수 있다. 명작에서는 주제사상적과제의 설정으로부터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에 대한 추억을 세부화하지 않고 일반적서정으로 보여주면서도 김정숙어머님의 숭고한 풍모가 안겨지도록 매 절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명작이 거둔 예술적성과는 또한 언어형상을 폭넓게 하고 정제된 운률을 보장하고있는것이다.

명작에서 쓰이고있는 언어들 폭은 대단히 넓다. 따라서 의미가 심원하다.

《세월의 눈비》, 《만가지 소원》, 《조선의 고운 꿈》, 《비 와도 눈 와도 먼 길 떠나도》, 《순간을 살아도 빛나게 살라고》, 《그 은혜 못 잊어 세월의 끝까지》 등의 언어형상들이 그러하다.

세월의 풍파, 인간이 가질수 있는 모든 소원, 가장 크고 가장 큰 꿈의 의미 등이 언어형상에 깃들어 뜻폭이 넓고 혁명가적인생의 지침이 명시되어있어 무게가 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에 대한 노래의 정서를 보장하기 위한 친근하면서도 부드럽고 인접적인 어휘들이 명작의 통속성을 보장하고 견인력을 보장하고있다.

명작은 7·5 조의 정제된 운률을 보장하면서 은유법, 과장법, 열거법 등의 보조적인 운률조성수법으로 감정정서적색갈을 밝게, 그러면서도 역세계 조성하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나의 어머니》**는 그 거대한 감화력으로 하여 오늘날도 가장 즐겨부르는 어머니의 노래로 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앞으로도 이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르며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을 영원히 우러러모시고 따를 것이다.

조종의 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넋이 깃들어있고 우리 혁명의 뿌리가 내린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입니다.》

슬기로운 조선민족의 넋이 깃들어있고 조선혁명의 뿌리가 내린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 백두산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서 장중하며 신령스러운것으로 하여 예로부터 우리 나라와 조선민족을 상징하는 산으로 숭상되어왔다.

반만년 오랜 세월 우리 조상들이 백두산을 이처럼 나라와 민족의 상징으로 빛내이려는 지향과 념원을 안고 살아왔다는것은 백두산이 조종의 산이라 불려온 그 유래들에 뜨겁게 깃들어 전하고 있다.

조종의 산이라는 말에서 《조종》을 한자로 표기하면 《할아버지 조》, 《마루 종》으로 된다. 따라서 조종의 산을 뜻으로 해석하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산으로 된다.

조상들이 백두산을 조종의 산으로 불려온 그 유래는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것은 그 유래에 여러가지 의미가 담겨져있기때문이다.

그 의미는 크게 다음과 같이 찾아볼수 있다.

우리 조상들이 백두산을 조종의 산이라고 부르며 숭상하여온것은 우선 조상들이 백두산을 우리 나라 모든 산의 조상이라고 여긴데서 유래된것이다.

최근에 우리 나라 산줄기를 전면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체계화하는 과정에 우리 강토가 하나의 백두산줄기로 이루어져있다는것이 확증되였다.

그리하여 이번에 지리학계에서는 백두산에서 시작된 산줄기가 태백산을 거쳐 지리산의 끝점인 구제봉까지로 뻗어갔기때문에 이 줄기를 백두대산줄기라고 명명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백두산이 우리 나라 모든 산의 《할아버지》라는것을 과학적으로 확증한것으로 된다.

그러나 조상들은 이미 오랜 옛날부터 우리 강토가 하나의 백두산줄기로 이어졌다는것을 밝혀왔다.

우리 강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것을 알아보라고 시도한것은 멀고먼 고조선시기부터이다.

고조선시기에는 벌써 산수풍경을 지도화하려고 하였으며 삼국시기에 와서는 우리 나라의 이름있는 산과 봉, 령과 고개 등을 표시한 지도를 만들었다.

고려시기에 와서는 백두산에서부터 조선남해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산줄기이라고 밝힌 《고려도》를 만들었다.

그리고 리조시기에 이르러서는 우리 나라 산줄기와 그 이름들을 체계화한 《산경표》를 만들었다. 여기에서는 우리 나라의 산줄기가 백두산에서부터 남해의 지리산까지 하나의 산줄기로 이루어졌다는것을 규정하였으며 이것을 백두대간이라고 하였다. 또한 리조시기 지리학자인 김정호가 만든 《대동여지도》에서는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를 굵은 선으로 표시하였으며 그로부터 뻗어내린 가지산줄기들을 순번에 따라 선의 굵기를 구별하여 표시함으로써 우리 강토가 백두산줄기로 이루어졌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백두산줄기에 대한 이러한 리해로부터 조상들이 백두산을 우리 나라 모든 산의 할아버지산이라고 숭상하여온데 대하여 옛 문헌들에서도 다음과 같이 전해오고있다.

《아방강역고》와 《와유록》에서는 《백두산은 동북의 모든 산의 조상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동국지리지》에서는 《금강산은… 백두산의 남쪽가지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약파만록》에서는 《묘향산…은 백두산의 한 지맥이다.》라고 하였고 《지리산은… 백두산지맥이 흘러내려 이루어진 산으로서 그 이름도 일명 <두류산>이라고 하였는데 그 지맥이 바다에까지 뻗어있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통하여 조상들이 우리 강토가 하나의 백두산줄기로 이루어져있다는 공지를 담아 백두산을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산이라는 뜻에서 조종의 산이라 숭상하여왔음을 잘 알수 있다.

조상들이 백두산은 조종의 산이라고 부르며 숭상하여온것은 다음으로 백두산을 우리 나라 모든 산천정기의 발원지라고 여긴데서 유래된것이다.

예로부터 조상들은 우리 나라의 산줄기가 하나의 백두산줄기로 이루어졌다는 리해로부터 나라의 모든 산천정기가 다 백두산에 발원지를 두었다고 숭상하여왔다.

그러한 근거로 우리 나라의 풍수설을 통하여 설명할수 있다.

풍수설이란 옛날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못하였던 때 사람들이 집자리나 묘자리 등과 같은것의 방위와 지형이 좋고 나쁘는데 따라 사람들의 화와 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 민속적인 지리학설이다.

지난날 우리 나라 풍수설에 관한 글들에서는 《중국에서 조종의 산은 곤륜산이라고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 조종의 산은 백두산이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지난날 풍수쟁이들은 우리 나라에서 좋

은 명당자리들을 잡기 위하여 백두산에 올라가서 백두산의 정기가 흘러내리는 지맥을 따라 살피곤 하였다고 한다.

조상들이 백두산을 조종의 산이라고 부르며 숭상하여온것은 다음으로 백두산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진산중의 진산이라고 여긴데서 유래된것이다.

진산이란 지난날 조상들이 마을이나 고을, 도읍지나 나라 등의 북쪽에 위치하고있는 큰 산을 숭상의 대상으로 정해놓고 불러온 산을 말한다. 조상들은 이러한 산들이 마을이나 고을, 도읍지나 나라에서 일어나는 란리나 액을 눌러버리고 안녕을 지켜준다고 믿고 숭상하면서 제사를 지내여왔다.

실례로 지난날 도읍지였던 평양의 진산은 금수산이였고 개성의 진산은 송악산이였으며 서울의 진산은 삼각산이였다.

조상들은 백두산을 우리 나라를 지켜주는 진산이라고 숭상하여왔다.

이에 대하여 《태백일사》에서는 《대체로 백두산은 아득한 황막속에 뻗치고 앉아있어 가로는 천리에 뻗쳐있고 높이는 이백리로 솟아있다. 그 위용이 웅장하고 험하며 꿈틀거리는듯 하여 배달 천국의 진산이 되였다.》라고 쓰고있다.

백두산을 나라의 진산으로 숭상하면서 제사를 지내왔다. 이러한 사실은 《국조보감》에도 실려있다.

여기에는 리조 21 대임금인 영조 43(1767)년에 백두산을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는 진산이라고 숭상하면서 제사를 년례로 지냈다는 사실이 자세히 기록되어있다.

지난날 조상들이 백두산을 진산으로 숭상하면서 제사를 지내왔다는것은 운흥군의 운흥사당과 대흥단군의 천왕당, 삼지연군 허항령의 국사당 등의 터를 통하여서도 잘 알수 있다.

백두산을 조종의 산이라 일러오며 숭상한것은 또한 민족의 발상지로 숭상하여온데서도 유래되였다고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5)**에서 **《백두산은 우리 나라 조종의 산으로서 조선의 상징이며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민족사의 발상지이다.》**라고 쓰신바와 같이 우리 조상들은 우리 나라와 민족이 장중하고 신비로운 백두산과 같이 영구불멸하기를 바라는 지향과 념원에서 단군조선과 고구려의 발상지를 백두산일대라고 숭상하여왔으며 고려의 시조 왕건도 백두산의 정기를 받아 태어났다는것으로 숭상하여왔다.

단군은 원래 평양에서 태어나고 평양을 도읍으로 정하고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였다. 그리하여

지난날 우리 조상들은 그를 숭배하여 처음에는 그가 산수수려한 대박산에서 태어났다고 하였고 다음에는 평양에서 가까운 명산인 구월산, 묘향산에서 태어났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중에 민족의 원시조가 어찌 우리 나라에서 어느 한 지역에서만 명산으로 꼽히우는 명산에서 태어났다고 할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우리 나라 산천정기의 발원지이고 모든 산의 조상인 백두산으로 그의 출생지를 옮기여 숭배하게 되였던것이다.

이에 대하여 옛문헌 《동국사략》에서는 《동방에는 처음에 군장이 없었으나 신인이 태백산단목아래 내려왔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그를 임금으로 내세우고 단군이라고 하였다.》고 하였고 《동국문헌비고》에서는 《〈고기〉에 이르기를 신인이 태백산의 신단수아래 내리어 왕이 되였다.》고 하였으며 《규원사화》에서는 단군이 옛날 태백산이라 불려오던 백두산에서 태어나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여땅에서 태어나 졸본에서 고구려를 세운 고구려의 시조왕인 동명왕의 출생에 대하여 《수산집》에서는 《〈발해세가〉에서 이르기를 오늘의 백두산지역은 단군과 동명의 발상지이다라고 하였다.》고 하였으며 《삼국유사》에서는 동명의 어머니 류화가 백두산남쪽 우발수에서 나타난것으로 동명의 출생을 백두산과 결부시키였다.

또한 개성에서 출생한 왕건에 대하여서는 《고려사》에서 왕건의 조상은 백두산으로부터 산천을 두루 구경하며 다니다가 개성에 와서 자리를 정하고 살았다고 하였으며 왕건은 백두산의 정기가 흘러내리어 말머리형상으로 된 송악산기슭의 명당자리에 지은 집에서 태어난것이라고 하여 그의 본향은 백두산이며 그도 백두산정기를 안고 태어났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조종의 산에 대한 유래는 반만년 오랜 세월에 우리 조상들이 백두산을 우리 나라와 민족의 상징으로 내세우고 빛내려는 지향과 념원이 얼마나 높았는가를 가슴뜨겁게 안겨주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한갓 욕망에 지나지 않았다.

오직 우리 수령님께서 백두밀림에서 강도 일제를 쳐부시는 피어린 항일전을 벌리시여 조국해방의 기쁨을 안아오시였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밀영고향집에서 탄생하시여 21 세기 태양으로 솟아오르시였으므로 백두산은 명실공히 주체조선의 상징, 조선민족의 상징으로 온 세상에 빛을 뿌리게 된것이다.

김정설

별

박영철

밤, 밤이 왔다.
어둠이 깃들여 군인들의 대
렬합창소리도 그치고 흥겨운
오락회시간도 지나고 부대안
에는 정적이 깃들었다.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군관학
교 학생이었던 내가 배치지에
서 소대장의 새 직무를 받아안
고 맞는 첫날밤이었다.

별스레 생각깊어지는 마음을
견잡을수 없어 나는 조용히 밖
으로 나왔다.

《잘 왔소. 함께 일해보지요.
부대는 지금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
관으로 높이 모신 16 뿔을 맞으
며 오중훈 7 련대칭호를 쟁취하
기 위해 부글부글 끓고있소...
아마 할일이 많을거요.》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알지
아직은...》

《그렇지요, 하지만 이걸 명심
하라구. 군관이라면 항상 자신
의 어깨우에 놓인 별의 의미를
감득하며 살줄 알아야 한다는
거요. 이게 군관으로서 첫걸음
을 내디디는 동무에게 내가 꼭
해주고싶은 말이요.》

이것은 배치지에 도착하였음
을 보고하려고 찾아갔을 때 노
란 견장우의 자그마한 별을 바
라보며 하던 부대장의 말이었
다.

별의 의미!

나는 가만히 입속으로 뇌어
보면서 고개를 들어 밤하늘의

가사

별들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검은 비로도처럼 삼
라만상을 뒤덮은 끝없는 창공
에는 무수한 별들이 어둠속에
서 보석을 뿌려놓은듯 빛나고
있었다.

별!

순간 나는 그 별들을 바라보
며 깊은 상념에 빠졌다.

잊을수 없는 군관학교의 나
날들이 눈앞에 펼쳐진다.

땀방울이 앞을 가리워 목표
관이 잘 보이지 않는 무더위속
에서 하루에도 수백번이상이나
하군 하던 조준훈련, 얼음이 등
등 떠다니는 강물도 헤쳐건느
던 무장강행군의 낮과 밤들을
어이 잊을수 있으랴.

그 모든 나날들이 모이고모
여서 내 어깨우의 별로 새겨진
것은 아닌지... 밤하늘에 빛나
는 저 별이 내 어깨우에 조용
히 내려앉은것은 아닌지...

파연 별이 안고있는 의미를
생각하니 절로 설레이는 가슴
을 진정할수가 없다.

흔히 사람들은 장령의 큰별
도 하나의 작은 별로부터 시작
된다고 이야기한다. 또 그 별이
지휘관의 등급을 가르는 표식
이라고도 한다. 그 말은 옳다.
...허나 나는 그렇게만 생각하
지 않는다.

문득 훈련장에 휘날리는
최고사령관기의 기폭에 새겨진
원수별이 야외등 불빛에 빛나

며 시야에 안겨든다.

바로 저것이 아니겠는가?

저 원수별을 결사옹위함에
이 땅 수천수만의 별들이 존재
하는 참의미가 있을것이라는
생각이 나의 뇌리를 찔다.

그렇다, 바로 그것이다. 나의
어깨우의 별의 존재의미도 바
로 그것이 아니겠는가.

어이하여 별은 밤에 빛나는
것인가?

세상만물이 다 어둠에 잠겨
깊은 잠에 들 때에도 어둠을
몰아내며 밤을 새우는 전초병
마냥 병사들과 함께 초소를 지
켜 빛나는 별!

평범한 날, 행복한 날보다 조
국에 엄혹한 시련이 닥쳐온 그
순간에 한목숨바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할
별이 되고저 군관-나의 삶이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 원수별을 중심으로
은하수되어 굽이치는 선군혁명
대오속에 하나의 별이 되여 나
의 삶은 빛날것이다.

조국이여, 받으시라! 그대를
지켜 어깨우에만이 아닌 심장
속의 성스러운 별을 안고사는
우리가 있는 한 그대의 하늘은
언제나 푸를것이며 빛나는 태
양아래 오곡백과는 언제나 무
르익을것이니 군관의 첫자욱을
내짚는 이날은 그대의 육탄용
사-또 하나의 결사옹위의 별이
태어난 날로 되리라는것을!

병사시절 그때처럼

김경준

말을 해도 군인정신 기백 넘치고
걸음새도 초소길을 걷던 그 걸음
장군님 결사옹위 성새로 섰던
병사시절 그때처럼 한길을 가리

노래하면 대렬합창 부르던 군가
일본새는 초소에서 익힌 그 숨씨

장군님의 명령을 결사관철한
병사시절 그때처럼 위훈 떨치리

고향떠나 성스러운 복무의 날에
백두령장 슬하에서 자라난 이 몸
어디서나 보답의 길 걷고걸으며
병사시절 그때처럼 한생 빛내리



사랑의 향기

김자경

1

맑은 하늘가에 저녁노을이 피어올랐다. 멧쟁이 위병들마냥 길가에 줄지어선 수삼나무정수리들도 감빛으로 물들기 시작하였다.

군출판물보급소 보급원 서예경은 퇴근길에 오른 사람들로 활기를 띠는 길을 따라 사뿐히 걸음을 옮기었다. 노을빛은 생의 의욕을 복돋아주는 활력소인듯 그의 마음을 류다룬 환희와 기쁨으로 설레이게 해주었다.

방금전에 예경은 신문은 물론 정기간행물의 예약부수가 상반년에 비해 훨씬 늘었다는 소식을 전달받고 기쁜 마음으로 퇴근길에 오른 참이었다.

예경의 눈앞에는 새로 나온 출판물을 받고 기뻐할 독자들의 모습이 선히 떠올랐다.

강성대국의 큰 대문을 활짝 열어제길 높뛰는 희망을 안고 힘과 열정을 다 바쳐가는 독자들, 그들의 손과 손에 정신적양식과 지혜와 재능의 열쇠를 안겨주는 출판물보급원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그의 가슴은 하냥 부풀어올랐다.

즐거워지는 마음으로 걸음을 옮기던 예경은 구두앞고승이에 걸채이는 류달리 새파란 풀잎을 보고 멈추어섰다. 앞쪽에도 풀잎이 한줌정도씩 드문드문 떨어져있었다. 아이들의 장난이라고 생각한 그는 길가에 널린것을 거두어버리려고 말치에 떨어진것부터 주어들었다.

그런데 주어들고보니 장난으로 버린것 같지 않았다. 씹쓰무레한 향기나 풀잎모양새로 보아 그 무슨 약초같기도 하였다.

누가 이걸 흘렸을가... 걸음길로 오가는 사람들을 한명한명 여겨보던 그의 눈길은 제약공장앞 건늬길에 막 들어서는 키 큰 사람에게서 멎었다.

어깨를 구부정하고 무슨 책인가를 열심히 들여다보며 걸어가는 그 사람의 배낭밑에서 이따금 풀잎이 떨어지곤 하였다.

예경은 얼른 손수건을 펴놓고 떨어진 풀잎을 하나하나 주어모은 다음 그에게로 달려갔다.

《여보세요, 배낭에서 이것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달려간 예경은 책에 심취

된 그 사람에게 손수건에 무드기 담긴것을 내밀었다.

그제야 그 사람은 책에서 눈길을 떼며 예경을 돌아보았다.

순간 예경은 전기에 감전된듯 와들 놀랐다. 홍조가 비졌던 얼굴이 삽시에 해쓱해지었다.

파르르 떨리는 긴 속눈썹...

그 사람은 제약공장 현장기사 주성국이였다.

예경은 그가 무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내민 손수건의것을 받아들여야 겨우 자기를 수습할 수 있었다.

《보급원동무가 아니면 이걸 다 흘려버릴번 했군요. 이거 정말 고맙습니다. 헌데 이게 언제 찼겠을가...》

가로수밑에 배낭을 벗어놓고 찢어진 배낭밑굽을 툭툭 치며 주성국은 사람좋게 히히 웃었다.

예경은 자기도 레사로와지려고 애쓰며 그를 도와 배낭아귀를 조여주었다.

《이건 어디에 쓰려는거예요?》

《소독약을 만들어보려고 뜯어웁니다. 소독약도 화학재보다 이런걸로 만들면 더 좋겠기에...》

《?!》

예경은 은근히 놀라며 새삼스러운 눈길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손에 쥐어진 두툼한 책에 눈길을 돌리며 예경은 말없이 머리를 끄덕이였다.

《저... 하반년에도 잡지 <제약공업>을 예약할수 있습니까?》

배낭을 안아올리려던 주성국은 레의 그 순박하고 어진 성정이 내비긴 얼굴에 웃음을 담고 물었다. 예경의 얼굴은 또다시 화끈 달아오르며 눈시울이 떨리였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상대방의 주의를 끌지 못하였다. 찢어진 배낭에 눈길을 돌리지만 앉았어도 예경의 표정변화를 보고 그가 책과 관련된 물음을 피롭게 받고있음을 느꼈으련만... 그러나 예경은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줄 아는 녀성이였다.

《그래요. <제약공업>뿐이 아니라 모든 출판물들의 예약부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요새 <보약과 면역>이라는 새책도 나왔더군요.》

《아, 그렇습니까?》

주성국의 얼굴은 새책에 대한 호기심으로 삽시

에 밝아지였다. 이어 그는 《저… 그 책이 도서관에도 나갔겠지요?》하고 물었다.

《물론 나갔지요. 하지만 제가 드릴테니 한번 오세요. 참, 바쁘실텐데 제가 가져다드릴까요?》

예경은 곡진한 어조로 그의 의향을 물었다. 주성국은 그의 눈길을 피하며 머리를 저었다.

《보급원동무에게야 어떻게… 제가 시간을 내서 가던지. 자, 그럼…》

주성국은 예경에게 머리속여보이고는 따분한 자리를 피하듯 책과 배낭을 긴팔로 걸어안고 제약공장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예경은 온몸에 강직이 온듯 다리가 뻣뻣하여 걸음을 뻘수 없었다. 그는 모두숨을 내그으며 저편으로 걸어가는 주성국의 뒤모습을 이윽도록 지켜보았다. 문득 몇년전에 그에게서 들었던 목소리가 고막을 울리었다.

《동문 정말 인정이 없구만요. 종이꽃처럼 메마르고 향기도 없는…》

예경은 가슴 한복판을 꼬집히운듯 한 아픔을 느끼었다. 칼로 입은 상처는 아물어도 혀로 입은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더니 10 년전이나 오늘이나 그 아픔은 여전하였다. 하지만 그 아픔은 매번 깊은 자책과 반성으로 마무리되곤 한다.

(그래 그건 응당한 평가였어. 너무도 응당한 평가였어.)

예경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멀리 흘러온 처녀시절로 추억의 노를 저어갔다.

…배꽃처럼 소담한 눈송이가 춤추며 내려쌓이던 어느해 겨울, 책방판매원이 결원이어서 립시로 그 일을 보고있던 서예경은 저녁무렵이 되자 퇴근준비를 서둘렀다. 동무들과 함께 새로 나온 영화를 보자고 약속한 그였다.

영화축전에서 금상을 수여받은 영화라고 한다. 축전심사원들은 처음 그 영화를 보면서 사랑하는 청년과 헤어진 주인공처녀가 실랑과 고뇌에 못이겨 자살할것이라고 예측했는지? 하지만 크나큰 슬픔을 이겨내고 나서자란 고향땅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가는 한말기 아름다운 꽃과 같은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는지?

아름다운 세계에 대한 환희로운 충격을 예감하는 그의 가슴은 짜릿한 흥분으로 뿔뿔였다.

이때 달콤한 상념을 깨뜨리며 문기척소리가 들려왔다. 모자와 어깨에 수북이 눈을 얹은 웬 청년이 기름한 얼굴을 창유리에 대고 안을 들여다보며 문을 두드렸다.

청년과 눈길이 마주친 예경은 살래살래 머리를 저으며 출입문에 걸어놓은 《끝났습니다.》라고 쓴 문패를 손으로 가리켜보였다. 했지만 청년은 무어라고 말하면서 그냥 문을 푹푹 두드리었다.

《매일 오세요. 이젠 퇴근시간이에요.》

문가에 나온 예경은 하얀 목도리를 꼼꼼히 여미면서 친절하게 말해주었다.

청년은 어지간한 때군이 아니었다. 그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보며 계속 사정하였다.

《문단은 시간보다 이제 겨우 15 분 지났군요.

오늘 꼭 책을 봐야했는데 좀 살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

예경은 미간에 주름을 잡으며 다시금 량해를 구하였다.

《집에 일이 생겨서… 미안하지만 래일 오십시오.》

《글쎄 사정이야 있겠지요. 하지만 잠간이면 댜텐데 좀…》

청년은 사정조로 말하더니 싱긔 웃어보이며 주머니에서 돈까지 꺼내들었다.

예경의 얼굴은 화끈 달아올랐다.

예경은 더 맞서야 소용없는 입씨름으로 시간만 잃을것 같아 하는수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어깨와 모자우의 눈을 장갑으로 툭툭 털어버리고 책방안에 들어온 청년은 진렬장앞에 다가서서 무슨 책인가를 열심히 찾았다.

예경의 맘속에서는 초조감이 고패쳤다.

귀전에서는 시계의 초침소리가 중폭되어울리고 눈앞에는 발을 구르며 안타깝게 기다리고있을 동무들의 모습이 얼른얼른 안겨들었다.

《그래 무슨 책이에요?》

《저-기 저 책입니다.》

드디어 청년의 긴 팔이 진렬장의 한권을 가리키었다. 예경은 저도 모르게 호-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곧 아연해지고말았다. 하도 간청하기에 무슨 중요한 기술도서려니 했는데 뜻밖에도 산모들의 건강관리에 대해 서술한 책을 보겠다는것이 아닌가.

예경은 터무니없어 쓴웃음을 짓고말았다.

《그 책은 이미 다 팔리고 진렬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해에 대한 관심이 참 대단하시군요.》

새침한 어조로 던진 그의 말에 키가 쩡쨌한 그 청년은 어색하게 웃으며 뒤더수기를 굵었다.

《난 아직 장가들지 않았는데요.…. 이 책은 산모들의 병치료에서 참고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좀…》

무안하기 그지없었다. 이럴 땐 어쩌면 좋을가?…

《다 팔렸다니… 그럼 오늘 하루밤만이라도 좀 빌려줄수 없습니까? 전 제약공장 현장기사 주성국이라고 합니다.》

영화관으로 하냥 달려가는 마음을 애써 다잡으며 예경은 쌀쌀하게 머리를 저었다.

《진렬도서는 팔지도 빌려주지도 않습니다.》

청년은 또다시 사정하였다. 달았던 문도 열게하는 이 때군은 책을 손에 쥔 때까지 암만이고 줄라땀 잡도리였다. 더이상 지체할수 없었던 예경은 규정위반이라는것을 알면서도 또 한걸음 양보했다.

《그럼… 진렬도서여서 팔아주지는 못하겠는데 래일까지 보고 가져오십시오. 모래쵸에 그 책이 또 들어올 예정인데…》

《그래요. 그럼 오늘은 그냥 빌려보고 래일 다시 오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책을 받아든 주성국은 춤이라도 출듯 어깨를 들썩이며 반갑지 않은 인사를 거듭하였다.

예경은 그가 책방을 나서기 바쁘게 영화관으로 반달음쳐갔다. 하지만 그를 맞아준것은 굳게 닫힌 문과 텅빈 마당뿐이었다. 예경은 막 울고싶었다. 아침부터 고대하였던 행복의 꿈이 그 검질긴 폐군의 출현으로 하여 산산이 부서져버린것이였다. 어깨를 떨구고 되돌아서는 예경의 마음속에서는 주성국에 대한 야속한 생각이 모닥불처럼 타올랐다.

그는 왜 하필 오늘 찾아왔을가. 별로 중요치도 않은 책때문에...

그렇게 가버렸던 주성국은 며칠후 온통 보풀이 일고 표지까지 떨어져 다시 해색운 책을 들고 그를 찾아왔었다.

《실험탕크에 빠져서 그만...》

그는 기여들어가는 소리로 중얼거리었다.

예경은 그만 억이 막혀 말문이 막히었다. 변명과 사죄의 말을 거듭할수록 상대방에 대한 고까운 감정만 가중될뿐이였다.

예경은 지그시 그를 쏘아보았다. 귀중한 책을 파손시킨 무지한 인간.

교원의 꾸지람을 듣는 학생처럼 매장앞에 서있던 주성국은 숨웃 앞자락을 더듬더니 돈을 꺼내어 공손히 밀어놓았다. 변상금이라며 사죄의 말을 남긴 그는 스틱스적 책방에서 물러갔다.

그때로부터 두석달이 지난 어느날 그는 다시 책방을 찾아왔다.

《보급원동무, 저 책을 좀 봅시다.》

어쭙은 미소를 지으며 책을 가리키는 그에게 예경은 깔끔한 눈길을 던졌다.

어쨌 저렇게 뻔뻔스럽고 철면피할가.

《동문 무슨 체면으로 여기에 또 왔어요? 동문 책을 볼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 다구요?》

그는 누구에게 떠박질리운것처럼 허우대 큰 몸을 흠칫하였다. 마디굵은 손가락에 힘을 주어 벗어진 장갑을 비틀고있던 주성국은 별빛한 얼굴을 짓수긋하고 떠염떠염 말하였다.

《전번 일에 대해선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동문 정말 인정이 없구만요, 종이꽃처럼 메마르고 향기도 없는...》

그는 황소숨을 흑- 내불더니 책방에서 썩 나가 버렸다...

잊을수 없는 추억에 잠겼던 예경은 누군가 어깨를 치는 바람에 생각에서 깨어났다. 직매점인 수원으로 일하는 그의 언니 일경이였다.

《너 왜 여기 서있니? 누굴 기다리는중이냐?》

그는 혈색좋은 얼굴에 웃음을 담고 친근하게 물었다. 예경은 말없이 고개만 저었다.

《마침 잘 만났구나. 너의 집에 가려고 했는데... 헌데... 너 어디 아프니?》

들고있던 구력에서 헛오이 몇개를 꺼내어 예경의 가방안에 넣어주던 일경은 침울한 기색으로 반응없이 서있는 동생에게 다심한 어조로 물었

다.

어린 나이에 량부모를 잃고 서로 의지하며 자라난 그들 자매간의 정은 남달리 자별하였다. 더우기 예경에게 있어서 언니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다. 동생을 위해서라면 소중한 그 무엇도 유감없이 바치는 언니, 그 언니의 자애깊은 눈길을 대할 때마다 샘솟는 의존심을 감추지 못하는 예경이다.

《저, 언니!》

그 무슨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하듯 예경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였다.

《내 언젠가 말했지? 나를 종이꽃이라고 했다는 그 사람 말이야. 방금전에 그를 만났지요 뭐, 그는 정말 여전하더군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주성국의 모습을 그려보며 예경은 자책어린 목소리로 말하였다. 동생의 말을 자기나름대로 해석한 일경은 다정스레 눈을 흘기였다.

《너 그래서 심란해졌니? 애두 참... 그래 또 책을 부탁하더냐?》

예경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애, 그런 사람과는 아예 상대하지 말아. 그리구 언제든지 처녀의 인격을 모욕한데 대해 사죄를 받아내야 해. 아니, 너 왜 그러니?》

소매단추를 반짝이며 실한 팔을 내흔들던 일경은 크지 않은 눈을 깜박이였다.

《사죄라니? 무슨 사죄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네 가슴에 못을 박았거든. 일생 뽐혀지지 않을...》

《그만해, 언니!》

예경의 목소리는 은연중 높아졌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말하였다.

《언니 말이 옳아. 그는 못난 내 가슴에 못을 박아주었어. 제때에 나를 깨우쳐주었어. 그러니 사죄는... 내가 해야 해.》

어느덧 아이들의 노래소리 울리는 탁아소 정문 앞에 이른 예경은 마당안으로 들어갔다. 돌변한 자기의 태도에 의혹을 담고 망연히 지켜보는 언니의 눈길을 등뒤로 느끼며...

2

《오늘은 어떻게...빨리 들어오셨군요.》

팔애를 안고 집에 들어선 예경은 여느때보다 일찍 들어온 남편에게 정다운 미소를 보내였다.

《헌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실내옷을 갈아입던 그는 책상앞에 묵묵히 앉아있는 남편의 침중한 기색을 살피며 조심히 물었다.

《어깨가 무거워져서 그러오.》

《어깨라니요? 무슨...》

예경의 가슴은 느닷없이 후두둑 뛰기 시작하였다. 리승진은 대답대신 팔애를 뉘름 안아올려 아이의 볼을 핑겨주며 말하였다.

《여보, 난 오늘 당의 신임으로 지배인이 되었소.》

《아니, 당신이 지배인이 되셨다구요?》
은근히 가슴을 조이던 그는 가벼운 탄성을 터
쳐었다.

《축하해요, 은향이 아버지!》

그의 눈동자는 기쁨에 겨워 춤추었다.

《난 믿었어요. 당신이 꼭 큰 일군이 되실거라
구요. 언니도 늘 그랬지요. 머지않아 간부로 등용
되실거라구요. 헌데... 어느 공장이예요?》

리승진은 빙긋이 웃으며 장난기어린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제약공장!》

《제약공장이라구요? 아유 어쩔...》

너학생처럼 두손을 가슴앞에 모아잡은 예경의
온몸에서는 기쁨이 넘쳐났다. 중임을 맡고 어께
가 무거워졌던 리승진도 출렁이는 기쁨의 파도에
휩싸여 벅글벅글 웃었다.

《참, 우리 공장에도 재능있는 기술자들이 많다
누만. 내 그들과 손잡고 본때있게 일할테니 당신
도 날 도와주오. 좋은 책이랑 많이 가져다주고...
그럼 내 신세를 단단히 갚지. 어쩔소?》

예경은 어리광스럽게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러자요. 약속해요. 자, 그럼 축하하는 식사시
간에 다시 헤드릴테니 애를 좀 봐주세요.》

남편의 품에 아이를 안겨준 그는 춤추듯 부엌
으로 내려갔다. 행복의 바다에 두둥실 떠실린듯
마음이 부풀어오른 예경은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요리를 헤드려야겠다고 생각하며 수도앞에 다가
섰다. 바깥쪽을 두드리는 수도물소리가 타악
기의 음향처럼 경쾌하게 들려왔다.

그 물소리에 떠실려 그의 생각은 또다시 나래
를 펴고 치너시절로 날아갔다.

행복의 첫기쁨을 더듬으며...

...치너시절 예경의 용모는 못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낼만큼 아름다웠다. 무용수처럼 날씬하고 유
연한 몸매에 가름한 얼굴, 희고 맑은 살결과 호
수같이 그윽한 눈, 경쾌하고 돌돌적인 걸음새며
맑고 청아한 목소리에는 자기의 아름다움을 의식
한 일종의 위엄도 비껴있어 더 큰 매력을 자아내
었다.

아침이슬을 머금고 피어난 한뼉기 꽃과 같은
청초하고 싱싱한 아름다움이였다.

하지만 예경은 줄지에 향기없고 메마른 종이꽃
으로 락인되였다.

(아, 내가 과연 종이꽃이었던 말인가.)

아름다운 용모로 하여 항시적으로 느끼곤 하던
궁지와 행복감은 쓰디쓴 패배감으로 뒤바뀌었다.

그때로부터 며칠후인 1999년 정초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과학원을 찾으시였다는 가슴벅찬 소
식을 텔레비존과 신문, 방송을 통하여 알게 된
예경은 더큰 피로움으로 모대기였다.

오늘의 이 벅찬 과학중심의 열풍에 마음도 뜻
도 숨결도 같이하지 못한 나. 《고난의 행군》의
찬바람속에서도 과학과 기술을 나라의 운명, 자
기들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과학자, 기술자들과
담을 쌓았던 나. 그리고 재능있고 정직한 기술자
를 함부로 모욕했던 나...

그날 예경은 자기자신에 대한 환멸로 온밤을
 뜬눈으로 세웠다.

(아, 진정 인간의 아름다움은 시대의 숨결과 호
흡을 같이하는 인간, 시대의 박동에 걸음을 맞추
는 인간의 헌신적인 모습에 있다. 그런데 나는...)

예경은 창가에 놓인 수지화분의 종이꽃을 이욕
토록 지켜보았다. 언제인가 꽃방을 찾아가 제일
고운것으로 골라 사온것이다. 하지만 제아무리
모양새를 뽐내여도 향기없고 무미건조한 종이꽃
을 그 누가 사랑하랴.

예경에게는 그 종이꽃이 어쩔지 꼭 자기의 모
습같아보임을 어쩔수 없었다.

운명적인 그밤은 예경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천성적이다싶던 명랑성은 연기처럼 사라
지고 생각많고 과묵한 처녀로 변하였다. 책방안
에서의 규칙적이고 단조롭던 생활방식도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그때로부터 책방보급원이 아니라
공장, 기업소 담당보급원이 된 그의 일과는 이른
새벽 독자들을 찾아가는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공장과 공장건설장들을 누비며 도서보급과 도서
선전도 하고 때로는 기술혁신조의 비례제성원으로
불려진 전기로앞에서 한밤을 지새우기도 하면
서 ...

어느덧 그는 타고난 미모와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일가견, 소박하고 헌신적인 행동의 통일
로 하여 사람들속에서 《우리 보급원》으로 불리
웠다.

그러던 어느해 봄날, 소낙비 억수로 퍼붓는 저
녁무렵이였다.

예경은 읍에서 30여리 떨어진 남천발전소건설
장으로 달리는 자동차에 올랐었다.

《보급원동무군요. 헌데... 비웃은 왜 입지 않고
있습니까?》

모래자갈을 실은 자동차적재함에 타고있던 발
전소건설사업소 돌격대장청년이 비웃을 껴안은채
차거운 봄비를 그대로 맞고있는 예경을 의아쩍은
눈길로 바라보며 물었다.

《책이 젖으면 어찌겠나요. 이진 돌격대동무들
이 요구한 상식자료들과 노래집이구 또 발전소건
설에 필요한 기술문헌자료들이예요.》

뺨을 타고 줄줄이 흐르는 비물을 훔치며 예경
은 자랑스레 대답하였다.

자기에게는 세상에서 책보다 더 신성하고 진귀
한것이 없는것처럼 비웃에 감싸인것을 꼭 껴안으
며 남다른 궁지와 행복에 겨워 예경은 빙그레 웃
음지였다.

《기술문헌이라구요? 어떤?》

서글서글한 눈매가 인상적인 돌격대장청년의
얼굴에서 호기심이 불꽃을 튀기였다.

《락차높이가 2미터미만인 강하천흐름에서도 전
기를 생산할수 있는 극소형 고속회류타빈에 대
한...》

예경은 파랗게 얼어든 얼굴로 기술문헌에 대하
여 설명해주었다. 자동차기관소리속에서 그의 말
소리를 가려들으며 바루 다가앉았던 청년이 열정

적인 눈빛으로 지켜보다가 불쑥 예경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리고는 무릎없이 흔들었다.

《아! 이제 됐습니다. 이거 정말...》

그의 손아귀가 어찌나 세였는지 줌안에 든 처녀의 손은 금시 바스라질것만 같았다. 처녀의 비명소리를 듣고서야 청년은 자기의 무례함을 깨닫고 멧적게 앞머리를 내리췄었다.

《그런데 동문 어디서 이 자료를 얻었습니까?》

방금전과는 달리 돌격대장의 태도는 자못 정중하였다.

《제가 수리공학연구소에 찾아갔더랬어요. 저녁에 기차에서 내려 지금 건설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처녀는 허아래소리로 대답하며 다시금 몸을 웅송그리었다.

《그럼... 기차에서 내리는길로?》

청년은 범접키 어려운 고결한 아름다움에 취한듯 말없이 처녀의 자태를 살피보았다. 비물에 흠뻑 젖은 옷때문인지 추위를 참느라 몸을 웅송그려서인지 비웃에 감싼 책들을 꺼안은 처녀의 체구는 애뉘 소녀처럼 체소하고 가냘파보이었다. 자리에서 일어난 청년은 입고있던 비옷을 와락와락 벗더니 새처럼 오돌오돌 떨고있는 처녀의 몸에 정히 씌워주었다.

《보급원동무, 고맙습니다. 이제 가면 우리 동무들이 환영할겁니다.》

봄비내리던 그 저녁 건설장으로 달리는 그 자동차에 함께 탔던 눈매 서글서글한 돌격대장청년이 다름아닌 예경의 남편 리승진이었다...

《여보, 당신 지금 뭘하오? 물이 넘어나는데...》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에 예경은 생각에서 깨어났다. 그는 수도물을 막은 다음 정찬 눈매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내가 어떻게 당신을 만났을가 하고 생각했어요. 현대... 지배인이 되었다니 기쁘기도 하지만 서운하기도 해요... 왜라니요? 당신은 그저 공장 일밖에 모르실테니까요. 기업관리, 생산계획... 그리구 또 기술혁신...》

리승진은 웅석기를 머금고 말하는 안해의 눈동자를 사랑스럽게 들여다보았다.

《예경이, 당신은 내 마음속의 따뜻한 불이요. 그래서 난 행복해. 여보, 내 앞으로 당신의 자람이 되게 더 많은 일을 하겠소.》

그는 안해의 말큰한 두손을 따뜻이 감싸쥐며 싱긋 웃어보였다.

3

《왜 오지 않을가?》

《출판물주문대장》을 펼치고 도서보급명세를 작성하던 예경의 생각은 또다시 주성국에게 이어졌다. 왜 오지 않을가? 일이 바빠서일가 아니면 나를 기다리는걸가. 그도 아니면...

생각이 번거로와진 예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사무실을 나섰다.

밤새 내린 보슬비로 말쑥하게 목욕을 하고난 마당가의 살구나무가 눈부신 아침햇빛을 받아 더

푸르고 청신한 모습으로 시야에 안겨들었다. 은구슬을 머금고 반짝이는 잎새들사이로 노르스름한 열매들이 빠끔히 얼굴을 내어밀고 머지않아 자기들의 풍요한 계절이 온다고 속삭이는것 같았다.

마당 한켠에 놓여있는 의자를 지나 천천히 율타리밖으로 나선 예경은 꽃송이들이 어우러져 짙은 향기를 풍기는 꽃밭에서 눈길을 멈추었다. 그는 활짝 피어난 함박꽃 한송이를 꺾어들었다. 가느다란 줄기와 갈쭉갈쭉한 잎새에 떠받들려 곱게 피어오르는 분홍색의 호홉진 꽃송이, 휘늘어져 한들거리는 꽃송이에서 그윽한 향기가 풍겨왔다. 예경은 심호흡을 하며 꽃송이를 볼에 부비었다. 팔매의 피부처럼 보드랍고 물기머금은 축축한 꽃잎이 살갗에 마쳐오는 순간 저도 모르게 방긋 웃음이 피어났다. 아, 자연은 알뜰하고 섬세한 너인의 손길을 가졌나봐. 이처럼 고운 색깔이며 기묘한 모양이랑 만들어내는.

그는 사르시 눈을 감고 향기를 들이키었다. 마음은 느닷없이 소녀처럼 부풀어올랐다.

꽃, 꽃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지만 이 아름다움이 종이꽃처럼 겉모습뿐이라면 이토록 사랑을 받지 못할거야.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아름답게 정화시켜주는 이 향기가 없다면...

그래서 사람들은 꽃을 가꾸고 사랑하며 꽃같은 모습, 꽃향기같은 마음을 지니려하는것이 아닐까.

하다면 나는... 보급원인 나는...

예경의 생각은 깊어졌다.

보급원은 새 지식의 선전자, 보급자일뿐아니라 정보산업시대인 오늘 과학자, 기술자들의 참된 방조자,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우리들모두가 과학자, 기술자들의 충실한 밑거름이 되고 자양분이 될 때 과학기술성장과 기름진 토양에 뿌리내린 저 꽃처럼 만발할것이 아니겠는가...

더우기 주성국기사는 지금도 인민들의 건강과 장수에 필요한 그 어떤 연구를 하고있을것이다.

그러니 앉아서 그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직접 책을 가져다주자.

예경은 주성국이 요구하던 《보약과 면역》뿐아니라 참고로 될수 있는 도서 몇권을 더 찾아들고 서둘러 보급소를 나섰다.

《또 좋은 책이 나온게지요?》

아직은 자기네 공장 지배인이 예경의 남편인줄 모르는 제약공장 접수원아바이가 얼굴에 웃음을 담고 그를 반겨맞았다. 그리고는 주성국이 있는 곳을 친절하게 알려준 다음 어서 들어가보라고 빠름한 턱을 건넌 채들었다.

어느덧 예경은 합성직장 2층청사 한켠에 자리잡은 실험실앞에 이르렀다. 문기척소리를 내려던 그는 그만에야 주춤 굳어지었다. 하많은 생각이 불시에 소용돌이쳤다.

《넌 자존심도 없니? 자기를 모욕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하고 비난할 언니의 목소리도 귀전에서 울렸다.

예경은 다시금 문패를 올려다보았다.

《실험실》이라는 글자들이 모두 알곳은 비웃음을 띠고 내려다보는것 같았다.

그 비웃음은 혈관속까지 스며들어와 따듯한 온기마저 싸늘하게 식혀주는듯 하였다. 다음순간 눈길은 들고있는 책뭉치에서 벗었다.

나는 보급원이다. 독자들을 찾아가는것은 나의 의무가 아닌가.

용기를 회복한 그는 조심히 문을 두드렸다. 동안 안을 두었다가 다시금 두드려서야 안에서 응답소리가 새어나왔다. 이윽고 아릿하고 씩씩무례한 약초냄새를 훔 풍기며 문이 활짝 열리었다.

문가에 나온 주성국을 보자 예경의 가슴은 또 다시 널뛰듯 하였다. 하지만 신속하게 자신을 다잡으며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 나온 책을 가져왔습니다. 참고도서도 몇권...》 어떤 환경에서도 주도권을 잃지 않고 자기의 의도대로 대화를 이끌어가기라 다짐하며 예경은 겸손하면서도 여유있는 태도로 찾아온 사연을 말하였다. 주성국의 얼굴은 환히 밝아졌다.

《아,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자. 좀 들어오십시오.》

주성국의 안내를 받으며 예경은 실험실로 들어갔다. 창문열의 큰 책상우에는 실험기구들과 책꽂이가 놓여있고 아래전에는 덮개를 씌운 컴퓨터와 약초봉지들 그리고 약절구가 놓여있었다. 어설픈 실험실을 둘러보며 주춤거리고 서있던 예경은 주성국이 가져다 놓아주는 의자에 앉았다.

《참, 저 컴퓨터는 쓰지 않는겁니까?》

예경이 덮개를 씌운채 책상아래전에 놓여있는 컴퓨터를 보며 물었다.

《왜 안 쓰겠습니까? 요새 동작이 좀 불안정해서 컴퓨터내속을 잘 아는 사람을 청해다가 한번 보이려고... 어디가 고장난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요즈음엔 어떤 연구를 하십니까?》

고심어린 탐구의 흔적이 려력한 책상우의 실험기구들과 펼쳐놓은 여러권의 도서들을 보며 예경은 조용히 다시 물었다.

《연구래야 뭐 그제...》

순진해보이는 주성국의 얼굴에 쑥스러운 웃음이 담겨지었다. 이윽고 그는 호기심을 안고 대답을 기다리는 예경에게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말씀을 받들고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에 맞는 대중의약품을 생산하는데서 절실히 필요한 《Z》용매를 연구하는중이라고 이야기했다.

상대방이 쉽게 이해할수 있게 학술용어에 주해까지 달아가면서 보다 통속적으로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그를 보며 예경은 주성국의 인간적면모앞에 다시금 머리를 숙이었다. 그는 결코 비굴하거나 웅졸한 사내가 아니었다. 지난날의 불쾌감이 수년세월의 해묵은 덩불을 헤치고 생생히 되새겨졌으면만 그 일에 대해서는 갑갑 잊은듯 현현한 태도로 자연스럽게 화제를 이끌어나갔다. 예경은 유심히 그를 바라보았다. 레사로운 표정속에 담겨진 순수한 지성미, 몸전체에서 발산되는 의지의 빛깔...

시약으로 얼룩진 위생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어설픈 환경과의 대조로 하여 더욱더 경건하게 안겨왔다.

얼마후 예경은 가지고온 책들을 그에게 주었다. 책을 받아든 주성국의 얼굴에는 어린애의것과 같은 순진한 기쁨이 담겨지었다. 그는 창문을 향해 책 한권을 펼쳐들었다. 실눈을 지으며 애써 글줄을 더듬던 그는 책상우의 휴대용확대경을 찾아들고 글줄을 들여다보았다.

《시력이 나쁜 모양이지요? 전에는 그런것 같지 않았는데...》

《예, 몇년째 시약과 씨름했더니... 활자가 작은 책은 집사람이 이따금 읽어주기도 한답니다. 허허...》

즐거운듯 소리내어 웃던 그는 다시금 눈길을 떨구고 확대경을 따라 글줄을 더듬어나갔다. 이윽도록 예경이 가져온 책들을 한권한권 펼쳐보던 그는 눈길을 들었다.

《이건 참, 좋은 책들이군요.》

그의 얼굴에 환희에 가까운 웃음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두고보세요.》

예경은 쾌히 머리를 끄덕여보였다.

《고맙습니다. 이거 정말... 참, 우리 공장에 새로 오신 지배인동지 부인도 보급원이라던데 혹시?》

예경은 귀밑머리를 쓸어넘기며 수집은 미소를 머금었다.

《네, 저의 남편이예요. 연구사업에서 애로가 제기되면 언제든 방조를 청하세요. 과학자, 기술자들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이니 성의껏 도와주시거예요.》

이어 그는 앞으로 제약부문에 한한것뿐아니라 참고로 될수 있는 도서들이 나오면 언제든지 가져다드리겠다고 덧붙여말하였다.

이때 가벼운 손기척소리와 함께 문이 방싹 열리더니 단아한 체격의 몸매작은 녀인이 크지 않은 꾸레미를 들고 들어왔다.

《오, 점심식사를 가져왔소? 여보, 인사하오. 출판물보급원동무요. 나에게 참고도서를 가져왔구만.》

주성국은 안해에게 예경을 소개하였다.

귀염성스러운 얼굴에 웃음을 담은 그의 안해 정심은 거듭거듭 고맙다고 말하였다. 정심과 인사를 나눈 예경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바래우려고 문가에 나온 주성국에게 연구사업이 꼭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한 다음 처음처럼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었다.

《그럼 안녕히...》

4

22 시에 도착한 출판물전용차는 정시로 출발하였다. 열차에서 넘겨받은 도서지함들을 차에 옮겨실은 예경은 보급원들과 함께 역전마당을 나섰다.

폭양에 달구어진 도로까지 열기를 뿜어올리던 무더운 여름날씨도 밤이 되자 서늘한 기운을 풍

기였다.

그의 입가에서 저도 모르게 노래가 흘러나왔다. 함께 가던 보급원들도 그 노래에 합세하였다. 비단짜는 처녀의 기쁨을 담은 그 노래를 고운 목소리로 부르던 예경은 문득 출판물보급원들의 사랑과 긍지를 담은 노래는 왜 없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시인들과 작곡가들은 우리들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다 모르는가봐. 내가 그들처럼 노래를 지을 줄 안다면...)

다음순간 엉뚱한 공상에 잠긴 자기를 발견하고 맘속으로 웃었다.

보급소가 바라보이는 건늬길에 들어서던 예경은 아이를 업은 주성국의 안해 정심과 마주쳤다. 종종걸음을 옮기던 정심도 그를 알아보더니 반색을 지었다.

남편의 연구사업뿐아니라 자기들의 가정생활에까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는 인정 많고 세심한 예경을 친혈육이라도 만난듯 반기었다.

《헌데 이밤에 어디 갔다 오세요?》

《출판물들이 왔다길래 역에 갔다 오는 길이에요.》 하고 대답한 그는 정심의 등에 업힌 아이에게 다가갔다.

처음엔 몹시도 낮가림을 하던 아이도 이제는 낮이 익은지 좋아라 팔다리를 버둥거리었다.

그러는 아이의 볼에 입술을 가져다대었다. 젖향기 습배인 고르로운 숨결이 목이며 귀밑머리를 간지럽히었다.

예경은 팔랭이를 낀 아이의 토실토실한 팔을 가볍게 흔들며 물었다.

《아유, 이빠요. 웃는걸 좀 봐. 어쩔... 남이야, 그래 엄마하고 어디 갔더랬니, 응?》

캐득거리는 아이의 웃음소리에 빙그레 미소하며 정심은 뒤쪽으로 머리를 돌리고 아이를 살짝 살짝 들추며 말하였다.

《어디 말해봐. 우린 지금 아빠에게 저녁식사를 가져다드리고 와요 하고 어서 말해봐.》

《?!》

예경의 눈길은 곧 정심에게 옮겨지었다.

《그러니 공장에서 오는 길이군요?》

《예. 애아버진 요즘 일이 바빠서 며칠째 실험실에서 새운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때식을 가져다드리곤 해요.》

남편을 위해 헌신하는것이 커다란 행복인듯 정심은 자랑스레 대답하였다.

야릇한 충격을 받고 잠시 굳어지었던 예경은 어서 가자고 재촉하는 보급원들의 말을 듣고서야 정심과 인사를 나누었다.

보급원들과 함께 걸어가던 그의 눈앞에는 인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하는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 온넛을 불태우고있는 한 기술자의 모습이 오래도록 뜨겁게 안겨들었다.

보급소에 도착하여 도서지함들을 부리운 예경은 잠재워놓은 아이들이 걱정되어 조바심치며 집으로 달려갔다.

남편은 아직 퇴근전이였고 아이들은 다행히도 달콤한 꿈나라에 가있었다.

애들이 차던진 담요를 덮어주고나서 실내옷을

갈아입던 그의 눈길은 느닷없이 삼면거울에 비쳐진 컴퓨터에서 뚝 멎었다.

한동안 거울속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던 예경은 컴퓨터를 향해 뺨 돌아섰다.

문득 실눈을 지으며 애써 글줄을 더듬던 주성국기사의 모습과 함께 그의 실험실 한켠에 껴온 보리썩처럼 놓여있던 보를 씌운 컴퓨터가 동시에 떠올랐다.

(저걸 그에게 가져다준다면...)

그 무엇으로든 주성국기사를 도와주고싶었던 그의 가슴에서 불길이 확 일어번지었다.

(제 컴퓨터를 그의 방에 놓아준다면 자료들과 실험수치들을 입력시켰다가 필요한 때에 재생시킬수도 있고 또...)

다음순간 그는 자기를 꾸짖었다.

(아이참,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걸까. 그건 안돼.)

예경은 가슴속에 타오르는 불길에 찬물을 끼얹으며 매정스레 마음의 문을 닫아걸고 빗장을 질렀다. 집에 가져다놓은지 두어달밖에 안된 이것은 지배인으로 임명된 남편을 위해 언니가 큰 마음을 먹고 마련해준것이다. 지금 웬만한 공장지배인들은 모두 사무실에 컴퓨터를 놓고 생산지휘는 물론 기술적지도를 한다고 주장하는 언니의 그 세심한 인정앞에 그들 식구는 얼마나 감격하였던가, 컴퓨터를 집에 놓으니 소학교학생인 아들애는 늘 거기에 붙어살다싶이 하였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지능교육을 위해서도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것이였다.

(헌데 저걸 누구에게 주겠다고?)

허구쁜 웃음을 지으며 예경은 컴퓨터를 등지고 아이들의 곁에 누웠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는 실눈을 지으며 글줄을 더듬던 주성국의 모습이 컴퓨터와 함께 그냥 얼른거리었다. 야속하기 그지 없었다.

예경은 그 누구에게 항변하듯 자기자신에게 화를 내었다.

(나는 자기자신을 지나치게 구속하고있어. 누군가 말했지. 나는 레사롭게 스칠수 있는 일도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다고... 그러구 쓸데없는 인정이 탈이라고 언니는 만날적마다 말하곤 하지.)

그러나 령정하게 매듭지어버리려는 주성국과 컴퓨터에 대한 생각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집요하고 왕성하게 자라올라 끝없이 괴롭히었다.

다음날 예경은 아침식사를 마친 남편에게 다가앉았다.

《저, 여보!》

안해의 조심스런 부름에 신문에서 눈길을 돌린 리승진은 일순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밤새 고된 신역을 치른듯 안해의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하였다.

(몸이 무척 편치 않은게구나.)

새 직무를 맡고 기업관리의 생산계획을 위해 드바빠 시간을 보내다나니 안해의 건강에 대하여 무관심했다는 자책이 뇌리를 쳤다. 그런데...

《은향이 아버지, 우리 저 컴퓨터를 공장에... 내가지 않겠어요?》

《?!》

《저... 당신네 공장 주성국기사의 컴퓨터가 동작이 좀 불안정한것 같아 그러는데... 저걸 주었으면 해서... 당신생각은 어때요?》

《주동무에게 준다고?》

아닌밤중에 흥두께 내밀듯 하여 어마지무 놀랐던 리승진은 그만에야 피씩 웃고말았다.

《당신은 그저 주동무생각뿐이구만. 헌데 어떻게 저것까지 줄 생각을 다 했소? 몹시 알고싶은걸?》

그는 줄곧 웃음을 머금고 정답게 빈정거리었다.

예경은 담담한 어조로 약초배낭을 지고 오며 책을 보던 일이며 요즈음도 연구로 밤을 새우고 있는데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 또다시 간청하였다.

《여보, 우리 그 사람을 도와주자요. 그 사람은 지금 학생제문제를 풀기 위한 새로운...》

《그만하오. 그건 나도 아오.》

안해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있던 리승진은 곧 정색한 표정을 지었다. 워낙 룡담을 즐기고 장난기와 익살로 사람들과 허물없이 어울리다가도 일단 정색해질라치면 언제 그랬던가싶게 엄하고 랭담해지기까지 하는 그였다.

리승진은 그물그물 피어오르는 담배연기너머로 안해를 건너다보았다. 그 어떤 심적고통과 모지름을 써온 고뇌의 흔적이 력력한 얼굴이었다. 리승진의 생각은 착잡하였다. 그는 공장에 부임된 후 안해를 통하여 주성국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그 시절의 두사람을 리해하였다. 안해의 평가대로 주성국은 재능있고 성실한 기술자였다. 하여 이 정직하고 건실한 사람을 일군으로서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적극 도와야겠다고 결심한 리승진이었다.

지금은 노동자들의 땀보다도 과학자, 기술자들의 두뇌가 더 필요한 정보산업시대가 아닌가. 그는 안해가 지나간 시절의 감정을 털어버리고 주성국의 연구사업과 가정생활까지 성의껏 돕는것을 보고 은근히 감탄했었다.

그런데 오늘은...

잠시후 리승진은 착잡한 생각을 정립하듯 헛기침을 짓고나서 말문을 열었다.

《난 당신이 보급원으로서 기술자들을 도와주는데 대하여 충분히 리해하오. 그러나... 이번 일만은 심중히 생각해보길 바라오.》

그는 랭담한 표정으로 웃방에 올라가 가방을 찾아들고 공장으로 나갔다.

5

《예경아, 너 그게 정말이냐? 뭐 컴퓨터를 주겠다고 했다면서?》

퇴근길에 찾아온 일경은 방안에 들어서면서부터 목소리를 높이었다. 풍만한 그의 가슴은 흥분으로 오르내리었다.

컴퓨터를 누구에게 준다고? 그게 어떤거라고...

그에게도 자식들이 있고 가정이 있지만 동생네를 위해 큰 마음을 먹고 마련해준것인데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인가? 이것은 결국 가정에 대한 무시만이 아니라 자기의 성의에 대한 참을수 없는 무시라고 생각한 일경은 더운 숨을 내쉬며 동생을 말없이 흘려보았다. 어릴 때부터 고집이 세고 엉뚱한데다가 자기중심적이더니...

《너 은향이 아버지가 뭐랬는지 알아? 네가 정도이상으로 그 사람에게 마음쓰다는거야. 물론 웃는 소리였어. 하지만 넌 지금 자기가 지나치다고 생각되진 않니?》

일경은 따지듯 물었다. 그는 침묵으로 자기의 결심을 고집하는 동생이 막 야속스러웠다. 하면서도 년장자다운 너그러운 어조로 계속 말을 이었다.

《나도 네가 그 기사를 돕기 위해 애쓰는것을 기특하게 생각한다. 쉽지 않은 일이니까. 하지만 가정과 남편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 그러니 마음을 고쳐먹구 주부답게 가정에나 충실해라. 너자는 뭐니뭐니해도 남편과 가정에 충실해야 하는거야. 그렇지 않냐?》

일경은 레의 그 손짓과 몸동작으로 자기식의 생활철학을 풀어나갔다.

이윽고 그는 동생의 근엄한 눈빛앞에서 굳어지고말았다.

이 순간 예경에게는 그토록 살뜰하고 친근하던 언니가 갑자기 생판 남처럼 생소하고 서먹서먹하게 느껴졌다.

언니, 언닌 어쩔 그런 말을 그러도 쉽게 할수 있어? 부모없는 우리 형제를 누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대학공부까지 시켜주었어? 언닌 앓아누운 우리 형제의 머리맡에 지켜앉아 긴긴 밤을 세우던 학원선생님들의 그 눈빛을 벌써 잊었어?

부모없는 처녀가 시집간다고 언니의 새 이불을 꾸며주고 잔치상까지 차려주던 동네어머니들의 웃음넘친 그 얼굴들을 정말 잊었어? 나라의 사랑과 인정을 누구보다 많이 받으며 자라난 언니가 어쩌면 그럴수 있어? 자기자신과 가정만을 중시하는 사람이 현명하다고?

언닌 지금 우릴 위해준 모든 사람들을 배반하고있어. 서로 돕고 이끄는 우리 사회의 아름답고 순결한 가풍을 모욕하고있어. 과학의 혜택을 누구보다 많이 누리면서도 강성대국의 넓은 길을 자기들의 피와 땀으로 다져가는 선군시대 과학자, 기술자들을 도우려고 생각지 않고있어.

주성국기사는 지금 이 시각도 언니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건강에 이바지될 의약품연구로 탐구의 칼벼랑을 훑아오르고있어...

예경은 터져오르는 울분을 목새기며 포박포박 말하였다.

《언니, 난 언니가 말하는대로 그렇게는 못살겠어. 그러구 언니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해.》

밤은 소리없이 깊어갔다.

드넓은 검은 용단우에 뿌려진 은구슬처럼 밤하

늘의 별들이 그 무슨 사연을 속삭이며 끝없이 반짝이고 있었다.

예경은 컴퓨터에 마주앉아 부지런히 건반을 눌러갔다. 새로 나온 약학론문을 주성국이 읽기 편리하도록 활자를 큰 호수로 타자쳤다. 요즈음 주성국은 건강상태는 물론이고 시력까지 더 나빠져서 책 한페이지 읽기도 힘들어하는 형편이었다.

예경은 열심히 건반을 눌렀다. 밤이 깊어갈수록 피곤이 잔물결을 일으키며 밀려들었다. 이제는 실험결과와 고찰에 대한것만 타자치면 뭘텐데...

손바닥으로 얼굴을 부비고난 예경은 눈뿌리에 온 신경을 모으며 손가락에 은근히 힘을 주었다.

《항생제문제를 푸는데서 페니실린보다 약물의 항생작용도 세고 효력을 내는 시간도 긴 3세대 항생제를... 항생제를...》

건반을 다독이던 손가락들이 멎었다. 머리가 건반우에 숙어지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가...

예경은 자기의 어깨에 무엇이 놓이는 감촉을 받고 살며시 눈을 떴다.

불일이 있어 공장에 나갔다가 들어온 남편이었다. 샅시에 정신이 가을하늘처럼 맑아지었다.

《깜박 졸았네. 언제 들어오셨어요?》

《지금 막 들어서는 길ियो 자, 이젠 밤도 깊었는데 어서 쉬오. 괜한 수고는 그만두고...》

예경은 호- 한숨을 내그었다.

《옷방에 자리를 봐드리겠으니 먼저 쉬세요.》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옷방에 올라가 이부자리를 펴놓았다.

안해가 컴퓨터에 타자쳐놓은 문헌자료를 한장 한장 번져가던 리승진은 안해가 다시 건반을 마주하려 하자 눈길을 들었다.

《여보, 내 오늘은 당신과 말 좀 해야겠소.》

리승진은 진지한 눈빛으로 안해를 지켜보았다.

《아이참, 당신도...》

예경은 가볍게 웃었다. 하지만 마음은 서글퍼졌다. 어쩔 이리도 내 마음을 몰라줄가. 야릇한 반발심을 느낀 그는 마른침을 삼키며 앓음새를 고치었다.

《여보, 전 다만...》

《가만, 내 말을 마저 듣고 말하오.》

리승진은 안해를 제지시킨 다음 자기의 말을 계속하였다.

《난 사실 어제 주동무도 만나보고 그의 집에도 가보았소. 그를 도우려는 당신의 마음이 무리한 건 아니었소. 또 나나 우리 애들보다 주동무에게 컴퓨터가 더 필요한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당신은 이걸 잃은 남편의 심정과 아이들이 서운해할 눈빛을 상상해보았소? 어디 말 좀 해보오.》

리승진은 대답을 재촉하듯 만년필뿔등으로 책상을 가볍게 다독이었다.

머리를 다소곳하고 옷자락을 매만지던 예경은 천천히 눈길을 들었다. 그는 맘속으로 절절하게 말하였다.

(여보, 남을 위해 자기를 바친 대가로 당하는

곤난이 과연 불행일가요? 세상엔 행복에 대한 일가견도 많고 사람마다 추구하는 행복도 제나름이지요, 누구는 창조의 희열에서, 또 누구는 단란한 가정생활에서... 그래서 행복은 스스로 만족해하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하는가봐요. 언젠가 책을 보니 행복에 대한 이런 말이 있더군요. 행복은 소유에 있는것이 아니라 노력에 있으며 최고의 행복은 덕에 대한 보수가 아니라 덕 그자체에 있다고요.

여보, 나에게도 행복이라 말할수 있는것이 있어요. 당신도 우리가 처음으로 만났던 비오는 그 봄날 저녁을 잊지 않았지요? 바로 그런 날 그런 때가 저에겐 제일로 행복하답니다.

나를 품에 안아 키워준 고마운 내 조국, 당신이 살고 내가 살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내 나라를 위해 나의 적고 보잘것없는 힘이나마 다 바쳤을 때가 말이에요. 그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런 행복을 위해서라면 전...)

예경의 가슴은 불시에 몽클 젖어들었다. 그는 목이 짹 메여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여보, 전 우리 가정을 생각하는 당신의 마음을 잘 알아요.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도... 하지만 난 믿어요. 우리모두가 내 나라의 번영을 위해 자기의 소중한 모든것을 다 바친다면 어려웠던 오늘을 옛말하면서 잘살게 될 그날이 꼭 올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전 어떤 어려움을 당한대도 후회하지 않을거예요.》

가늘게 떨리는 그의 목소리...

《후회하지 않는다?》

리승진은 조용히 되물었다. 순간 그의 얼굴에서 장난기어린 웃음이 스쳐지났다.

《그럼 여기에 수표하오.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다는것을... 난 당신이 반드시 그렇게 대답하리라 믿고 이 <서약서>를 만들었소. 자, 읽어보고 수표하오.》

그는 웃음을 삼키며 서류가방안에서 종이 한장을 꺼내여 내밀었다.

종이를 바라보는 예경의 가슴속에서는 남편에 대한 원망과 야속한 생각이 모닥불처럼 타올랐다.

어쩔 이리도 망칙한 생각을 다 했을가. 이렇게 편협한 사람인줄 모르고 10년세월을 함께 살아왔던가.

지금껏 그의 눈에 비친 남편은 그 인격과 성품으로 보나, 직위와 능력으로 보나 누구보다 원숙하고 완벽한 사람이었다. 성격과 작풍상 부분적으로 결함이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남편의 허물로는 될수 없는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사람의 안해인것으로 하며 사월줄 모르는 금지가 숯불처럼 타오르던 예경의 가슴속으로 열물처럼 쓰디쓴것이 도랑지어 흘러들었다. 그는 강박하듯 다가드는 《서약서》를 받아들였다. 선고장처럼 무서운 내용이 담겨있을 글줄이 날창처럼 울려찌를것만 같아 감히 읽을념을 못하였다. 천근만근처럼 무거운 종이장... 아, 이것으로써

우리 가정의 행복도, 남편에 대한 존경과 사랑도 모두다 깨어진단 말인가. 억울하고 분하였다. 일순 의롭고 아름다운것으로 간주하였던 자기의 생각과 결심이 의심스러워졌다. 내가 괜한 고집을 부리는게 아닐까 무모하고 경솔하게 행복을 깨버리는것이 아닐까.

이제라도 남편과 언니의 뜻을 따를까.

다음순간 자기자신을 꾸짖었다.

인간에 대한 인간의 사심없는 헌신과 사랑은 아름다운것이야. 나는 나의 생각과 결심이 옳았다고 확신해...

그는 자기를 고무하고 격려하면서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헌데 거기에는 공장사무실청사를 통채로 기술준비실, 실험실과 바꾸며 공장 가까이에 새로 지은 살림집을 주성국을 비롯한 기술자, 기능공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는 내용이 찍여져있었다.

예경은 번쩍 머리를 쳐들었다. 그제야 리승진은 벌써 웃었다. 그리고 말하였다.

《여보, 오늘 우리 공장 참모회의에서는 기술자, 기능공들의 연구조건과 생활조건을 더 잘 보장해 줄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었소. 그 모임에서 난 나의 사무실을 주동무의 실험실과 바꾸겠다고 제기하였소. 현장 가까이에서 생산지휘와 경영관리 사업을 하기로 하고...》

내 사무실은 채광조건도 좋고 소음도 없는데다가 공장도서실도 가까이에 있어서 실험실로는 참 괜찮을거요. 거기에 당신 결심대로 우리 집 컴퓨터까지 척 놓아준다면... 어떻소?》

예경은 굳어졌다. 다음순간 펑펑하게 쾅기워졌던 신경세포들이 갑자기 탕개가 풀린듯 가벼운 현기증을 일으키었다. 바르르 떨리는 종이장...

《장난꾸러기...》

야속한 눈길로 남편을 흘겨보던 예경은 사뭇쳐오르는 걱정예 못 이겨 두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가사

리승진은 물결치는 안해의 동그란 어깨우에 다정히 손을 얹었다.

《그만하오. 내가 좀 지나쳤구만.》

안해를 달래는 그의 얼굴에 행복한 웃음이 샘솟아올랐다.

《여보, 당신은 온몸이 사랑으로 가득찬 여자같구만. 자기를 깡그리 바치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여자 그리구 또 고집쟁이..., 그런데 바친다는것이 뭘가? 사랑이 아니요? 이 땅에 대한 사랑, 조국에 대한 크나큰 사랑... 그래서 당신은 더 아름답소. 꽃처럼 막 향기가 풍기누만.》

리승진은 안해의 손을 따듯이 감싸쥐었다. 진정 꽃이었다. 어머니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행복을 가꾸어가는 우리 시대의 화목한 대가 정숙에서 피어난 하나의 작은 꽃송이, 작지만 소중한 진귀한 꽃...

《예경이, 언제나 그렇게 살아주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비오는 그 저녁처럼 말이요. 참 저녁에 당신 언니가 나에게 왔더구만. 자기의 생각이 짧았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과학자, 기술자들을 적극 돕겠다지 않겠소.》

《?!》

《여보. 당신 말대로 우리모두가 이 땅을 위해 사랑을 바치고 힘을 바치고 마음을 바친다면 강성대국의 그날은 더 빨리 올거요. 그렇지 않소?》

예경은 맑은것이 찰랑이는 눈길로 말없이 남편을 쳐다보았다. 더 말해 무엇하랴. 감사의 정, 행복의 정 넘쳐나는 그 고운 눈매가 다 말하고있는 데야...

파르스름한 창가림너머로 별이 웃는 하늘이 바라보였다.

사랑의 향기로 아름답고 사랑의 가풍으로 강의한 이 땅에 머지않아 강성대국의 눈부신 새 아침이 밝아올거라고 별들은 끝없이 속삭이는데...

휘황찬란할 래일을 약속해주는 행복한 밤이었다.

아, 나의 동해

허일

두둥실 해가 뜰 땐 금물결로 설레구요
휘영청 달이 뜰 땐 은물결로 설레이네
동해라 수평선은 천리만리 아득해라
아해 해예요 맑고 푸른 나의 동해
볼수록 아름답네

물머리 잔잔할 땐 각시같이 정겹구요
흰파도 바위칠 땐 장수같이 기세높네
한가슴에 안을수록 이 마음도 넓어지는

아해 해예요 맑고 푸른 나의 동해
내 너를 닮으리라

선군의 제일강산 비껴담은 나의 동해
이 세상 그 누구도 흐리우지 못하리라
강성대국 아침 향해 어서 가자 재촉하는
아해 해예요 맑고 푸른 나의 동해
언제나 안고 살리

불굴의 인간들

백하

밤 2시

밤 2시
급기야 들이닥친
홍수의 바다를 헤쳐 20 리
미친 물을 가르던 군방송차는
벗어섰다 끊어진 큰길 복판에
한걸음도 더 나갈수가 없어

시커먼 물바다는
방송차를 후려치는데
물속에 허리를 잠그고
마이크를 추켜든 군일군
안타까이 소리친다 잠든 마을을 향해

-대홍수입니다
빨리 일어나 소개하시오
모두 야산으로 오르시오

방송차의 웨침소리
야밤을 흔들어깨운다
어둠속에 다급히 켜지는 불빛, 불빛
내리쬐는 물을 밀어제끼며
문들이 열린다 간신히 간신히

백두산 3대장군의 초상화를
정히 모시여 등에 지고
쌀과 가마를 무거이 걸머지고
물을 헤친다 집집마다
온 마을이 일어나 물사태를 헤친다

허나 방송차는 소리친다
울부짖는 홍수를 짓누르고 안타까이
계속 소리친다 한집이라도
단 한집이라도 잠에 취해 못 일어날가봐
-대홍수입니다
빨리 일어나 소개하시오
모두 야산으로 오르시오

밤 2시
야밤을 흔들어깨우는 그 소리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 소리
인민의 운명을 맡아안은
사회주의조국의 그 품이 아니라면
그 누가 20 리 물바다를 헤치고 와서
그리도 안타까이 잠든 창문을 두드려주랴
정녕 그 품이 아니라면
여기 온 마을 천명의 목숨이
순간에 물속에 휘감겨 떠내려갔으리

아, 야밤을 휩쓰는
대홍수도 다 막아주며
인민에게는 한순간의 위험도
한줄기 불행도 미치지 못하게
굳게 품어주는 사회주의 내 나라
인민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회주의 내 나라

한없는 그 사랑속에
홍수의 밤바다우엔
일어섰다 삶의 불줄기가
전지불들을 비치며 기나긴 대오를 지어
불줄기가 뻗어갔다
야산으로 야산으로

대렬은 마침내
올랐다 물우에 솟은 야산에
이제 더는 들리지 않는다
물소리도 그 모든 소음도
허나 그들의 귀가에는
창문을 두드리던 방송소리가
야밤을 흔들어깨우던 고마운 그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박아바이의 미소

아침연기 떠돈다
야밤에 산에 오른 농장원들
가마를 걸고 밥을 끓인다
구수한 연기
야산에 감도는 아침연기

아직도 다섯오리 소고삐를
두손에 거머쥔채
풀밭에 앉은 박아바이
듣고있다 흐뭇하니

와삭와삭 소들이 풀뜯는 소리
푸-푸- 코투레질소리

이제는 없다 덮쳐들던 물사태도
회오리 치는 홍수의 울부짖음도
나무밑엔 소들이 풀뜯는 소리
그는 듣고있다 그 소리가 좋아
노래처럼 흥겨이
입가엔 빙그레 조용한 미소

오 말하라 즐편한 물바다여 검붉은 물결이어
한밤중에 뒤덮친 홍수속에
제 집 식구보다 먼저 작업반생각에
소우리부터 달려간 박아바이
어찌하라 소리지르는 소무리
물에 떠내려가는 소 다섯마리

그는 결연히 굵은 소고삐들을
제 한몸에 다 감았다
자기 한목숨은 버린다 해도
작업반 소는 떠내려보낼수 없어

아우성치는 물 날치는 물속에
고동치는 소 다섯마리를 휘잡아끌고
어떻게 그 사나운 물을 헤쳐나왔더냐
어떻게 십리 물속을 뚫고나왔더냐

온몸엔 시퍼런 바줄자리
뼈를 조이던 바줄자리

허나 그 모든것은 다 씻은듯
웃고있다 그는
소의 폭신한 뺨을 어루쓸며
물속을 헤쳐나온 소 다섯마리가
그저 대견해 웃고있다

아 장군님
올해 농사를 잘 지어
인민생활을 높여야 한다고
그리고 간곡하게 하신 당부
어서 강냉이이삭바리 실어나르고
폭폭 등성이밭들을 갈아엎을 그 생각

그의 얼굴엔 밝은 미소
오직 농사일만을 생각하는
아바이의 그 미소를
그 어떤 물사태인들 지을수 있었으랴
한없이 맑고 깨끗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미소

지원물자차 달린다

지원물자차 달린다
비발은 아직 몇지 않았는데
웃이며 쌀이며 그릇들을
그득그득 싣고 차가 달린다
수해복구로 하얗게 뒤덮인
사람들의 가슴을 뜨거이 흔들며

차창앞에는 큼직하게 써붙인
붉은 글발- 《지원물자차》
차들이 모두 길을 비킨다
사람들도 트랙포르도 길을 내준다
눈들이 빛난다 모두 바라본다

큰물에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은
수해지역 인민들이 가슴아프시여
이른새벽 온 나라 곳곳으로
장군님 떠나보내신 지원물자차
달린다 전속력으로 그 사랑을 싣고

비 내리는 수백리길
큰물이 휩쓴 수백리길
차창가에 앉아 달리는
나의 눈앞에 후더이

후더이 어려오는것은 무엇이던가

무너지듯 쏟아지는 폭우속에
함남도의 공장들을 현지도하시던
장군님의 그 모습
비발속의 그 모습

눈앞이 흐려온다
뿔야니 흐려온다
사나운 무더기비는
다 맞으시면서
집앞과 폭막에서 밥을 끓이는
인민들의 그 모습이 떠올라
잠 못 드시는 아버지장군님

오 그 사랑 그 은정 안고
지원물자차 달린다
크나큰 사랑이 흐른다
어서 받아안으라 큰물피해입은 인민들이여
세상에 다시없는
장군님의 위대한 사랑이
뜨거이 뜨거이 수해지역으로 흐른다

결사대원들

울부짖는 밤
물바다에 잠긴 마을엔
다만 남았다 스무명만이
허리치는 물을 헤쳐
농장원들은 모두 산으로 떠나보내고
리소재지엔 오직 그들뿐

퍼붓는 비발
소리치는 홍수
승엄하니 솟은 하얀 벽체에
창문들 빛나는 연구실앞에

쌓고쌓인다
무거운 흙마대를 가슴가슴에 안아

그들은 잊어버렸다 아예
물속에 든 자기 집 식구들은
무너졌은 자기 집, 떠내려가는 가장집물은
그들의 뇌리엔 오직
연구실을 지켜내야 한다는
그 하나의 생각뿐

범람하는 서흥강격류속에

좌르르- 좌르르-
 꺼져내린다 제방쪽은 씹없이
 그들은 몸이 그대로 흙마대가 되어
 막아섰다 쏟아지는 물을

삶을 주고 행복을 준
 백두산 3대장군의 불멸의 위업 빛나는 연구실
 한목숨 물속에 바친다 해도
 어찌 한줄기 물인들 흘러들게 하라
 한줌의 감탕인들 덮이게 하라

한목숨바쳐 연구실을 지킴은
 크나큰 영광이고 행복이거니
 막아섰다 밀려드는 물바다를
 스무명의 붉은 가슴팍이
 노호하는 난바다와의 대결
 하늘과의 대결전이 벌어졌다

물바다속에 48 시간
 그 어데 밥을 굶일 땅조박도 없다

물에 잠긴 날강냉이이삭을 씹으며
 물속에서 이틀밤 이틀낮
 서로서로 어깨결고
 싸웠다 한덩어리가 되어
 힘차게 힘차게 혁명가요를 부르며

제방은 그 몇번을 끊어져나갔던가
 허나 대홍수의 난바다도
 끝끝내 허물지 못했다
 스무명의 가슴팍을
 물이 낮아진다
 그대로 붉은 제방쪽이 되어 선
 결사대원들의 가슴팍우에서
 차츰차츰 물이 낮아진다

이제는 물이 소리를 죽여
 흐른다 공손히 흐른다
 아,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억세인
 수로결사옹위의 불굴의 정신앞에
 마침내 하늘도 머리를 숙이었다

백배로 강해졌다

내 그 무슨 말로
 그대들의 아픔을 위로하랴
 그 무슨 말로 그 쓰린 마음을 가시여주랴
 그대들 사흘만에 산에서 돌아왔건만
 집은 꺼져 지붕이 땅에 엷혀있고
 양복장은 부서지고 집집승은 떠내려가고...

문화주택 온 마을이 한산한 집터뿐
 허나 그대들은 흙에 묻힌
 자기 집 가산에는 손을 대지 않고
 나섰구나 흙지계를 지고 삽을 들고
 수로둑부터 살리자고
 나갔다 논벌로 온 작업반이

끊어져나간 수로둑에
 흙을 쏟고 또 쏟는다
 누구도 말이 없다 바빠 움직일 뿐
 허나 그 어디에도 없다 어두운 얼굴은
 농장의 젖줄기 수로부터 이어놓자고
 떨쳐나선 그대들

나는 후더운 마음으로 흙을 담아준다
 장군님 보내주신 일꾼들
 그대들의 질통에 흙을 얹어주니
 고마움에 젖은 밝은 눈빛 밝은 눈빛
 누군가 노래를 부른다 선창이 울린다

조선속담

그러자 온 작업반이 노래부르며 달린다

뒤에는 무너앉은 농장마을
 흙에 묻힌 옷장을 그대로 두고
 감탕에 덮인 자기 집 가산을 그대로 두고
 수로둑을 쌓는다, 온 마을 온 작업반이
 눈시울이 젖어든다 더운 눈물이 불을 적신다
 아, 세상에 이런 고결한 인민이
 그 어데 또 있으랴

우리 장군님 정녕
 이런 인민을 키우셨는가
 가장 아름답고 충직한
 백절불굴의 우리 인민
 광란하는 홍수의 폭풍우속에서
 백배로 일떠섰다
 백배로 더 강해졌다

방송차여 노래를 불러다오
 광광 이 가슴을 두드려다오
 흙지계를 지고 댈다 온 작업반이 댈다
 그들의 눈에는
 더 눈부시게 일떠선 래일이 보여왔다

봉산군 큰물피해복구전투장에서-

건강, 위생

- 만일 건강하고 아름답고 총명하기를 바라거든 걸음을 걸으라
- 병없이 잠만 자면 잠에서 병이 온다
- 생명은 운동에 달려있다
- 자기 병을 숨기는 사람은 약을 구하지 못한다
- 배불리 먹고 인차 자면 독약을 먹은것과 같다



리기창

무더기비가 한동안 대줄기처럼 퍼붓고 지나간 후였다. 귀밑머리가 희속희속한 머리우에 농립모를 눌러쓴 박근지로인이 논둑이 넘쳐날듯이 소용돌이치며 흐르는 탕수에 논밭의 흙이 씻겨내릴것만 같아 온몸이 물주머니가 된채 논둑을 보강하고있었다. 이때 멀리서 《외할아버지-》하고 부르는 야무진 목소리가 귀따갑게 울려왔다. 박로인이 삽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고 보니 중학교를 졸업하고 조선인민군대에 나간다던 외손자 수남이가 홍조가 비낀 동심한 얼굴에 방글방글 웃음을 피우며 줄달음쳐오고있다.

《아니, 네가 어떻게?》 박로인은 주먹으로 허리를 두드리며 잔주름이 얹힌 눈언저리에 드리운 수북한 장미를 쫓긋거렸다.

《제가 입대하기 전에 가족사진을 찍는데 어서 가시지요.》

수남이는 가쁜숨을 몰아쉬며 박로인의 흙물에 후줄근히 젖은 옷소매를 끄당겼다.

《뭘, 가족사진을?!》

박로인은 두툼한 입술사이로 하얀 덧이가 드러나는 수남이의 귀염성스러운 얼굴을 대견스럽게 바라보며 되뇌었다.

《그래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외할아버지를 꼭 모시고 오라고 했어요.》

《하던 일을 마저 끝내고 인츰 갈테니 좀 기다리라고 하거라.》

박로인은 삽으로 진흙을 듬뿍 떠서 논둑에 퍼올렸다.

그러자 수남이는 삽자루를 빼앗으며 볼부은 소리를 했다.

《야 참, 지금 당장 흙이 비물에 씻겨내려가는 것도 아닌데 빨리 가시지요》

《그래두 그렇지. 일기예보를 듣자니 앞으로 무더기비가 또 내린대구 하더라》

《그럼 사진은 언제 찍구요?》 수남이의 머루알 같은 눈이 울퉁해진다.

《원 애두, 사진이야 후에 찍어두 되지만 비물에 씻겨내려간 기름진 이 밭의 흙은 다시 메꿀수가 없지 않느냐? 좀 기다리란데두...》

박로인은 시뭇이 웃으며 다시 삽자루를 잡는다.

《다른 농장원들이 어련히 하지 않을까요. 이제 보니 외할아버진 제가 입대하는것보다 그 일이 더...》 수남이가 말끝을 맺지 못한채 코날개를 벌름거리다가 돌아서는데 박로인의 목소리가 그의 발목을 잡는다.

《애야, 너한테 좀 물어보자.》

《뭘데요?》하고 수남이는 의혹이 실린 눈길을 돌렸다.

《네가 엿그제 신체검사를 받으러 갈적에 무더기비로 논둑의 흙이 패우는걸 보구서두 그냥 지나쳤다는게 정말이냐?》

박로인이 넌지시 묻는 말에 수남이의 귀밑은 삽시에 화끈 달아올랐다. 사실 자기는 그날 다림질까지 해서 입은 교복이 흙탕물주머니가 되면 어떻게 신체검사를 받겠는가고 한동안 속씨름을 하며 바재이다가 그냥 지나갔었다.

아래입술을 감쌀며 붉어진 얼굴을 짓속이는 수남이를 여겨보던 박로인이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그러지 않아도 네가 군대에 나가기 전에 한번 말해주자던 참이었다...》 박로인은 담배쌈지를 꺼내 담배를 부시력부시력 말아물더니 삽자루우에 영치를 붙이고 앉는다.

수남이는 언제 보아도 인자하고 너그럽기만 하던 외할아버지가 오늘따라 새삼스럽게 무슨 지청구를 하려나싶어 운동화코숭이로 발밑의 흙을 비비며 서있었다.

이윽고 박로인은 입에 문 담배를 몇모금 빼금 빼금 빨더니 웅글은 목소리로 말머리를 뺀다.

《수남아, 시간이 좀 가더라두 이 외할아버지가 고향의 흙에 한가닥 명줄을 걸고 살아온 지난날을 얘기할테니 명심해 듣거라...》

박로인은 추억의 갈피속에 묻혀있던 지난날을 더듬듯 아직 비구름이 드리운 남쪽하늘가를 감회 어린 눈길로 추연히 바라보는것이였다...

×

박근지의 고향은 남강원도 가리산기슭의 궁벽한 산촌이였다. 왜놈세상에서 제땅이 없어 갖은

고생을 다하던 그의 가정은 어느해인가 가리산기슭 오대천가의 개바닥을 손톱이 빠지도록 개간하여 간신히 몇마지기 논을 풀어 첫 농사를 지었었다. 했지만 왜놈을 끼고 그 아군의 땅을 야금야금 제 손아귀에 넣던 최병택이주놈한테 빗값대신 그 논배미마저 빼앗기고 소작살이를 하게 되었다.

아무리 진땀을 흘리며 흙을 뿌려야 제 땅이 없는 탓으로 입에 풀칠조차 하기 어려웠다. 언제면 제 땅에서 마음껏 농사를 지어볼 밝은 세상이 올까 손꼽아 기다리던 어느날, 읍에 갔던 박근지는 왜놈이 패망하고 나라가 해방됐다는 꿈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 너무도 뜻밖의 소식에 놀라 다급히 집으로 달려온 근지는 부모들과 함께 춤까지 덩실덩실 추며 기뻐했다. 허나 일제놈들을 대신하여 남녘땅을 강점한 미제로 하여 그들은 예나 다름없이 소작살이신세를 면치 못했다.

어느날 그들이 허기진 몸으로 논물이 자갈자갈 끓는 땀별속에서 논김을 매고있는데 지주 최병택이가 비대한 몸집을 뚱직거리며 나타나서 씨벌었다.

《더운데 수고들 하네그려. 다름이 아니라 박근지 자네 래일 아침 군에 올라가야겠네.》

《갑자기 거긴 왜요?》 박근지는 별깃별깃한 눈의 낮짝에 눈총을 쏘며 물었다.

《임자가 군에 병집됐으니 그리 알고 군에 가보라구. 어쩔-》

최병택은 헛기침을 하며 나비수염을 쓸어만졌다.

그러자 그들은 와들 놀라며 몸을 떨었다.

《놀라지. 우리 아들 민수도 벌써 소령이 된걸 알테지. 만일 불응할 땐 군기피자로 감옥귀신이 된다는걸 잊지 말게.》

구장까지 겸하는 최병택은 개화장을 휘두르며 엄포를 놓고 사라졌다.

청천벽력같은 소리에 그들은 맥없이 논쪽에 털썩털썩 주저앉아 땅이 꺼질듯 무거운 한숨을 토했다. 해방전에는 박근지의 형이 징병으로 끌려가 목숨을 잃었는데 오늘은 또 막내아들마저...

《하늘두 무심하구나.》 근지의 아버지가 주먹으로 가슴을 두드리며 하늘을 쳐다보는데 어머니는 웃고름으로 눈굽을 찍으며 쿵쿵쿵 울음을 삼켰다. 박근지의 머리는 사뭇 착잡한 생각이 연줄 갈마들며 어질어질했다. 한마을에서 자란 소꿉시절의 동무이던 칠성이며 왕섭이도 피뢰군에 끌려가 그 무슨 복침전쟁연습중에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았는가.

허나 성득이만은 요행 분계선을 넘어 북으로 갔다고 한다. 그때 성득이가 헐썩거리며 찾아와 자기와 함께 가자고 할적에 박근지의 생각은 종잡을수없이 산란했었다.

...성득의 권고에 저도 모르게 그의 눈길이 향해진 곳은 푸른 벼포기들이 미풍에 설레이는 논밭이었다. 비록 소작땅이나마 지금까지 온 식구가 거기에 명줄을 걸고 근근히 목숨을 부지해오지 않았는가. 박근지는 후들후들 떨리는 손으로 땀별에 뜨거워진 논배미의 흙을 움켜쥐었다.

그러는 박근지의 모습을 지켜보던 성득이가 그

의 손목을 덥석 잡으며 재촉했다.

《여, 그게 근지네 땅이라면 몰라도... 어서 가자구. 미군놈들과 최병택놈과 같은것들이 살판치는 이 땅에선 그 아무리 피땀을 뿌리며 흙을 뿌려야 소용이 없네.》

했으나 흙을 움켜쥔채 한동안 모지름을 쓰던 박근지는 그의 손을 밀어버리며 도리머리를 저었다.

《성득이, 하지만 우리같이 빈털터리 맨손으로 북에 간다 한들 땅을 공짜로 줄것 같은가?》

그래두 고향엔 명줄이나 이어갈 소작땅이라도 있질 않나. 나는 차마 이 고향땅을 버리곤 갈수가 없네. 발걸음이 떼지지 않는단 말이야. ...》

박근지의 목갈린 음성은 물기에 젖어있었다.

《임마, 무지렁이같이 지주놈의 소작땅이나 뿌지려면 맘대로 하게. 하지만 앞으로 반드시 후회할 때가 있을거네. 두구보라구, 제 땅이 없이는 목숨조차 이어갈수 없다는걸 말이네...》

성득이는 그의 동가슴을 주먹으로 팡 쥐어박더니 어둠속으로 사라지었다...

지금 생각하면 성득이를 따라가지 못한것이 어지간히 후회되기도 했다. 더구나 그후에 듣자니 북에서는 농군들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나누어주었다는것이 아닌가! 그때 북에 간 성득이도 혹시 것처럼 갈망하던 땅을 받고 마음껏 농사를 짓고 있지 않을까? 성득이는 제 땅이 없이는 목숨조차 이어갈수 없다고 말했었지...

한동안 머리속에 이런 생각을 굴리며 앉아있던 박근지는 자리를 차고 벌떡 일어섰다.

《제길, 군대에 끌려가 개죽음을 당할바엔 차라리 성득이처럼 북으로 가구말겠어요.》

씨근덕거리며 웨치는 박근지의 옷소매를 와락 끄당겨잡으며 어머니가 머리를 저었다.

《이것아. 우릴 두고 혼자 가면 어찌라는거냐, 안된다, 안돼...》

어머니의 애절한 소리에 가슴노리가 저릿해진 박근지는 두툼한 입술을 지그시 감쳐몰며 꼭 움켜쥔 주먹을 부들부들 떨뿐이었다. 그럴적에 엽초부스레기를 대통에 꼭꼭 담아 빼꼼빼꼼 들이키던 아버지가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이왕지사 다 함께 가면 어떨고?》

《아니, 함께 말이에요?》 돌연 박근지의 부리부리한 눈에서 불꽃같은것이 번쩍이고 가슴은 마냥 걸잡을수없이 활랑거렸다.

그러나 어머니는 필쩍 뛰며 도리머리를 쳤다.

《령감, 무슨 소릴 하시우? 그래두 지금껏 소작땅이나마 허비며 숨줄을 지탱해오지 않았수. 예로부터 농사군들은 죽어도 난알종자를 배고 죽는 다구 땅을 등지고 떠나서 한시도 살수 없다우.》

그러자 아버지는 말문이 막힌듯 한숨이 실린 담배연기만 폴폴 내뿜었다.

《하긴 땅빼기야 우리같은 농사군들의 명줄이지.》

아버지의 한숨 섞인 말에 울대를 떨며 서있던 박근지가 논배미의 흙을 와락 쥐어뿌리며 목갈린 소리를 질렀다. 《젠장, 이따위 땅빼기가 우리거라면 몰라도... 그러나 듣자니 북에선 우리같은 소작농들한테까지 땅을 무상으로 준다지 않나요.

이제 나까지 병집되어 끌려가면 최가놈이 년로하신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소작땅이나마 줄것 같어요?》

아들의 말을 듣고보니 그럴상식기도 하였다.

기동처럼 의지하고 살던 아들을 죽음터로 보내고 소작땅까지 빼앗긴다면 어떻게 살아간단 말인가. 더우기 성득이가 북으로 넘어간 후 놈들은 그의 부모들이 얻어부치던 소작땅마저 빼앗다 못해 《월북자가족》이라며 마을에서 쫓아버리지 않았던가. 그런 불행을 당할바에는 죽든살든 세식구가 함께 가는것이 옳지 않음가? 그리고 무사히 분계선만 넘어선다면 그토록 바라던 땅을 받게 될수도 있을것이 아닌가.

박근지의 부모들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끝에 그날밤 드디어 아들을 따라 집을 떠났다.

분계선쪽으로 뻗은 도로마다 군용차들이 런던아 꼬리를 물고 달리기때문에 그들은 줄곧 험한 산길을 타고 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놈들이 또 북침전쟁연습을 벌리는 모양이군.》

박근지는 전조등을 껌벅거리며 길이 미여지게 북쪽으로 질주하는 군용차들을 굽어보았다. 아직 그들은 놈들이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략전쟁을 도발하기 위해서 분계선이 위치한 전방으로 대무력을 집결시킨다는것을 모르고있었다. 하기에 분계선이 가까와질수록 도로뿐 아니라 산과 들판에 이르기까지 위장망을 씌운 포진지들이며 무장을 한 괴뢰군들을 가득 실은 군용차들이 더욱 자주 그들의 눈에 띄었다. 겁에 질린 눈길로 사위를 두릿두릿 살피며 혈금씨금 뒤편으로 어머니가 사뭇 떨리는 어조로 말했다

《여보 령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수?》

《무슨 당치 않은 소리... 이제 돌아가면 놈들이 그냥 들것 같소?》 아버지가 마뜩지 않게 부릅뜬 눈을 흘기며 통명스럽게 반박을 했다.

《어머니, 힘드시면 제게 업히세요.》하고 박근지가 떡판같은 등을 돌려댔다.

《됐다, 그냥 가보자. 쫓겨...》 어머니는 혀를 차며 치마끈을 조여매더니 비칭비칭 따라섰다.

박근지는 저도 모르게 가슴이 저릿해서 어머니의 가냘픈 손목을 부여잡고 걸어갔다. 앞으로 갈수록 우거진 잡관목과 덤불에 옷자락이 찢기고 발부리가 걸쳐여 걸음을 옮기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군청색하늘에 떠있던 조각달마저 느닷없이 구역구역 밀려드는 겉레조박같은 먹장구름속에 숨어버리자 사위는 장막이 드리운듯 캄캄해지었다. 그래도 산등성이에 다문다운 천 철쭉들에서 풍기는 꽃향기가 그들의 답답하던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그들이 산등성이를 넘어서는데 먹장구름을 찢으며 퍼런 번개불이 번쩍거리더니 비꼬치가 후둑후둑 떨어졌다. 그들은 날이 밝기전에 분계선을 넘어야 한다는 생각에 걸음발을 더욱 다우쳤다. 이윽고 비바람에 태질하듯 설레이는 무성한 갈대숲에 들어서는데 갑자기 야음을 찢으며 날카로운 호각소리와 함께 《서-라-》하는 양갈진 악청이 날아왔다.

뜻밖의 정황에 부닥치자 와뜰 놀라며 어찌할바를 몰라 잠시 주춤거리던 그들은 갈대숲속으로

허둥지둥 달려들어갔다. 뒤이어 자지러진 총성이 울리더니 박근지의 손에 이끌려 허덕허덕 뒤편으로 어머니가 그만 비명을 지르며 털썩 쓰러졌다.

《아니, 어머니!》

박근지가 저고리에 피가 질벅히 내뻗 어머니를 불안고 마구 흔들었으나 이미 숨이 졌는지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총성에 놀란 갈새들이 푸드득 푸드득 날아오르며 새된 소리를 지를뿐이었다.

이때 전지불빛이 그들의 동공을 찌르듯 차갑게 비쳐들며 카빙총을 든 놈들이 저벅저벅 다가왔다.

《이 어리석은 작자들아, 머지않아 저 북쪽땅도 우리 자유세계치하에 속하게 된다는것도 모르는 촌놈들이 어데로 도망치자구 흥...》 비웃을 걸친 장교놈이 코나발을 불더니 장박은 군화로 박근지의 머리를 걷어찼다. 순간 박근지는 두눈에서 번개불같은 불씨가 튀기는듯 아찔한감을 느끼며 의식을 잃은채 그 자리에 쓰러졌다...

그가 의식을 간신히 회복하고 눈을 떠보니 쇠살창이 드리운 경찰서감방이었다. 그는 놈들에게 어머니를 잃은데다가 월북시도와 군기피자의 《죄》 명을 쓰고 아버지와 함께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뇌리를 치자 눈앞이 아찔해졌다.

꿈결에조차 갈망하던 땅 한치나마 밟아보기는 커녕 앞으로 다시는 자기 발로 땅조차 밟아보지 못한채 차디찬 감방의 세멘트바닥에서 억울한 죽음의 시각을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

그는 생각할수록 가슴이 터지는것만 같아 두손으로 쇠살창을 움켜쥐고 설분을 터뜨렸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쇠살창밖으로 청청한 하늘가를 멀리니 내다보며 입버릇처럼 하늘도 무심하다고 한숨을 내뿜었다.

그날도 박근지가 놈들의 악착한 고문과 심리적 압박감으로 하여 가슴을 쥐어뜯으며 온밤을 몸부림속에 지새운 이른새벽이었다. 느닷없이 새벽대기를 뒤흔들며 분계선쪽에서 둔중한 포성이 쿵-쿵- 울려왔다. 그러자 박근지는 장교놈이 뇌까리던 수작이 문득 상기됐다. 놈들이 드디어 북침전쟁을 일으킨것이 분명했다. 아니게 아니라 경찰서의 경관놈들도 분주당을 피우며 돌아왔다.

《아버지, 그 장교놈의 수작이 옳았군요. 이제 어떻게 될가요?》

불안감에 휩싸인 박근지는 쇠살창너머에서 간간이 들려오는 포성에 귀를 강구고 묵묵히 서있는 아버지를 돌아보며 사뭇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는 눈두덩에 수북이 덮인 장미를 쫓긍거리며 쇠살창밖으로 시선을 향한채 평시와는 다른 우선우선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념려말아. 제관놈들이 아무리 북침을 한들 강도 일제를 쳐부시고 나라를 해방하신 김일성장군님께서 만백성을 위한 정사를 펴시는 공화국북반부를 감히 호락호락 타고앉진 못할게다.》

박근지는 배심있게 말하는 아버지의 얼굴을 새삼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아닌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이 현실적으로 확증되었다. 영웅적조선인민군대의 드세찬 반격으로

하여 놈들은 얼음판에 박밀리듯 밀려나고 그들이 간혀있던 경찰서는 물론 그 린근지역까지 인민군대의 손에 해방되었다.

헌데 감방자물쇠를 총탁으로 까고 그들을 맞아 준것은 몸매가 다부지고 소위견장을 단 인민군대 군관과 키가 꺾두룩하고 어깨가 짹 벌어진 인민군전사였다.

《여 박근지! 동무가 어떻게?》

자기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서는 그 전사를 얼트름히 쳐다보며 박근지는 자기 눈을 의심했다.

《아니, 이 성득이를 모르겠나? 나야! 나!》

그제야 박근지는 성득이를 알아보았다. 위장망을 한 군복차림에 오각별이 빛나는 철갑모를 눌러쓰고 보충을 멘 그의 모습에서 지난날 더벅머리머슴군의 흔적은 조금도 찾아볼수 없었다.

《성득이, 뒤늦게나마 북으로 가다가 그만...》

박근지는 오열을 삼키며 어머니가 희생된 전후사연을 떠듬떠듬 전하였다.

《내가 무지렁이였잖지. 성득이, 자네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텐데...》

고개를 떨구는 박근지의 눈굽에는 물기가 맺혔다. 그러자 성득이는 그의 손을 힘있게 잡으며 걱정말고 다시 고향에 돌아가라고, 이제는 남녘땅에도 공화국북반부에서처럼 농민들이 토지를 분여받고 자기 땅에서 마음껏 농사를 지을수 있을것이라고 말하였다.

《아니, 그게 정말인가?》 너무나 꿈같은 소리에 그들은 손등으로 눈귀를 훑치며 되뇌이였다.

《정말이구말구요. 고향에 가면 직접 보게 될겁니다. 그럼 온 남녘땅을 해방시킨 다음 고향땅에서 다시 만납시다.》

성득이는 이런 말을 남기고 남진하는 대오를 따라 남으로 나갔다. 성득이를 바래온 근지와 그의 아버지는 발길을 돌려 고향으로 갔다.

고향으로 다시 가보니 성득이가 하던 말이 옳았다는것을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볼수 있었다.

지난날 한숨과 울음소리만 들리던 고향땅은 해방의 기쁨으로 명절처럼 설레이고있었다. 그런데다가 인촌 토지개혁이 실시되어 근지네한테도 지난날 피땀을 들여 개간했다가 빼앗겼던 오대천가의 논배미는 물론 최병택놈의 기름진 땅까지 분여되었다.

참으로 꿈같은 세상을 만난것 같았다. 땅을 분여받던 그날 박근지는 토지개혁사업에 파견되어 나온 일군들이 밭머리마다 큼직한 표말뚝을 박아주는것을 보자 아버지와 함께 도끼날을 시퍼렇게 갈아들고 가리산으로 올라가 미출한 참나무를 찍어왔다. 일군들은 근지와 그의 아버지가 정성껏 다듬어가지고온 표말뚝에 그들이 주인임을 확인하는 글발을 써서 밭머리에 세워주었다. 박근지네는 자기들의 이름이 씌여진 표말뚝을 어루스어 보기도 하고 가없이 넓게 펼쳐진 무연한 논밭을 뿌듯하게 흐려지는 눈길로 바라보기도 하다가 저마끔 논배미의 흙을 두손으로 움켜진채 어깨를 들먹이였다. 손끝에 피멍이 지도록 두지고 가꾸면서도 노상 가지고싶어 애타하던 땅이 오늘은 자기네 땅으로 되었다는것이 그들로서는 잘 믿어지지 않았다. 흙을 움켜진 그들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근지야, 우리 이 표말뚝결에다 보란듯이 공화국기발을 세워놓는게 어떠냐?》

박덕삼이 장알박힌 손바닥으로 표말뚝과 논배미의 흙을 부드럽게 비다듬으며 불쑥 입을 열었다.

《다시는 그 어떤 놈들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공화국기발을 꽂아놓자요.》

그리고는 람홍색공화국기발을 가져다가 표말뚝결에 세워놓았다. 표말뚝을 감싸주듯 바람결에 펄럭이는 공화국기발을 점토록 바라보던 박덕삼은 뜨거운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걱정을 더뜨렸다.

《장군님, 저희들의 평생소원을 풀어주시어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농살 본때있게 지어서 대해같은 은혜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던 박근지의 눈굽에도 구슬같은 눈물이 펴- 고여올랐다.

분계선을 넘으려다가 숨진 어머니의 시신조차 묻어주지 못하고 오늘날은 기쁜 날을 맞고보니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또한 이제부터 정성답아 가꾼 땅에서 우줄 우줄 키돋움하며 설레일 벼이삭들이 지난날처럼 최병택의 고간으로가 아니라 자기네 집 쌀독마다 가득가득 채워지리라하는 기쁨이 가슴 뿌듯하게 차오르기도 하였다.

박근지는 그날 밤 아버지와 같이 공화국기발이 휘날리는 표말뚝밑에 네활개를 펴고 나란히 누웠다. 미풍에 벼포기 설레이는 소리가 마치도 땅의 숨결처럼 정답게 들리는가 하면 개구리들의 개굴-개굴- 청높이 우는 소리는 흥겨운 풍년가인양 가슴을 흔들었다. 그리고 청청한 밤하늘에 쟁반같이 두둥실 떠오른 둥근 달은 병실병실 축복의 웃음꽃보라를 뿌려주는듯싶었다. 박근지는 부드러운 흙을 한웅큼 쥐어 코깎을 내뿜며 흙냄새를 맡아보기도 하고 불에 비비기도 하였다.

지난날엔 그 얼마나 쓰디쓴 고역의 피땀에 찌들었던 흙이었던가. 허나 지금은 그 흙이 어머니의 살결처럼 부드럽게 느껴지였다. 하기에 온밤 논머리에서 지새운 그들은 이른새벽부터 벼포기마다 구슬땀을 뿌리며 허리꺾 사이도 없이 겹싸게 일손을 다그쳤으나 조금도 힘든줄 몰랐다.

빅근지는 돌피를 와락와락 뿜으며 코노래까지 흥얼흥얼 불렀다.

한편 마을에서는 청년들이 온 남녘땅을 해방할 결의를 안고 저마다 앞을 다투어 의용군에 입대했다.

가슴에 꿰는 피를 조국에 바치니
영예로운 별빛이 머리에 빛난다

하늘땅이 진감하도록 군가를 부르며 노도처럼 남진하는 인민군장병들의 대오를 따라 총을 메고 나서는 마을청년들의 모습을 보자 박근지의 가슴은 저도 모르게 들먹거렸다. 문득 군복에 총을 멘 성득이의 릉름한 모습이 떠올랐다.

성득이도 공화국북반부에서 분여받은 땅을 가꾸다가 전선으로 용약 달려나왔는지 않는가.

박근지는 그들처럼 자기도 의용군에 입대하고 싶었으나 늙으신 아버지 혼자 농사를 지어야 하리라는 생각이 갈마들자 마음 한구석이 연추가 매달린듯 무거워지었다. 하기에 그는 논길을 매다가도 저도 모르게 호미자루를 놓고 전선으로 쏠지어 떠나는 청년들을 우두커니 바라보곤 하였다.

그러는 아들의 마음속을 가늠했던지 아버지가 희석해진 머리에 얹었던 농립모를 벗어두고 한 동안 활활 부채질하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근지야, 너도 의용군에 입대하는게 어떠냐?》

순간 박근지의 가슴은 널뛰듯 활랑거렸지만 잔 주름살이 얼기설기 얹힌 아버지의 얼굴이 시야에 안겨들자 고개를 숙이였다.

《왜 그러느냐?》 하고 아버지가 다시 물어서야 그는 머리를 들며 나직이 뇌이였다.

《아버지, 혼자 일없겠습니까?》

《이 애비 걱정말구 떠나거라. 좀 힘에 부쳐도 네 뭍까지 말아할테니 ... 미군놈들과 최치주놈들 같은것들을 영영 없애버려야만 이 땅도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게 아니냐.》

한뼘 조각살이의 무거운 멍에에 짓눌려 살아온 아버지의 입에서 그런 말이 울려나오자 박근지의 가슴은 몽클했다. 하긴 표말쪽에 공화국기발까지 스스로 띄운 아버지가 아닌가!

박근지가 의용군으로 떠나는 날 아버지는 논밭에 우뚝 솟은 표말뚝을 가리키며 언제나 저 표말뚝을 생각하며 싸운다면 마음이 든든해질것이라고 하면서 승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함께 벼가을을 하자고 당부하였다.

손때묻은 호미자루대신에 총을 받아안은 박근지는 아버지의 뜨거운 배운속에 고향땅을 떠나 미제침략자들을 짓부시며 남으로 진격하는 인민군대의 대오를 따라서 락동강에까지 나갔다.

그는 전우들과 같이 검푸른 락동강물에 손을 잠그면서 머지않아 승리의 기쁨 안고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지와 함께 벼가을을 하리라고 생각했다.

허나 뜻밖에도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길에 오르게 되었다.

일시적인 후퇴의 길이였으나 걸음걸음 적과의 치열한 전투로 이어가는 간고한 로정이였다.

발걸음마다 락엽이 밟히고 군복깃으로는 차디찬 가을바람이 선뜩선뜩 스며들었다.

낮과 밤을 이어 강행군을 다그치던 어느날 박근지네소대는 그의 고향마을을 바라보이는 가리산술속에서 하루밤을 숙영하게 되었다.

락엽속에 떨어진 밤송이와 도토리를 찾아 줏고 있던 박근지는 봄에 아버지와 함께 이 가리산으로 도끼를 차고 올라와 논밭에 세우려고 표말뚝감으로 찍었던 참나무밑둥을 보자 저으기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짐을 느끼였다. 맑은 진액이 방울방울 맺힌 참나무밑둥을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어루만지던 그는 추운한 눈길로 어둠속에 잠긴 고향마을쪽을 점도록 바라보았다.

그날 정성껏 다듬어세운 논배미의 표말뚝은 아직 그대로 서있을까? 아버지 아직 고향땅에 남아

계시는지 아니면 복으로 후퇴하셨는지...

그의 뇌리에 번거로운 생각이 거웃처럼 얹히여 갈마들며 마음이 무거워지였다. 온 남녘땅을 해방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벼가을을 함께 하자며 오래도록 손저어 바래주던 아버지의 모습이 그의 눈앞에 밝혀왔다. 그러자 홀로 계시는 아버지와 함께 분여받은 고향땅을 놈들의 발밑에 그냥 남겨놓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가슴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근지동무가 고향생각을 하는 모양이구만.》

그의 등뒤에서 귀에 익은 부드러운 음성이 들렸다. 그가 돌아서보니 몸매 다부진 소대장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다정히 묻는것이였다.

《동무의 고향이 여기 가리산기슭이라고 했지.》

《그렇습니다, 소대장동지!》 차렷자세를 취하며 대답하는 박근지의 어조는 어딘가 모르게 향수에 젖어있었다.

《아버지 홀로 계시지 모를텐데 오늘 밤중으로 얼핏 갔다오라구!》

《고맙습니다, 밤중으로 다녀오겠습니다!》

박근지는 기쁨으로 뒤설레이는 가슴의 파동을 다잡으며 깎듯이 군모에 손을 갖다붙였다.

《혹시 놈들이 마을에 들어왔는지도 모르니 조심히 갔다오라구. 그리고 아버지를 여기로 모시고 오시오!》 소대장은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알았습니다!》 힘차게 대답한 그는 날개라도 돋힌듯 산발을 타고 달음쳐 내려갔다. 어려서부터 이곳 가리산지형을 손금보듯 꿰뚫고있는 그여서 눈에 익은 자드락길을 따라 단숨에 고향마을 근처까지 갈수 있었다. 구름속에 자취를 감추었던 보름달이 얼굴을 내밀자 사방은 은백빛으로 밝아졌다. 그는 달빛을 담아시고 주절대며 흐르는 오대천에 놓인 징검돌을 건너 구수한 난알향기가 풍겨오는 논뚝에 엎드려서 누렇게 익은 벼이삭들이 설레이는 논벌을 바라보았다.

그전날 아버지와 함께 논밭머리에 박아세웠던 표말뚝이 달빛속에 어렴풋이 보이자 그의 눈시울은 뿌옇하게 흐려졌다. 세월이 흐른대도 비바람과 눈보라에 넘어지지 않도록 땅을 깊이 파고 흙을 다져서 든든히 세워놓았던 표말뚝이였다. 하기에 그에게는 가련한 전투의 나날 언제나 그 표말뚝이 단순히 표말뚝이 아니라 그처럼 갈망하던 땅을 분여해준 고마운 인민의 나라, 자애로운 어머니조국의 상징처럼 그의 눈앞에 안겨오곤 했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표말뚝이 억척같이 박힌 고향땅을 원수놈들이 짓밟도록 그냥 남겨놓고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기듯 아파났다. 하다못해 아직 아버지자 집에 남아계시면 표말뚝이나마 파내어 어디에나 깊이 간수하도록 부탁할생각으로 자리를 털고 일어서는데 마을쪽에서 개짖는 소리가 들리더니 전지불이 땡겨거리며 누군들인지 논벌로 걸어오는것 같았다. 다시 논뚝에 엎드려서 그쪽을 주시하던 근지는 흠칫 놀랐다. 뜻밖에도 너덜너덜 찢기운 덧저고리를 걸친 아버지를 앞세우고 달빛에 번뜩거리는 도끼를 거머쥔 최병택이와 권총을 빼든 그의 아들 최민수놈이 뒤따라오고있는것이 아닌가! 최병택이손에 거머쥔 도끼를 보니 자기가 표말뚝감을 찍어오던 바

로 그 도끼가 분명했다. 그러고보면 놈들이 그 도끼로 아버지를 무참히 살해하려는것이 아닌가 싶었다.

박근지는 치를 떨며 놈들을 향해 기관단총의 방아쇠를 당기려다가 산에 있는 전우들을 생각하며 지그시 마음을 늦췄다.

이윽고 놈들은 아버지를 표말뚝앞으로 끌고가더니 전지불로 표말뚝에 새겨진 글발을 비쳐본다.

《뭘, 이 땅이 네놈의 땅이라구? 그리구 뭘 여기다가 공화국기까지 띄웠었다면서? 당장 네놈손으로 이 표말뚝을 찍어버려라.》

최병택이 이렇게 씨벌이며 아버지에게 도끼를 내밀었다. 그러자 아버지는 표말뚝앞을 자기 몸으로 장승처럼 막아서며 목갈린 소리로 웨쳤다.

《이놈들아, 이게 어떤 표말뚝이라구 감히 찍어버린단 말이나. 절대로 못 다친다!》

겁에 질려 비실비실 뒤걸음치던 최병택이 목갈린 소리로 악을 썼다.

《저놈을 당장 쳐죽이지 못할가!》

그러자 민수놈이 달려들어 총탁으로 아버지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쳐 쓰러뜨렸다.

《령감손으로 못 찍겠다면 내가 이 총으로 저 표말뚝을 벌둥지처럼 박살낼테다.》하고 민수놈이 권총방아쇠를 당기는 순간에 쓰러졌던 아버지가 불사신처럼 몸을 솟구쳐 표말뚝을 막아서다가 가슴을 움켜쥐며 다시 쓰러졌다.

《아버지-》

근지는 피타게 웨치면서 놈들에게 복수의 총탄을 물방으로 퍼부어대며 달려갔다. 총에 맞아 쓰러지는 놈들의 비명소리가 귀전에 들려왔다. 귀뿌리에 바람이 일도록 숨가빠 뛰어가보니 온몸이 붉은 피에 젖은채 표말뚝을 껴안고 숨진 아버지의 복두칼구리같은 손에는 한줌의 흙이 움켜쥐여 있었다. 분여받은 한치의 땅이 얼마나 소중한지 표말뚝을 자기 몸으로 감싸안고 숨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한줌의 흙을 움켜쥐었으랴!

박근지는 목밑으로 터져오르는 오열을 삼키며 아버지가 손에 움켜쥔 피물은 흙을 감싸안았다.

그러자 아버지의 더운피에 젖은 흙의 온기가 그의 온몸으로 후덥게 흘러퍼지는듯싶었다.

마가을바람에 날려온 나무잎들과 흙가루가 아

버지의 몸우에 떨어졌다.

박근지는 총가목을 으스러지게 짹 틀어잡으며 마음속으로 웨쳤다.

(아버지, 김일성장군님께서 찾아주신 우리 조국 땅의 한줌의 흙이라도 다시는 원수놈들이 짓밟지 못하도록 이 한목숨 바쳐 끝까지 지켜싸우겠습니다!)

이윽고 박근지는 자기네 온 가정의 운명과 피줄기처럼 이어졌던 고향땅과 아버지가 목숨바쳐 막아섰던 표말뚝이며 피에 젖은 한줌의 흙을 다 시금 가슴속깊이 새겨안고 그곳을 떠났다...

×

박근지로인의 이야기를 듣던 수남이가 손등으로 눈굽을 문다지며 어깨를 들먹거렸다.

박로인은 그러한 수남이를 돌아보고 그의 어깨 위에 손을 얹으며 저으기 가라앉은 어조로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오늘 너한테 새삼스럽게 왜 이런 얘길 하는지 알만 할테지... 지난날 내가 살던 그 고향 땅과 수남이가 자라난 이 고향땅은 물론 앞으로 내가 총잡고 지켜설 전호가의 흙에도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의 운명의 뿌리가 명줄처럼 깊이 내려져있다는걸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그래야만 내가 잡은 총대가 잠시나마 흔들림이 없이 조국을 든든히 지킬수 있는거다...》

수남이는 물안개가 뿌잇하게 서리는 눈을 습벅이며 논둑에서 한줌의 흙을 쥐여들고 보았다.

자기가 이제까지 무심히 밟고 지나다니던 고향의 흙이 지금은 어쩐지 새롭게 감촉되는듯싶었다. 이윽고 그는 삽자루를 틀어잡고 도랑물에 침뎅 뛰어들어서 두팔에 힘살이 켜기도록 진흙을 듬뿍 듬뿍 논둑에 퍼올리기 시작하였다. 빨강게 달아오른 얼굴로 구슬같은 눈물과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진흙을 걸싸게 퍼올리는 수남이의 담찬 모습을 대견히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박근지로인의 두툼한 입가에 부드러운 웃음발이 사뭇이 피여났다.

경구, 격언

· 《시의 내용이란 진리에서 나옴이라 되는데로 가져다 붙일수 없다.》

· 《잘된 시는 오래 짓씹지 않아도 제 맛이 난다.》

· 《위대한 시는 평이하야 한다. 시는 날조된 것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큰 시인은 과거와 미래를 련결하는 오늘의 시인이 되어야 한다. 바로 그는 예언자이다.》

· 《시는 샘물과 같아 돌에 부딪치면 흐느껴 울부짖고 못에 고이면 거울처럼 비친다.》

· 《급계만 하려다 알맹이를 놓치면 시의 참뜻을 잃어버린다.》

· 《시는 온갖 재능의 내적인 불이다.》

· 《시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이다. 이 불꽃은 태워주고 덥혀주고 비쳐준다.》

《종소리》는 바다넘어 울리어온다

오영재

조국통일의 대경륜이 마련된 역사적인 6. 15 북남공동선언 채택의 감격이 온 민족의 가슴에 크나큰 흥분과 격동을 안겨준 주체 89(2000)년에 첫 창간호를 발행한 총련시인들의 《종소리》시집지가 어언간 8년세월을 거쳐 주체 96(2007)년 봄호에 이르러 30 호의 발간을 맞이하게 된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고립압살책동과 전쟁의 위협을 날로 증대시키고있는 미제의 대조선정책의 앞잡이가 되어 우리 공화국의 당당한 해외동포조적인 총련에 대한 탄압을 가일층 강화하고있는 일본반동들의 온갖 폭행속에서도 시집지는 변함없이 애국애주의 종소리를 울리며 굴함없이 자기의 주로를 중단없이 달려왔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녀을 지키고 민족이 일일천추로 갈망하고있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자기들의 삶의 좌표로 간직하며 사는 총련시인들이 이룩한 귀중한 결실이라고 말할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재일조선인운동은 우리의 가장 위력한 해외교포운동이며 성스러운 애국애족의 운동입니다.》

총련의 독자들이 사랑하는 《종소리》시집지는 동해를 건너 우리 조국땅에도 울려와 어려움이 많은 그속에서도 민족적량심과 정의의를 웨치고있다. 우리는 이런 재일조선인시인들을 해외에 가지고있는데 대하여 자랑으로,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이 지면을 통하여 《종소리》시집지 주체 95(2006)년 신년호인 25 호로부터 주체 96(2007)년 신년호인 29 호까지에 실려있는 시들을 조국의 독자들에게 소개하는것과 함께 나의 소감을 적으려한다.

70 만 재일동포들의 한결같은 심정을 대변하고있는 시집지《종소리》는 비록 몸은 해외에 있지만 언제나 마음의 기둥으로 세우고있는 조국에 대한 생각과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주도적감정으로 노래하고있다.

시인 김지영은 《새날을 맞이하여》라는 시에서 새날은 비록 겨울이지만 나에게는 귀중한 조국이 있기에 마음속에는 언제나 따사로운 봄을 느끼며 《일을 떨곤 앙상한 가지와/마른 잔디에서/웁트는 새싹을 예감하며/누군가에게/살짝 귀뜸해주고픈/가슴으로 본 희망의 새봄》을 찬미하고있다.

조국이 없는 이국살이 신세라면 그 무슨 한조각의 희망인들 있겠는가, 그러나 시인에게는 조국이 있고 우리 장군님이 계시기에 새해를 맞으며 희망으로 가슴이 부풀어온다. 그래서 엄동의 겨울에도 가슴속에서는 봄을 느끼는것이다.

이 시인의 다른 시 《당신의 품속에서》 시인은 당신의 품속에서 집을 짓고 아름다운 정원도 만

들고 나무를 심고 장미꽃도 피운다. 그 품속에서 그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원대한 꿈도 꾸다.

당신은
아우성을 잠재우고
고독과 상처를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안식처

시인은 아버지장군님의 품을 삶의 품으로 노래하면서 그이의 위대한 품안에서 뿌린 씨앗이 파랑게 싹터 튼튼한 뿌리 내려 울창한 숲을 이루고 한송이 꽃이 되어 피리라는 자기의 확신과 신념을 따뜻하면서도 소박한 심정으로 노래하고있는것이다.

재일조선인들에게 있어서 조국이란 멀리 바다건너 그리며 우러르기만 하는 그런 조국이 아니다. 조국은 그들의 생활속에, 투쟁속에 언제나 가까이 있는것이다. 총련중앙청사에 나뭇기는 공화국기에도 조국이 있다. 학생들이 입고 다니는 하얀 저고리와 까만 치마에도 그리고 민족적향취가 넘쳐나는 공연무대에도, 민족교육을 꽃피우고있는 학교들의 교정에도 조국이 있다.

시인 정화수는 시 《조국의 한끝》에서 우리의 학교를 이국의 풍치가 없는 곳 《몇대를 두고/얼마나 많은/민족의 녀 길러온 곳인가》라고 하면서 수십여년 온갖 정성을 다하여 쌓아온 우리 민족교육의 전당을 찬양하고있다. 녀마주이, 품팔이로 겨우 세운 기둥들을 태풍속에 부여안고 밤을 새우며 경찰과 맞서서 피투성이 되면서도 기어이 지켜낸 우리 학교인것이다.

모진 이역바람속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키워가는
여기는 바로 조국의 한끝이다

이렇게 시인은 조국과 학교를 하나로 이어주고있다. 그렇다, 우리 학교는 조국의 한 부분이다.

이 학교야말로 조국과 함께 숨쉬며 조국의 박동에 자기 심장의 고동을 맞추며 사는 조국인것이다. 조국아닌 곳에서 조국을 안고산다는 거기에 시인의 애국이 있고 진정한 조국관이 있는것이다.

나는 가끔 조국을 방문하는 재일조선인시인들을 만나보곤 한다. 그때마다 조국을 떠나사는 사람들의 조국에 대한 감정이 얼마나 류다른가에 대하여 체험하곤 한다. 조국과 언제나 떨어져있다는 그 거리감-그것은 그리움이다. 꽃속에 묻혀있으면 꽃향기를 다 못 느끼는 법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꽃향기 즉 조국의 향기를 맡고 싶어 어려운 걸음으로 조국을 찾아오는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조국은 보면 볼수록 정이 가는 《애인》이며 산악같이 가슴속에 들어앉은 신념인것이다. 그들이 조국에 왔다갈 때마다 조국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공화국의 땀땀한 해외공민답게, 조국의 아들딸답게 민족의 얼을 지켜갈 맹세를 굳힌다.

마른 잎 같지만
속잎은 파랗다

굽은듯이 보이지만
굽힌것이 아니다

이 겨울도
묵묵히
칼날같은 눈서리와
싸우는 너

속잎틈에는
이미
래년의 꽃망울이
자라고있구나

이것이 시 《겨울민들레》(정화흠 작)의 전문이다.

한생을 조국과 숨결을 같이하고 발걸음을 맞추어온 이 고향의 로시인 정화흠은 자기를 겨울민들레에 비기며 칼날같은 눈서리와 싸워온 이국에서의 한생의 길을 더듬어보며 일본반동들의 멸시와 폭행에도 결코 굴함수 없으며 또 굴하지 않는 조국에 대한 지조와 조국과 함께 걷는 자기의 굽힘없는 자세를 지금도 가슴속에서 자라나고있는 《래년의 꽃망울》로 망울지우고 있다. 이 꽃망울은 봄이 되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것이다.

...따개 개인 여름밤 별들이 유난히 밝은 평양의 어느 한 리관 잔디밭에 함께 누워 조국문학과 제일조선인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밤가는줄 모르고 나누던 시인, 그때는 50 대의 젊고 정력에 넘치던 이 시인의 30 여년이 지난 최근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나는 잘 알고있다. 내가 이 시를 접했을 때 반가움과 또 존경의 마음을 금할수 없었던 것은 시인의 로쇠는 결코 나이와 건강상태가 주는것이 아니였다. 한번 마음 먹은 지조가 불변하고 그의 민족적량심이 결백할 때 몸은 비록 늙을수 있어도 시는 결코 늙을줄 모른다는 시인-인생의 진리였다.

시인 홍운표는 시 《고향》에서 이국살이는 아직도 집요하게 고통과 슬픔을 강요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때마다 마음속의 고향산에 올라/소리치며 분한 가슴을 달래》 이고있다. 하여 《올해도 성인이 된 젊은이들이/고향을 업고 먼길을 떠났다》고 시를 맺고있다.

자기가 한번 선택한 정의로운 길을 변함없이

걸으면서도 그의 잔등에는 고향이 업혀있다. 여운으로 남긴 시인의 이 고백에는 통일이 되는 그 날에는 고향을 잔등에서 내려놓고 마음껏 포옹하리라하는 시인의 간절한 열망이 울리고있다.

80 객이 된 시인 김두권은 《땀한 원한》이라는 시조에서 이렇게 노래하고있다.

살아서 정처없고 죽어서도 임자없고
여든해 지나도록 그 원한 못 풀었네
하늘에 구름 다 모은 불벼락은 없는가

이 짧은 시조야말로 80 이 지나도록 가슴속에 웅이친 그 원한의 장본인인 통일의 원수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이며 준렬한 단죄이다.

시인 김학렬은 《손녀운동회》에서 아이들의 재미나는 운동회를 보면서도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사는 조국통일의 념원과 통일된 조국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재치있는 필치로 그 운동회와 결부시키고있다.

운동회의 한 종목으로 어린 아이가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불러내어 공굴리기경쟁을 한다. 앞서라 뒤서라 하는 그들을 보며 관중은 환성을 지르고 혈떡이는 할아버지 이마엔 진땀이 솟고 확성기는 《바다 저편》 즉 조국땅에까지 울리라고 소리를 높인다.

《꼬마된 마음으로 함께 달리신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 놓으십시오
손자, 손녀들은 그 봄날 웃음으로
이제 통일 래일의 공 굴러갑니다!》

이 시에 나오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란 어렸을 때 현해탄을 건너왔거나 일본에서 출생한 사람들일것이다, 그들의 가슴엔 한평생 통일이 숙원이였으며 죽기전에 통일을 보는것이 유일한 희망일것이다. 그분들에게 시인은 《마음을 놓으십시오》 하고 고무하면서 손자, 손녀들이 통일래일을 안아올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낙관을 안겨줌으로써 그 늙은이들의 눈에 기쁨의 눈물을 맺히게 해줄뿐아니라 그것은 동시에 통일을 지향하여 투쟁하는 70 만 재일동포들에게 주는 혁명적낙관인것이다.

너류시인 오홍심은 처녀의 모습과 닮았던 30 대 그 시절부터 자주 조국을 방문했었다.

그에게도 이제는 세월을 노래할 때가 된것이다. 누구나 다 그러하듯이 나이가 들면 세월의 빠름을 느낀다. 하기에 너류시인도 《세월도 빠르구나/어느덧 또 가을빛이 짙어가네》라고 시 《세월》의 서두를 떼고있다. 세월은 그의 꿈을 실어 멀리 왔다. 그가 지닌 꿈이란 고향이 제주도의 서귀포인 그에게 있어서 통일되어 고향을 밟아볼 그런 꿈인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의 꿈은 실현되지 못해 《세월만이 앞을 달리고》있는것이다. 하여 그의 소원은 《최사슬에 걸려/돌고마는 우리의 소원》인것이다. 그는 시의 마지막을 이렇게 맺고있다.

추위도 봄날, 더위도 봄날인
우리 민족의 봄은 아직도 꿈일가

이 결구에는 그것은 결코 리상, 지향으로만련
속될 그런 막연한 꿈이 아니라 시인의 주장이
강조되어있다. 그가 표현한 《죄사술》은 우리
념원에 역행하는 외세와 반통일세력이다. 그러나
추위도 더위도 우리의 가슴속엔 통일이 기어
이룩되고야만한다는 봄날의 속삭임이 있다. 이
봄날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지닌 꿈이며 지금은
《아직도 꿈》으로 되고있지만 래일에는 그 꿈이
현실로 된다는 시인의 주장을 여기서 볼수 있다.

이 시인이 쓴 시 《이제는 활짝 열어봅시다》
에서 북도 남도 우리 땅인데 이북에 다녀오면
이남에 갈수 없는 민족의 비극에 대하여 통탄하
면서 《외세의 방해자와/발을 당기고/앞을 막아
서는》 반통일세력들을 준렬히 단죄하고있으며
외세와 반통일세력들을 《죄다 제끼고》 북이든
남이든 내 발로 내 마음대로 활보해보자고
민족앞에 간절히 호소하고있다.

시인 문중렬은 《피로운 밤에》라는 시에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끝내 아들의 얼굴 한번
못보고 떠나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분렬이
《빛어낸 이 피로움/고향생각날 때마다/잠 못
이룬 밤마다/복수의 철필을 세운다》

반세기도나마 강토를 가르고 민족을 가르고
혈육마저 갈라놓은 미제와 반통일세력들은
민족불행의 장본인이며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췌이다 하여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있다.

우리 땅 갈라놓고
권세부린것들에게
기어이 분풀이하자고
복수의 철필을 세운다

재일시인들은 갈라진 강토를 안고 몸부림치며
분노만을 터뜨리는 그런 감정세계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시인 김응교는 시 《귀국》에서 감옥같은 무덤
에서 나와 치렁치렁 온갖 세월의 트렁크를 끌고
흰눈을 밟고 고국으로 가는 꿈을 노래하고있
으며 녀류시인 김지영은 시 《해야 솟아라》
에서 함부로 더러운 자욕을 남기려는 사악한
무리들, 칼날버리는 욕심에 눈멀고 썩어
문드러진 량심 가진자들을 무릎 꿇게 하
라고 웨치고있으며 침략의 무기는 눈석
임되어 녹아내리고 그자리에 움튼 새싹은
아름다운 꽃동산을 이루게 될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라고 자기의 격앙된 감정을 토로하고있다.

해- 그것은 곧 태양이며 위대한 장군님이
계시여 원췌들의 그 어떤 발악도 위대한
태양의 빛발

아래 눈속듯이 녹아내리며 민족이 그
토록 숙원하는 통일의 그날은 기어
이 오고야말리라는 시인의 확신이다.

재일동포들의 거주지는 어차피 일본땅이다.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미쳐날뛰는 일본반
동들은 자국내에 있는 우리 공화국의
해외동포조직인 총련에 대한 탄압을
근래에 와서 더욱 강화하고있으며
재일동포들은 이 모든 폭행의 대
상으로 되고있다. 최근 일본반동들은
히스테리적인 반총련광증을 일으키
며 총련관련시설들에 대한 강제수색
과 테로, 악랄한 허위모략선전을 일삼
고있다. 하지만 그 어떤 압해책동도
애국의 신념으로 가슴 불태우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놀래
울수 없으며 재일조선인운동의 앞
길을 가로 막을수 없다.

시집지 《종소리》는 일본반동들의
천추에 용납 못할 죄행을 신랄하게
단죄하고있다.

김학렬의 시 《불승비감》(비통한
감정을 억제할수 없다는 뜻)을 읽노
라면 눈내리는 깊은 밤 نوم들의
치떨리는 죄행을 생각하며 분노와
비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있는
시인의 얼굴이 떠오른다. 영화의
영사막우에도 텔레비존화면우에
서도 집요하게 떠들어대는 우리
조선사람들을 모독하는 야비한
목소리가 한밤중에도 귀따갑게
들려온다, 《참을성 없이는/단
하루도 못사는 이 땅》이다.

오만과
적대시와
유린의 칼바람은 너털웃음을 터치고
이밤 이 간또평야우에
꽃들이 방실 웃는
파스한 봄날은 아직 기척도 없고
악몽의 시각은 아예 떠나려고도
않고
깊은 이밤
차디찬 이 섬나라우에
평평 눈은 내리고
깊은 아픔 이기지를 못하는
비통의 이 가슴우에도
소리없이 눈은 내리고
하염없이 눈은 나래치고
평평
평평

시인은 이 시에서 민족적차별을 받으며
사는 이 섬나라에서는 부드럽게 내리는
눈도 아픔과 피로움만을 가슴에
덧쌓아주는 저주로운 타국의
자연이라는것을 강조하고있다.

시인 김윤호는 《책을 버리다》에서
독도를 일본령토라고 생억지를 쓰는
일본반동들의 령토팽창야망을
준렬히 타매하고있다. 천원짜리
몇장을 주고 책 한권을 샀는데
부피는 118 페이지, 표지는
판자처럼 두껍고 얼굴이 비칠
듯 반들거린다. 그런데 그 책속
에서 바늘끝같은 점 두개와
그옆에 쓰인 두 글자를 보았다.

대죽 자, 섬도 자
홀로 독 자는 어디로 갔는지

이튿날 아침에 시인은 그 책을 쓰레기창고에 버린다. 《지명이 옳은 표기를 위하여》...

최근에 일본반동들은 아시아를 또 침략하려는 옛꿈을 되살려 군국주의로 치달아가는 마차에 박차를 더 가하고있다. 놈들은 아세아와 세계인들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옛 군국주의전범자들의 망령이 배회하는 《야스구니진자》에 참배하는 그런 망동을 꺼리낌없이 감행하고있다.

시인 석촌은 이 《야스구니진자》를 《귀신동네》라고 야유하면서 남의 땅을 앗으려다가 제명대로 못살고 죽은 귀신들에 종류와 등급을 매기며 풍자적으로 열거하고있다. 총에 맞아죽은 총귀신, 칼에 맞아죽은 칼귀신, 불에 타죽은 불귀신, 바다물에 빠져죽은 물귀신, 토굴속에서 죽은 땅귀신, 하늘중천에서 죽은 하늘귀신, 독사에 물려죽은 독사귀신, 위안부 배꼽우에서 죽은 배꼽귀신이 있나하면 열세단 높은 마루우에서 목을 달아매인 A 급전범귀신도 있다.

이곳이 고향같다고
《대일본》 그 옛날이 그리웁다고
해마다 찾아와서
호주머니속에 짤랑거리는
백원짜리 한잎을 던져주는
린색한 미래의 귀신도 있다

여기서 표현하고있는 《미래의 귀신》이 그 누구를 녀두에 두고있는가에 대해서는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을것이다. 《대일본》의 옛날을 그리워하며 남의 땅을 노려보는 정권 역시 제명을 다 못살고 죽은 귀신의 신세를 면치 못할것이며 전범자의 망령이 되어 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리라는것을 풍자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일본이라는 사회는 돈있는자에게는 《천당》일지 모르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겐 있어서는 지옥이다.

시 30 편도 채 들어가지 않는, 부피는 두껍지 않는 《종소리》를 매해 4 권씩 발행하는것도 그들에게는 힘에 부치는 일일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민족의 일을 살리고 조국과 영원히 운명을 함께 하는데서 자기 삶의 보람을 느끼고있는 재일동포들의 사상감정을 대변하고있다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면면히 이 시잡지를 이어오고있기에 이 《종소리》는 우리에게 그토록 귀중한것이다.

문득 바람소리에
고개를 드니
석유값이 오른다

봄에 오른 의료비가
또 오르고
눈곱만 한 년금은
내려만 가고

《경제대국》-일본
뒤끝목은
병자에겐
사철이 겨울이다

이것이 정화흙의 시 《경제대국(2)》의 한 대목이다. 시인은 비록 최하층의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지성의 높이에서 일본이라는 판도를 내려다보면서 불공평과 모순에 찬 《경제대국》의 허위성에 조소를 보내고있다.

참으로 《종소리》시잡지에는 재일동포들의 생활의 여러 측면들이 다양하게 반영되어있다. 일본땅에서 사는 동포들의 단합을 노래한 정화수의 《동네의 봄》도 있고 재일동포 4 세, 5 세들이 우리 말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는 모습을 보며 조선의 눈정기를 반짝이며 민족의 대를 이어가고있는데 대하여 기쁨과 자랑을 감추지 못하는 정구일의 시 《외손자들》도 있다. 그리고 《우리의 겨레 얼싸안고/구국간장에 쌓인 눈물 새기며/ 천지의 맑은 물》 백록담 《맑은 물/ 고려청자기에 함께 부어/통일축배 들 그날은 꼭 올것이어라》고 조국통일의 그날을 략관하고있으며 《귀여운 아이들에게/아름다운 금수강산 삼천리땅을 안겨줍시다/남북 아이들이 행복하게/분계선없는 조국땅을 넘겨줍시다》라고 온 민족에게 호소하고있는 시인 천재련의 《지척이건만》, 《아이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줍시다》도 통일조국에 대한 강렬한 지향과 절절한 감정으로 하여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켜주고있다.

《종소리》시잡지 25 호로부터 29 호에 실린 120 여편의 시를 다 조국의 독자들에게 소개할수 없는것이 유감이다.

이 글을 마치면서 《종소리》시인회에 하고싶은 말이 있다. 나의 좁은 소견에도 이미전에 좋은 시와 많은 시들을 써내던 총련문예동산시인들의 이름이 더러 보이지 않고있는데 그 이름들을 《종소리》시잡지의 지면을 통하여 보고싶은것이고 그 또 하나는 《종소리》에 투고하는 시인들이 극히 제한되어있다는 점이다. 오랜 관록있는 시인들이 신인들을 많이 육성하여 《종소리》의 지면을 보다 풍만하고 다양하게 해주었으면 하는것이 다.

주체문학운동의 일익을 해외의 어려운 조건하에서 굳건히 말아안고 동요없이, 굴함없이 전진해가는 《종소리》시인회에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더 높이, 더 크게 재일본시문학의 《종소리》가 울려나올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나는 총과 이렇게 인연 맺었다

강명성

가슴에 안으면
그 목직함이 먼저 실려 오는
총이여 병사의 한 부분이여
너 언제부터 그렇듯
나와 뗄수 없는 인연 맺었더냐

어린시절 아버지가 깎아준
나무총 휘두르며 치달아오르던
군사놀이의 그 언덕이었던가
마을을 지나던 기통수아저씨
물 마시던 우물가에서 난생처음
꽃잎손으로 만져본 그 총이었던가

아니여라 나에게 총은
증오로 하여 인연 맺어졌어라
난생처음 가보았던 신천박물관
이야기로만 들어온 미제의 만행이
눈앞의 현실로 펼쳐졌을 때
저도 몰래 움켜쥔 두주먹이
무엇을 찾는가를
나는 푹푹히 깨달았어라

그래서였다
아침일찍 일어나 몸단련도

우화

군복 입고 총잡기 위해
붉은청년근위대 사격좌지에서도
우리에게 불행을 들썩운 미제를 향해
복수의 방아쇠를 당겼어라

호기심과 부러움이 아닌
증오와 복수로
나는 총과 인연을 맺었다
교문을 나서 우리가 선 자리는
다름아닌 최전연초소였거니

눈보라 들쓰는 근무의 한밤에도
믿음직한 총과 함께 있어
마음은 파스하고 더 억세여지더라
오직 총대로만 조국을 가장 뜨겁게 사랑할수 있고
원췌를 끝없이 증오할수 있음을
내 혁명의 군복입고 진리로 깨달았노라

소중하여라
혁명의 대를 이은 선군의 새 세대
그 숭고한 자각과 사명이
내 심장우에 놓여 무겁게 실리는 총
이 땅에 미제가 있는 한 순간도 놓을수 없어
오, 나는 총과 이렇게 인연을 맺었다

젊은 장수의 교훈

경명섭

먼 옛날 어느 곳에
두 나라 이웃하고있었네
어느 여름날 동쪽나라 군사들
서쪽나라로 쳐들어왔네

싸움에선 언제나 승패가 있기마련
승전한 서쪽나라 젊은 장수
달아나는 동쪽나라 군사들을
코웃음으로 바래우며 말했네

《우리는 크게 이겼다!
저놈들 이제 다시는
얼씬도 못하리라!》

젊은 장수 대단히 만족하여
군사들에게 령을 내렸네
《싸움에서 승전했으니
강물에 뛰어들어 마음놓고 땀을 씻으라!》

그 말에 군사들
기치창검 흔들며 만세를 부르고나서
시원한 강물에 몸을 잠겼네
장수도 군사들과 함께 어울려

승전의 기쁨 한껏 맛보았네

하지만 그것은 순간의 기쁨
쫓겨갔던 동쪽나라 군사들
때를 만난듯 다시 공격해왔네

너무도 뜻밖의 일에
당황한 젊은 장수
황급히 령을 내렸네
《어서 창검을 잡고
저놈들을 죽치라!》

허나 어찌하랴
몸은 물속에 있고
창검은 둔덕우에 있으니
군사들 창검을 만져볼 사이도 없이
비탈치듯 날아오는 화살에
그만해야 무리로 쓰러졌네

젊은 장수 피흐르는 가슴 움켜쥐며
그제야 뒤늦게 통탄하였네
《순간의 자만으로 탕개를 늦춘 탓에
결국 이렇게 망하고마는구나》

고구려는 잠들지 않는다

오필천

고구려는 살아있다

-장수산성 쇠부리터에서-

장수산에
야장간을 차려놓고
풀무를 붙어 정대를 버리고
함마를 휘둘러 팽이를 버리던
고구려장수들의 쇠부리터

한아름씩 되는 돌로 쌓은 불아궁
창을 만들고 검을 버리던
그 함마소리 가슴에 울리는듯

하루에도 몇 차례 달려들던
왜적들 목을 치느라 닳아진

무딘 창과 칼을 버리기 얼마?

원썬들 사정없이 족쳐낸
동방의 무쇠강국
고구려 무사들의 장수의 넋이
우리의 가슴에 흘러드는구나

아, 세월은 수천년 흘렀어도
고구려는 살아있다
원썬들이 우리 땅을 넘보고있는 한
칼을 버리고 창을 버리라고
우리 심장 불태워주며...

물은 물이로되

-장수산성 련못에서-

그 옛날 지각변동으로
바위산이 병풍처럼 솟은 장수산에
제일 바른것이 물이어서
한여름 가뭄철엔
마실 물조차 얻기 힘든데

산도 장수산성 등판에
출렁출렁 춤을 추는 파란물
새들도 내려앉아 목을 추기고
사슴들도 물이 좋아 내려오니
이 아니 조화런가

내 넋을 잃고
다시 다시 바라보니
물은 물이로되 물이 아니로다

고구려 옛장수들
달려든 왜적을 치고 땀을 들일 때
동으로 흘러내린 땀방울들이
점점이 성안에 배여 고인
고구려의 마를줄 모르는 정기여라
고구려의 넘쳐나는 슬기여라

장수부채

-장수산성 부채바위에서-

방금
고구려의 장수들이
원썬들을 단칼에 쳐눕히고
단몸을 식히다 놓은것인가

금시
고구려 애국명장 한희장군이
말갈기 휘날리며 전장을 지휘하다
땀들이며 뿔뿔 부치다 놓은것인가
장수부채

사방 삼십리

구름우에 우뚝 솟아 높은 산
안개속에 끝이 안 보이는
온산이 그대로 부채로 된
장수산성의 부채바위

세상사람 누구나
종이부채를 썼건만
고구려는 돌부채를 썼던가
바위부채를 썼던가
아, 답도 크지 고구려장수들...
아, 통이 크기도 하지 고구려명장들...

기록문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의 모든 형태를 다양하게 발전시키는것은 문학의 본성적요구이다.》

오늘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장구한 투쟁속에서 벌어진 거대한 역사적사변들과 사건들, 역사적인물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보여주는 기록문학이 왕성하게 창작되고있다.

기록문학은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재현된 문헌적자료들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역사적사건과 사회생활의 각이한 현상들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그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풍부한 지식을 주는 예술적산문이다.

창작적허구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사회적인의가 있는 뚜렷한 전형적속성을 가지고있는 실제적인 사실들을 떼어내어 예술적으로 독특하게 합성하는 기록문학은 역사적행정속에서 취한 일정한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정확한 반영과 인물들의 개성적형상으로 하여 신문, 잡지의 일반기사나 역사산문과는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있다.

이와 함께 기록문학은 자료의 정확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그 자료도 일부분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전면적으로 리용한다. 보도나 수기, 회상기 등은 일정한 사실적자료에 근거하고 그것을 리용하지만 그 자료는 필자의 의도에 따라 취사선택된것들이며 그 사실들가운데서도 부분적인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기록문학은 해당한 사건이나 사실들에 대한 전면적기록을 목적으로 출현한것만큼 객관성과 정확성, 구체성과 풍부성을 생명으로 하고있다.

오늘 이 기록문학의 개념에 비한 정의와 그 제선에 대한 문제는 문학분야에서 아직도 논쟁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예술적산문으로서의 기록문학은 19세기 중엽 작가일화

부터 창작되기 시작하였다.

이 문학의 첫 작품은 뽀슈진의 《뽀가초브의 력사》, 까를레일의 《프랑스혁명의 력사》이다. 이들의 뒤를 이어 프랑스의 로맹 롤랑과 바르뷔스, 쾰와이그가 적지 않은 작품을 내놓았으며 로씨야의 블로크, 리드 등이 사회주의 10월혁명을 반영한 작품들을 창작하여 기록문학을 한걸음 발전시켰다.

기록문학의 진정한 개화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 와서는 사건기록에만 머물지 않고 제 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인물들과 영웅들의 개성적형상창조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였다. 이전 소련의 스미르노브의 《브레스트요새》, 골랴코프의 《리하르트 조르게》, 르웬스꼬이의 《베를린, 1945년 5월》, 뽀도라크의 《뉴른베르그공판》 등이 그 대표적작품들이다.

제 2차 세계대전을 그린 기록문학작품은 벨라리아, 마쟈르, 로므니아 등 동유럽나라들과 프랑스, 영국 등 서유럽나라들에서도 많이 창작되었다.

현대기록문학은 그 주제와 양식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다. 오늘 기록문학은 이 형태와 립접한 전기, 회상기, 수기 등의 경험을 섭취하여 보다 폭을 넓히고있으며 지어 회곡분야에까지 접근하고있다. 이전 소련의 엘. 아. 말류진의 《우습강스러운 나의 행복》, 엠. 샤르토프의 회곡들, 프랑스의 아 제코의 《로젠베르그사람들은 죽지 말아야 한다》 등이 기록적성격이 강한 회곡작품들이다.

지나친 객관성과 정확성만을 우선시하면서 인물들의 개성적성격창조를 홀시하는 제한성은 있지만 해당시기의 역사적사변들과 사건들에 대한 깊이있고 풍부한 지식을 줄수 있는것으로 하여 기록문학은 오늘 독자들의 큰 관심속에 널리 창작되고있다.

진경일

나라의 존엄을 과시한 시인

14세기 전반기 우리 나라의 이름있는 학자이며 문인이었던 리곡이 아들 리색과 함께 어느 한 나라에 갔을 때의 일이다.

리곡은 그 나라 문인들과 마주앉아 시짓기경기를 하게 되었다.

그때 그 나라의 한 시인이 우리 나라 문학을 천시하면서 이렇게 조롱하였다.

산을 가지고 바다에 들어가면
바다가 큰줄을 알렸다

그러면서 그는 나이 어린 리곡의 아들 리색을 얕잡아보고 화답할것을 요구였다.

어린 마음에도 자기 나라 문학만을 《정통문학》으로 여기며 우리 나라 문학을 깔보는 그 나라 문인들의 그릇된 관점에 격분한 리색은 즉석에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시 한수를 지어 응수하였다.

우물에 앉아서 하늘을 보고는
하늘이 작다고 한다네

민족의 존엄을 귀중히 여기는 그의 애국심과 뛰어난 창작적재능에 탄복한 그 나라 문인들은 감히 다시는 입을 열지 못했다.

리색은 생애의 전기간 200여편의 애국적인 시를 지었으며 나라의 부강을 위한 대책적인 의견들도 수없이 제기하였다.

이러한 그였기에 고려를 멸망시킨 리성계와 만난 자리에서 《나라를 망하게 한 대부가 살아있을수 없다.

빠다귀나 겁어가지고 조상무덤이 있는 산에 가서 묻히고저 할뿐이다.》라고 하면서 신념과 충의를 지켜 그들이 자기들과 뜻을 같이 하자는 제의를 단호히 거절하였던것이다.

부사 박종인에게 외 2 편

조진관 (1739- 1808) 작

리성근 역

아직도 축석루아래의 긴 강은
성난는듯 부르짖는듯 하나니
의병장 리공의 죽음이
제일로 사대답더라
성이 깨지는 날 겨드랑이에
두 오랑캐놈을 끼고
넋과 힘 다하여
백마강에 뛰어들었네

세상에 알리고저인가
소리높이 제 이름 부르며
장하게 갔더라
지금도 어룡의 울음소리
끝없이 들려오나니
사람들은 그를 일러
성인이라 찬양하네

※ 어룡-물고기와 룡

이날에 떼떈하게 죽음을

왜적을 격파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리정암(1541 - 1600) 작

김충기 역

번개치듯 폭풍일듯 지나온 이 한해
물고기 잡아떼듯 적의 머리 베어냈네

개천가 높은 곳에 파도소리 잦아드니
머리 흰 이 신하도 기쁨이 그지없네

김응하의 사당에 쓴 시

김창히 (1651-1708) 작

한명길 역

한낮에도 솔숲은 옛 사당을 가리우고
신비한 바람은 기발을 펄럭이네
지금도 사람들
옛 싸움터를 추억하노니
내 이곳에서 보노라
김응하의 송로비를

수만의 적의 군사 우리를 노릴제
이 나라의 현현장부 떼떈이 싸웠구나
천추의 한 묻지 말아
황토의 백골에게

그대 명성 천하에
널리 자랑하노라

버드나무 슬픈 바람 싸움끝에 더욱 잦아
넋은 다시 화살되어 변방의 물길 넘나드네
마음속에 비노니
헛되이 일어나지 말기를
오래도록 무덤가에서
그대를 추모하노라

※송로비-김응하의 싸움공적을 칭송하여 세운 비

편집부의 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문학예술부문앞에는 우리 인민들을 투쟁과 승리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르고있습니다.》

올해의 소설들을 돌이켜보며

위대한 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구상이 더욱 활짝 꽃피어나는 해, 온 나라가 흥성거리는 해로 되게 하여야 한다는 새해공동사설의 구절구절들을 가슴에 새겨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의 마지막장을 덮을 때가 다가왔습니다.

희망찬던 주체 96(2007)년에 우리 《조선문학》잡지가 걸어온 자옥자옥을 깊은 감회속에 돌이켜보는 우리의 마음은 마냥 뜨거워옵니다.

격동적인 사변들로 가득찬 시대와 숨결을 같이하는 새라새로운 인간전형들을 창조하여 독자들을 투쟁과 위훈으로 고무하고 이끌어준 우리의 소설문학!

올해에도 우리의 소설문학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고무하며 힘찬 박동의 숨결을 뿔어왔습니다.

수령형상단편소설들인 《반격》(박운), 《오작교》(박혜란)와 함께 단편소설들인 《답》(김혜영), 《회답할 때가 되었다》(김철민), 《왜가리떼 날아들때》(김영희), 《<큰자존심>에 대한 이야기》(김해성) 등 올해 《조선문학》잡지에 실린 근 40 편의 소설작품들은 시대와 생활의 본질을 진실하고 참신하게 그린것으로 해서 많은 독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전도유망한 신진작가들이 문단에 던진 소설의 파동과 여운은 올해의 《조선문학》잡지를 더욱 이채롭게 장식하였습니다.

《해당화는 바다가에 핀다》(량정수), 《벗을 찾아》(조정협) 등은 모두 문단에 처음으로 선을 보이는 30 대의 젊은 신진작가들이 창작한 작품들입니다.

선망과 기대에 찬 시선을 모으며 이들이 내짚은 첫걸음은 얼마나 귀중한것입니까.

이렇게 귀중하게 여겨지는 작품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못한 작품들도 있어 가슴을 무겁게 해주곤 합니다. 그런 작품들을 대할 때마다 문학의 높이와 발전수준은 주로 소설문학의 사상예술적높이에 따라 평가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이 되새겨지곤 합니다.

반복적인 성격, 도식적인 구성, 메마른 감정조직, 감칠맛 없는 문장구사... 나의 작품들에는 없었는가를 우리 함께 돌이켜봅시다.

작가적사명감에 대한 높은 자각, 실력탁마의 부단한 노력이 없이는 시대와 호흡을 같이하며 독자들의 생활의 참다운 길동무로 될 작품을 창작할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명심합시다.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각, 대지를 흔들며 울려퍼지는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우리 《조선문학》잡지편집부는 훌륭한 작품들을 보내준 여러 작가동지들에게 뜨거운 새해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조선문학》잡지는 더 참신하고 더 진실하고 더 개성이 뚜렷한 그러한 작품들을 편집할것입니다.

시의 한해를 뒤돌아보며

공동사설을 받아안고 승리의 신심드높이 새해진군길을 다그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송년의 시각이 왔다.

어버이수령님 탄생 95 뉘과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75 뉘을 뜻깊게 맞이한 가슴벅찬 한해 주체 96(2007)년은 소리없이 저물어간다.

시로써 새해와 인사를 나누었고 시로써 한해와 뜨겁게 작별하는 우리 시인들의 감정은 류달리 추억깊은것이다.

《조선문학》잡지지면의 한갈피 한갈피를 추억속에 번지느라니 시의 높은 봉우리로 자신들을 끊임없이 채찍질하며 달려온 우리 시인들의 불같은

모습이 우렁이 떠오른다.

독자들의 기억에 남는 한편의 시를 위해 온 한해를 바치고 그마저도 모자라면 한생도 기꺼이 바칠 각오로 사는 우리 시인들.

한편한편의 서정시는 이런 정신적바탕이 낳은 고귀한 창조물이다.

이해에도 좋은 시들이 나와 우리 독자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첫 독자인 편집자의 감정이야 더 말해 뭇하랴.

서정시 《산-너인》(리연희 3호), 당시 《수령님과 관리위원장》(박기석 4호), 련시 《환송역두》(박철 5호), 서정시 《전쟁》(렴형미 7호), 련시 《선

군시대아이들》(강옥녀 7 호), 수필 《나는 불을 켜다》(최남순 7 호), 시조 《원화리의 전설》(박정애 9 호), 서정시 《행복한 사람》(리연희 10 호)

이 시들로 하여 편집부가 좀 분주했다.

전화로 묻는 사람, 찾아와 인사를 하는 사람...

작품을 본 한 독자는 어찌나 흥분했던지 전화로 시인의 생김새까지 물어본다.

좋은 작품이 나가면 이렇듯 독자들은 작가이상으로 기뻐한다.

그러나 이 한해에 《기쁜》 시들만 있는것이 아니다.

편집부가 찾아야 할 교훈이 많다고 본다.

보다 분발해야 할 책임감은 편집부와 함께 시인들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자신에 대한 요구성을 높이자!

그 높이는 문학에 대한 책임감의 높이이며 독자들의 기대의 높이이다.

좋은 시를 쓴 시인들은 더 좋은 시를 쓰기 위해 자신과 싸워야 할것이며 분발의 위치에 서있는 시인들은 남보다 백결음, 천결음을 더 달려야 할 각오로 자신들을 태워야 할것이다.

래년에는 어머니조국, 우리 공화국이 창건된 60돛이 되는 경사스러운 해이다.

어머니앞에 좋은 《선물》을 마련하는것은 자식의 마땅한 도리이다.

시인들이여, 다시한번 신들메를 조이고 명작평년을 마련한 몇몇한 자식으로 위대한 어머니조국앞에 가슴펴고 나서자!

주체적인 선군문학운동에 이바지한 평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선군혁명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치며 자랑찬 승리의 길을 걸어온 주체 96(2007)년!

돌이켜보면 우리 평론가들도 감회가 깊을것이다.

이해에도 문학부문에서는 많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여기서 《조선문학》잡지도 자기의 뚜렷한 자취를 남기며 온 한해 주체적인 선군문학운동에 참담게 이바지하였다.

주체적인 선군문학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는데서 평론은 의연히 중요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바와 같이 평론의 선도적역할에 의하여 시대와 작가, 현실과 문학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가 제때에 해명되고 문학작품창작과 건설에 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길이 개척된다.

올해 우리 잡지에서는 머리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해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자》를 신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작가들을 주체적인 선군문학창작운동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론설 《수령형상문학의 새 력사가 펼쳐진 영광의 40년》(김정남),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의 불멸의 대강》(최길상), 《조국을 깊이있게 구현하는것은 선군시대 문학의 중요한 과업》(김정웅), 《주체성과 민족성을 구현하는것은 선군시대 문학건설의 근본원칙》(리현순) 등에서는 우리 시대 문학작품창작과 건설에서 나서는 의의있는 문제점들을 옹계 제기하고 여기서 이룩한 성과와 해결방도들을 당의 문예정책에 의거하여 비교적 깊이있게 해명하고있다.

선군시대 문학작품창작에 대한 선도적역할을

수행하는것은 평론의 근본사명이다.

평론가들은 올해에도 선군시대 문학발전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평론들을 창작하기 위해 자기들의 정력을 아끼지 않았다.

평론 《영원불멸할 태양의 노래》(서재경), 《소설의 격과 멋》(허문길), 《새로운 서사시적화폭의 창조와 구성의 기교》(리창유), 《로병시인과 전쟁체험의 서사시적반영》(리수립), 《사랑과 철학》(김덕선), 《생활이 비낀 시적인 종자의 탐구》(리동수), 단평 《아이적목소리는 크지 않아도 그 진정은 강렬하다》(조선화), 《담담한 정서속에 메아리치는 필승의 찬가》(천명길), 《평범한 생활과 작품의 문제성》(최준희), 《〈천당〉을 세운 〈건축술〉》(김청송) 등에서는 작품창작에서 성과들을 론하면서 나타난 편향들을 바로잡고 선군시대가 요구하는 더 우수한 작품창작으로 작가들을 고무추동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주체 97(2008)년은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0돛을 맞는 해이다.

작가들은 뜻깊은 명절을 맞는 새해에도 지금 진행하고있는 공화국창건 60돛기념 전국문학축전에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문학작품을 내놓기 위하여 분발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선군조선의 작가된 영예와 긍지를 다시한번 힘있게 떨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 평론이 맡고있는 몫은 참으로 크다.

평론가들은 작가들이 백두산 3대장군의 위대성을 형상한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도록 하는데 계속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백두산 3대장군을 형상하는 문학작품창작에서 풍년이 들어야 우리 문학계에 풍년이 든다.

평론가들은 새해에 평론창작사업에서 주선이

무엇인가를 언제나 명심하고 작가들이 이 사업을 그 어느때보다 잘해나가도록 고무추동하여야 한다.

평론가들은 우리 당의 문예로선과 방침의 정당성을 깊이있게 론증하며 문학분야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빛나는 업적을 일반화하는 론설도 활발히 써내야 한다.

그리하여 작가들과 인민들을 우리 당의 문예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것을 창작실천에 빛나게 구현하도록 하여야 한다.

새해에도 평론가들은 선군시대 문학발전을 추동하는 심오하고 사리정연한 평론, 창작현실에 접

근한 평론, 날카로우면서도 계발식으로 된 평론, 여러가지 형식의 평론들을 적극 창작해내야 한다.

평론가들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제국주의자들의 문화적침투를 막아내기 위한 평론활동에 늘 관심하여 우리 문학분야에 적들의 온갖 이색적인 사상문화조류가 절대로 침습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평론가들은 평론이 없이는 문학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수 없다는것을 잘 알고 새해에도 자기의 일가견이 있고 뚜렷한 미학적주장이 있는 의의있는 평론들을 더 많이 창작해냄으로써 선군시대 문학발전에 참답게 기여하여야 할것이다.

작가일화

시인의 누우침

9 세기말의 작가였던 최치원이 유명한 시들을 많이 쓰게 된데는 이런 일화도 있다고 한다.

어느날 달빛이 고요히 흐르는 집마당에서 한 아이가 피리를 불고있었다. 얼마 있으려니까 다른 아이가 와서 그 아이의 피리를 빼앗으며 역증을 냈다.

《너도 최치원로인만큼이나 어리석구나. 듣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청승스럽게 피리는 왜 자꾸 부니?》

《그래도 난 최치원로인보다는 나아. 나야 낮에는 밭에 나가 일을 하고 밤에만 피리를 불지 않니. 최치원로인이야 농사를 짓니, 나무를 하니, 고기를 잡니, 가난한 백성들은 알지도 못하는 어리

석은 시나 읊고다니는데 그래 내가 그와 같단 말이나?》

어둠속에서 두 아이가 주고받는 말이 최치원의 귀에는 우뢰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아하! 내 시라는것이 백성들에게는 한푼어치의 도움도 되지 못하고 버림을 받는구나. 백성들이 모르는 시야 아무리 쓴들 무슨 소용이라.)

최치원은 백성들을 위해 일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즐기지 않는 시를 쓴 량심의 가책이 너무도 커서 가슴을 찼다 한다.

최남순